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4월 2일(음력 2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673 호

불자 후보 108명 출사표

전체 후보자 중 9% 차지…영남지역 출마자 최다



4 · 9총선에 출마한 1118명의 후보 가운데 불자는 누가 있을까?

제17대 정각회 회장으로 '10 · 27법난 특별법'을 여야 사이에서 중재해 통과시키고 '전통사찰법 개정' 등 교계 여론을 법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이해봉(대구 달서을 · 무소속) 후보는 정가에서도 손꼽히는 불자다.

엄호성(부산 사하갑 · 친박연대) · 이계진(강원 원주 · 한나라당) 후보 등도 정각회 활동을 했었다. 조계종립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한 주호영(대구 수성을 · 한나라당) 후보는 불교계 중진스님들과의 교류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초 · 고성 · 양양 변호사회 회장으로 지역민의 법률구제에 앞장섰던 조동용 변호사(강원 속초고성양양 · 한나라당)도 신흥사, 백담사 등을 자주 찾는 불자. 특히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납다른 신행활동을 펼쳤던 조문환(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 14순위),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한나라당 대변인에 영입된 조윤선(한나라당 비례대표 · 13순위) 후보도 활발한 불교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동국대종학생회장 출신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 통합민주신당) 후보도 정가와 불교계에 잘 알려진 불자.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 후보는 교육위원회만 3년을 지내 교육정책전문가로 불린다.

9, 10, 12,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7대 정각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용희(충북 보은옥천영동 · 자유선진당) 후보도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서 주목받는다. 이외 TV 토론에서 대중적 관심을 받은 최재천(서울 성동갑) 후보도 불자다.

4 · 9 제18대 총선에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1118명이 출마했다. 정당별 지역구 공천자는 한나라당과 평화통일가정당이 각각 245명으로 가장 많았다. 통합민주당 197명, 민주노동당 103명, 자유선진당 94명, 친박연대 52명, 진보신당 34명, 창조한국당 12명, 기독당 3명, 국민실향안보당 2명, 구국참사람연합 1명, 통일한국당 1명, 직능연합당 2명, 무소속 127명이 18대 총선에 뛰었다. 이중 24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5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전국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앙선관위원회의 인터넷선거정보시스템과 불교정책기획단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집계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불자 후보는 108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9%다. 각 종교별 언론에서 집계했던 17대 국회의원의 종교별 의원수가 개신교 103명(34.4%), 천주교 70명(23.4%), 불교 34명(11.4%)였던 것에 비교된다.

불교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영남지방 전체출마자는 316명. 이중 불자후보는 43명으로 불자후보의 비율이 13%로 평균 9%를 상회했다. 하지만 대전 · 충청지역의 전체 출마자 119명 중 불자는 11명으로 9% 평균을 유지했을 뿐 호남지역 전체출마자 148명 중 불자후보는 7명으로 4%, 수도권 전체출마자 451명 중 26명으로 5% 등이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연등축제 포스터 무료로 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연등축제와 봉축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제작 · 배포된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는 3월 28일 한글과 영어로 구성된 연등축제 · 봉축행사 포스터 5종과 디자인자료집을 선보였다. (02)2011-1744

여수령 기자





"템플스테이 정보 여기 다 모여요!"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건립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조계사(주지 원학)는 3월 28일 조계사 일주문 앞 부지에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에서 네 번째), 교육원장 청화 스님, 총무부장 원학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을 비롯해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김충용 종로구청장,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체탈도첩'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효암 前 원장 등 4명 진각종단 대상 제기

법원이 체탈도첩 당한 진각종 효암 前 통리원장과 前 중앙종의회 의장 진산 정사, 위덕학원 이사장 혜인 정사 등의 징계에 대해 진각종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는 3월 17일 효암 前 원장 등 4명이 진각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체탈도첩 징계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들고 있는 각종 하자들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해 12월 10일 강급 및 공권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진각종 통리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신교도와 더불어 환영하며 종단 내부 현안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불교방송 통합제안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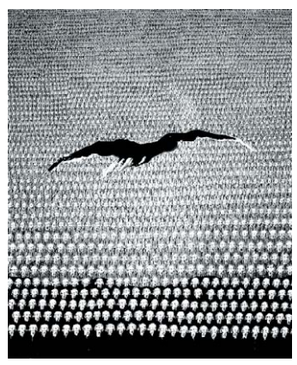
불교TV(btn) 회장 성우 스님이 불교방송(BBS) 이사장 영담 스님의 통합 제안을 거부했다.

성우 스님은 3월 27일 열린 14기 불교TV 정기 주주총회에서 "불교방송의 통합제안은 명분상 공감되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절차상 통합이 어렵다"며 "불교TV는 방송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은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교TV에 통합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여수령 기자

허허당의 세상만사



■ 아득한 비명

저 새를 보라
그리움이 하늘 가득하도다.
날개에도 꼬리에도...
아, 저 새가
저리도 아름다운 것은
분명, 그리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부처님 제일 공양 "청다향" 한국 최초 식품공학과연구 분석 (동국대학교 이광근 교수)

108참회 건강호흡 피톤치드 향으로!!

KBS ITV 생로병사의 비밀 "피톤치드" 방영에 이어
"뇌를 깨우는 108배" 도우는 향기나와 …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는 편백, 솔, 쑥 등 산야초에 담긴 황금빛 향기방등을 증류로 뽑은 향이 불사의 새바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숲속 향기 속에서 108참회 수행으로 간절한 발원만큼 불자님의 건강성취도 소중하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부처님 공양물을 대상으로 식품공학 분석은 물론 실용특허를 취득하여 제품의 신뢰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덕유산 청다향 합장



실용특허 제0164576호

■ 108참회도량 전용 향 문의 : 전화 055)941-1083 / 팩스 055)941-1084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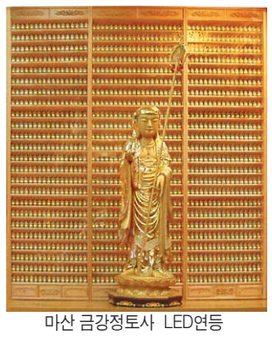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정교분리 원칙 무시…사회혼란 우려”

개신교 기독당·통일교는 가정당 창당
전문가들 “불교 정치세력화 신중해야”

✓**종교의 정치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18대 총선은 기독사랑 실천당(대표 최수환, 이하 기독당)과 평화통일가정당(총재 곽정환, 이하 가정당) 등장이 크게 눈에 띈다. 특히 통일교가 내세운 가정당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함께 245개 지역구 전체에 공천을 할 정도로 대규모 활동에 나섰다. 기독당은 이름처럼 개신교가 주축인 정당이다.

■기독당과 가정당의 출현=기독당이 독일 기독교민주당연합(이하 기민당) 등 유럽의 개신교 정당을 모델로 삼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독당의 전신인 ‘한국 기독당’은 17대 총선 당시 득표율 1%도 넘기지 못했을 정도로 부진했다. 지난 2월 28일 창당된 기독당은 기독교민주복지당(대표 최수환 장로)과 사랑실천당(대표 전광훈 목사)의 합당으로 이뤄졌다.

기독당은 이번 총선을 위해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공중파 방송 등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를 대표로 영입했다. 조용기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 목사들의 지지도 이끌어낸 기독당은 이번 총선에 3명의 지역구 출마자와 10명의 비례대표 후보 등 총 13명의 후보를 냈다.

가정당은 지난 3월 4일 통일교를 배경으로 1만5000명 당원이 모여 총선 출정식을 갖고 245개 전체 지역구에 출마자를 공천했다. 13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도 발표했다. 가정당 정책의 목적은 가정의 행복, 남북통일, 세계평화 실현이다. 특히 이번 총선 핵심공약을 ‘가족행복특별법 제정’에 두고 ▲가정이 행복한 나라 ▲도덕 정치 구현 ▲통일 한국 건설을 주도하는 가정당 등을 꼽아 특정 종교의 이미지를 희석하고 있다.

■불교의 정치참여 신중해야=교계에서도 18대 총선을 즈음해 정당이 탄생했다. 장주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이 창당한 자유평화불교연합당(이하 불교연합당)이 그것. 장주 스님은 지난 14대 총선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었다. 불교연합당은 이번 총선에 출마자를 내지는 않았지만 불자들에게 정당 표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을 보면 한때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관측된다.

개신교와 통일교 등 종교의 정치세력화에 불교도 동참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불교 뿐 아니라 어느 종교도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다종교인 한국사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웃종교를 자극해 종교단체의 정치세력화를 조장하게 되고 이는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한 정치외교학자는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종교 정당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 정당 정치는 정책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파생된 정당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 선교 목적을 띄는 경우가 있어 유권자 스스로도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불교정책기획단 김수일 정책실장은 “정교분리는 헌법상 규정된 사실로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종교는 정치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복지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포용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계에서 정치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인재불사를 통해 재가정치인을 양성하고, 출가수행자는 사회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분사 지키는 참된 불자 양성이 중요=불교의 정치참여 여부를 떠나 전문가들 모두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조차도 불자라고 밝히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다. 이번 총선 출마자 가운데도 직접 묻기 전에는 불자라고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심지어 끝까지 불자임을 숨기는 후보자도 있다.

그 원인을 두고 이웃종교인에 관대한 불자들과는 달리 불자에게 관대하지 못한 이웃 종교인들의 편협함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한국불교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수일 정책실장도 “교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불교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18대 총선 공천 불자들

이름	정당	지역	지역구	비고
강창일	통합민주당	제주	제주갑	
김영주	통합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박범계	통합민주당	대전	서구을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선병렬	통합민주당	대전	동구	
이광재	통합민주당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이용섭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을	
정봉주	통합민주당	서울	노원갑	
제종길	통합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조성준	통합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최재성	통합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최재천	통합민주당	서울	성동갑	
추미애	통합민주당	서울	광진을	
강훈식	통합민주당	충남	아산	
손현경	통합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한호연	통합민주당	강원	동해,삼척	
허대만	통합민주당	경북	포항남울릉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정국교	통합민주당	대전	비례대표	에이치앤티 대표이사
최문순	통합민주당	경기	비례대표	前 MBC 사장
유영하	한나라	경기	군포	
조동용	한나라	강원	속초.고성.양양	변호사
이계진	한나라	강원	원주	
신상진	한나라	경기	성남중원	
박순자	한나라	경기	안산단원을	
김성수	한나라	경기	양주동두천	
김학송	한나라	경남	김해	
안홍준	한나라	경남	마산을	
김재경	한나라	경남	진주을	
정종복	한나라	경북	경주	
이재순	한나라	경북	구미을	
손승태	한나라	경북	상주	
강석호	한나라	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	
장윤석	한나라	경북	영주	
박근혜	한나라	대구	달성군	
유승민	한나라	대구	동을	
이명규	한나라	대구	북구갑	
주호영	한나라	대구	수성을	
나경수	한나라	대전	서구을	변호사
박승환	한나라	부산	금정	
김정훈	한나라	부산	남구갑	
현기환	한나라	부산	사하갑	
박형준	한나라	부산	수영	
서병수	한나라	부산	해운대.기장갑	
김효재	한나라	서울	성북을	
이계경	한나라	서울	송파병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최병국	한나라	울산	남구갑	
윤두환	한나라	울산	북구	
정갑윤	한나라	울산	중구	
이상권	한나라	인천	계양을	
김영갑	한나라	충남	논산.계룡.금산	변호사
홍문표	한나라	충남	홍성예산	
김상도	한나라	경기	의정부갑	
여상규	한나라	경남	남해.하동	법무법인한백 대표변호사
김동호	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	
이한성	한나라	경북	문경.예천	
조재현	한나라	광주	광산갑	
윤석만	한나라	대전	동구	
허원제	한나라	부산	진갑	
천성복	한나라	전남	목포	
한남열	한나라	전남	함평 · 영광 장성	
김종훈	한나라	전북	고창 · 부안	
이종영	한나라	전북	군산	
부상일	한나라	제주	제주을	
송광호	한나라	충북	제천 · 단양	
강성천	한나라	전북	비례대표	한국노총 부위원장
조윤선	한나라	서울	비례대표	한나라당 대변인
조문환	한나라	대구	비례대표	고신대 의대 교수, 조계종 전국신도회 부회장
정옥임	한나라	충북	비례대표	선문대 교수
임동규	한나라	충북	비례대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박재순	한나라	전남	비례대표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현역의원
구본향	자유선진당	대구	북구갑	前대구시의원
이용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現 국회부의장
박한용	자유선진당	경남	밀양·창녕	밀양창녕경제연구원장
송성주	자유선진당	서울	송파갑	에듀웰빙타임즈 대표
정우택	자유선진당	충북	제천 · 단양	前세명대학교 대학원장
조양득	자유선진당	부산	사하을	前부산시의회 의원
이상원	자유선진당	경기	양주·동두천	前양주시의회 의장
이순근	자유선진당	경남	사천시	농어촌개발연구소장
이용휘	자유선진당	서울	중랑을	한국의미래를준비하는당 공동대표
이병희	자유선진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대표
박영린	자유선진당	대구	달서을	계명대 겸임교수
전병태	자유선진당	경기	고양 덕양 을	경기컴퓨터시스템 대표
신영길	자유선진당	대구	수성갑	한국건강웰빙센터 대표
임희수	자유선진당	경기	수원 영통	기업경영인
송두봉	자유선진당	경북	영천	대구민주화보존회 이사
이강욱	자유선진당	전북	전주완산갑	前영세상인 번영회장
엄호성	친박연대	부산	사하갑	16·17대 국회의원
함승희	친박연대	서울	노원갑	16대 국회의원(친박연대 공천심사위원장)
조현근	친박연대	경기	남양주을	정당인
장대진	친박연대	경북	안동	前도의원
박용승	친박연대	경기	성남 수정	前성남시의회 시의원
박상대	친박연대	경기	남양주갑	前박근혜 경기 특보
이우현	친박연대	경기	용인 처인	前용인시의회 의장
박성희	친박연대	경기	부천 원미을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세현	친박연대	부산	해운대 기장을	친박연대 수석 부대변인
박영민	친박연대	대구	북구갑	前 박근혜 경선후보 특보
최근성	민노당	경북	구미갑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병렬	민노당	경기	광명을	광명시위원회 위원장
김창희	민노당	경기	남양주을	민노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천기	민노당	경남	김해을	김해진보연합 집행위원장
김성태	민노당	경북	경주	
강일만	창조한국당	대구경북	진주을	창조한국당 지역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강회수	창조한국당	대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송암학원 이사장
장광현	창조한국당	충남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
김진명	창조한국당	경남	양산	
노희찬	진보신당	서울	노원병	
이해봉	무소속	대구	달서구을	

“조계종 포살결계법 시행 환영”

교단자정센터 조계·태고종 종회 모니터링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모니터링팀은 3월 18~29일 열린 조계종 제176회 임시중앙종회와 3월 20일 열린 태고종 제94회 중앙종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팀은 26일 조계종 종회에 대해 “포살결계법 제정과 대운하 반대 및 티베트 사태 평화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은 환영하지만 총무원장 스님의 금품제공 논란은 법 제정 취지를 반감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성묵 스님 외 63인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이 찬성 42표, 반대 29표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발의 따로 투표 따로’라는 이중적인 행태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니터링팀은 ‘포살결계법’ 제정에 주목하며 “정기적인 포살과 갈마를 통해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고 대중 공의를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종회 개회 당일 총무원장 스님이 초선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법 제정 취지를 반감시킨 일”이라고 지적했다.

태고종 종회에 대해서는 28일 “순천 선암사 폭력사태 징계자 23명을 전원 특별사면복권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해될만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발로참회가 있어야 한다”며 “일부 스님들이 제기한 11가지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종단 원로 중진간부 연석회의에서 제안해 채택된 ‘1사찰 1선행운동’은 태고종 사찰의 생활불교적 특성에 맞는 좋은 제안”이라 환영하며 “지도층의 의지가 담긴 실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원로·중진 스님들
‘삼성특검 종결 청원’ 논란

조계종 원로 · 중진스님들이 삼성특검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원로의원 밀운 스님 등은 3월 24일 조준웅 삼성비자금의혹사건 특별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 등 중진 스님 22명이 서명했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3월 28일 “청원서의 서명은 조계종 원로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보 살 계 산 림 법 회

• 입재 : 2008년 4월 10일(음. 3월 5일) 목요일 • 회향 : 2008년 4월 12일(음. 3월 7일) 토요일

불보종찰 통도사는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고
계율을 설하기를 1363년을 이어서 한 해도 수계의 향화를 거른 적이 없는 계율의 근본도량인 금강계단입니다.
계를 받는 공덕은 무량한 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금강계단에서 무자년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이어질 선근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장소 : 금강계단 / 전계사 : 중산 혜남 대화상 / 동참금 : 50,000원
문의 및 접수처 : 화엄전 055)381-1288, 종무소 055)382-7182, 각 말사(암)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 지하철역 오전 8시 ~ 9시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 떠난 이가 돌아옴과 같나니
- 범망경 中 -



영축총림 통 도 사 주지 아산 정우 합장
www.tongdosa.or.kr

'東大 로스쿨 선정' 불자 힘 모은다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



◀고불식 후 스님들과 동국대 오영교 총장이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종립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의 로스쿨 선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조계종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원회(위원장 법타)는 3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회의 직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명운동 고불식을 봉행하고 공식적인 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다.

대책위 회의 후 동국대 최순열 부총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불교 편향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 로스쿨 선정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해 서명운동의 목적이 로스쿨 탈락을 규탄하기 보다는 로스쿨 선정의 당위성을 천명함에 있음을 밝혔다.

고불식에는 법타 스님(대책위 위원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토진 스님(조계사 부주지) 등 종단 소임자들과 오영교 총장(동국대), 종호 스님(정각원장), 정용상 학장(동국대 법과대학) 및 석림회 학인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교직원 · 학생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법타 스님은 "전국 16위, 수도권 13위를 한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은 2천만 불자의 자부심과 종립 동국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동국대의 로스쿨 선정도 이루지 못한 교계 상황을 10 · 27법난에 빗대 "2007년 2월, 제2의 법난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스님은 "9월 로스쿨 확정 이전에 동국대의 로스쿨 선정을 위해 전 불자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말해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총선 선거일 전날인 4월 8일까지로 3월 27일 고불식 후 청와대와 정 · 관계에 탄원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됐다. 2차는 부처님오신날 이후인 5월 18일까지 교계 봉축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3차는 로스쿨 선정 대학 9월 본인가 직전인 8월 31일까지 100만 불자 서명운동이 지속된다.

서명운동에는 조계종 25개 교구본사가 적극 참여한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로스쿨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걸고, 리플릿 · 서명용지 등을 배포해 말사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동국대 홈페이지와 종단 사이트, 교계 언론 사이트를 활용한 전자서명 운동도 시작된다. 본지 인터넷뉴스사이트 붓다뉴스(news.buddhapia.com)를 통해서도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이 가능하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착공

전통촙 가득한 도심속 쉼터로

<1면에서 계속> 3월 28일 첫 삽을 뜬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씨(종합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이사)의 설계로 건립된다.

승씨는 서울 장충동 웰콤시티와 학동 수졸당, 서초동 법원 청사 등의 건축작품으로 건축상과 대한민국예술문화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보센터는 대지 579㎡(약 175평), 연면적 2314㎡(약 692평)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다. 조계사 소유의 부지에 건립비 국고 40억 원이 투입돼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건물 1층 입구에는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지붕에는 마당을 꾸며 도심 정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 2층은 기계실로, 지하 1층은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지상 1층에는 안내센터와 홍보관이, 2층에는 조계사가 운영하게 될 전통찻집이 마련된다. 3층은 템플스테이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관, 4층은 사무실이 들어선다.

또한 5층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직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3월 25일 사찰음식 대외협력위원으로 대안 스님(금당사찰음식문화원장)을 위촉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안 스님은 앞으로 사업단이 추진하는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사찰음식 상품화 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진경 스님은 "정보센터는 문화의 거리인 인사동과 조계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공간개념 구현에 역점을 두고 설계했다"며 "인사동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언제든 부담 없이 들러 차도 마시고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서울 인사동에 건립될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조감도.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설립

4월 중 활동 시작…기부문화확산 홍보 주력

교계에서도 '아름다운 재단'과 '월드비전'에 버금가는 공익법인이 설립된다. 조계종은 3월 25일 교계 최초 비영리 공익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하고 설립발기인총회를 마쳤다.

총회에는 지관 스님(총무원장), 세영 스님(사회부장), 박정규 변호사(김 · 장 법률사무소), 이명묵 원장(동국대 의료원), 한미영 부사장(태양금속공업), 박태수 회계사(삼덕회계법인), 김봉석 변호사(P&P법률사무소) 등이 참석해 재단설립 및 법인명 명명, 정관 채택, 기본재산출연,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안건을 의결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조계종유지재단에서 출연한 4억여 원과 기부모금 예상액 6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의 예산계획을 세웠다. 기부모금 예상액 6억 원은 300~500여명 개인 후원자를 통해 월정액을 모으고 기업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모금으로 마련된다.

4월 중 행정안전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치게 될 법인은 재난 · 재해 긴급구호활동 및 소외계층 지원 등을 펼친다. 초기에는 생활 속 모금 실천 캠페인 등 법인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5월 사이트 개설, 7월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수도권 사찰 모금 활동 등 기부문화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상임이사 세영 스님(사회부장)은 "그동안 불자들에게 마땅한 기부처가 없었다. '아름다운 동행'이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할 것"이라 말했다. 세영 스님은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 필요하다"면서 '아름다운 동행'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3월 25일 열린 '아름다운 동행' 설립 발기인 총회.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 美 예일대에 500억 손배소

"신정아씨 박사학위 허위검증 책임져야"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美 예일대의 신정아씨 박사학위 허위검증의 책임을 물어 3월 25일(현지시간 3월 24일), 美 예일대 소재지인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500억원 상당(미화 5천만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월 26일 동국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진수 부총장은 "신정아씨 임용 당시 박사학위 검증을 요청했으나 예일대의 잘못으로 신정아씨를 채용하게 됐다. 작년 여름 신정아씨 학위 논란시 재검증 요청에 대해서는 학력확인 요청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 동국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동국대가 예일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신정아씨 임용당시 학력확인 요청 공문을 등기로 발송했으나 신정아씨의 학위취득사실을 확인해 팩스로 보낸 점 ▲2007년 6월 신씨의 박사학위 진위여부 논란시 재검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예일대가 2007년 7월 10일 법무실장 명의의 답변서신에서 2005년 9월 22일자 학위취득사실 확인 팩스가 사실임에도 '조작된 가짜'라고 부인한 점 ▲동국대가 학위검증요청 공문을 요청한 사실을 예일대에 지속적으로 제시했음에도 예일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예일대가 한국의 주요 언론을 상대로 동국대로부터 학력검증을 의뢰 받은 사실이 없고, 2005년 9월 22일자 팩스가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던 점 등이다.

한 부총장은 "예일대의 잘못으로 동국대는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동문 · 기업 등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의 급격한 감소와 2008학년도 입시지원율이 감소하고, 한국능률협회의 우수고객서비스상 후보에서 실격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00억 원 규모로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징벌적 보상에 대한 금액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일대는 소송서류를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동국대측은 이번 소송에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섭 기자



석주당 정일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초대학장, 동국역경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신 석주 큰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포교 · 역경 · 복지 · 교육 등에 그 원력을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으셨습니다.
석주정일문도회(대표 월호 스님)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석주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헌신 하신 큰스님의 발자취와 덕망을 기리며 미래의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언하고자 기념학술회의를 아래와 같이 마련합니다.
대덕 스님들과 문도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두루 참석하셔서 큰스님의 발자취와 덕망을 더욱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4월 8일(음 3.3)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제 :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
– 법 어 : 월운 스님
– 발표자 : 송운 스님(보문사 주지), 홍윤식(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김선근(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고명석(조계종 포교원 선임연구원), 법진 스님(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

석주당 정일 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재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4월 8일(음 3.3)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칠보사 큰법당

■ 주최 _ 석주정일문도회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문의 _ 한국불교선리연구원 (02) 734-9653,734-9657 보문사 (041) 545-6531

"사찰 음용수 오염 대책 마련해야"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지역발전 간담회 개최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26일 한용택 옥천군수 및 군 관계자와 옥천군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옥천 지역 사찰 음용수의 60%가 오염됐다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이미 지난해 7월 발표됐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사찰 참배객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 · 옥천 대성사 주지, 이하 옥천사암련)가 3월 26일 한용택 옥천군수 및 군 관계자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옥천사암련은 이날 사찰 음용수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수질조사는 관내 53개의 사찰 중 5곳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48개 사찰의 수질 상태까지 부적합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며 "2007년 조사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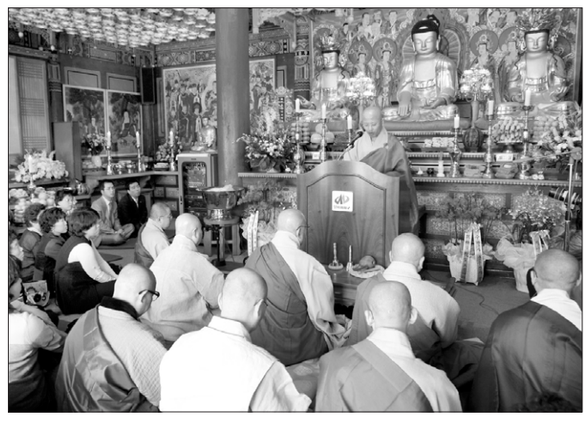
군 관계자는 "지하수법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 검사 자체를 군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후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군으로 문의하면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옥천사암련은 유등축제에 대한 군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혜철 스님은 "2004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진행됐던 유등축제가 예산 문제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2009년 개최할 제3회 유등축제에 군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옥천군은 "2005년도 당시 이웃 종교계와 문화예술계가 '종교행사의 군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축제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된 지역문화 · 종교계 인사와의 사전 의견 조율, 협의체 구성, 군민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옥천사암련과 옥천군은 유등축제 개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3회 유등축제 개최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지승 스님(가산사 주지)은 "충봉충렬제와 영규대사 추모재는 함께 모셔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통사찰인 구절사의 보수비용 증액요구는 옥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교구본사인 법주사에 협조를 구하는 대신 군과 옥천사암련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한용택 옥천 군수는 실 과장들에게 현장 답사를 지시하는 등 사암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옥천사암련은 이날 간담회 후 옥천군이 펼치고 있는 장학 사업을 위해 200만원을 전달하고 군 발전에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손효선 기자


대구 보성선원 신임주지 한북 스님은 3월 25일 취임법회와 보혜 스님 열반 5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보성선원 한북 스님 취임법회

보혜선사 열반 5주기 추모재 봉행도

대구 보성선원 창건주 보혜선사 열반 제5주기 추모재 및 신임주지 한북 스님 취임법회가 3월 25일 대덕 보성선원 대웅전에서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한북 스님은 "창건주 보혜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포교에 앞장서겠다"며 "어린이 청소년 법회, 불교대학 운영, 큰스님 초청 일요법회, 봉사단 조직, 사이버 포교 등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는 화환 대신 쌀을 축하선물로 기증 받아 지역 기초생활 수급 대상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미담을 남겼다.

한편, 이날 입적 5주기를 맞은 보성선원 창건주 보혜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 정신에 입각해 살았던 수행자로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은 일화를 남겼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니르바나 정진 산림 대법회

남양주 봉선사서 개최

3월 21일,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 설법전에는 '백팔대참회문'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은 봉선사가 지난 3월 15~21일까지 개최한 '니르바나 정진 산림 대법회'의 회향법회가 봉행되는 날이었다.

'니르바나 정진 산림 대법회'는 출가 · 열반전을 맞아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가르침을 되새기고 올바른 신행문화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1주일 간 '팔상성도'에 관한 스님들의 법문으로 진행됐다. 법회 첫째 날인 15일 회주스님의 '위대한 버림과 출가(도솔래의상)' 법문을 시작으로 회향일인 21일 월운 스님의 '열반의 영원한 빛으로 오신 날(쌍림열반상)' 법문으로 마무리됐다. 법회기간 동안 <금강경> 독송, 백팔참회문 독송,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석가모니불 정근 등도 이어졌다.

회향법회에서 월운 스님은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 열반에 드신 것은 우리에게 시현(示現)하기 위함이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며 "우리는 업으로 인해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내 코로 숨 쉴 수 있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문윤정 논설위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생 환영법회

국군간호사관학교 52기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 법회가 열렸다. 3월 25일 호국 약천사에서 열린 법회에 청량산 보국사 주지 지행 스님, 육군본부 군종감 이원오 법사를 비롯한 간호사관 생도, 치료중인 일반 병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육군 본부 군종감 원오 법사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며 "군인이라는 직업도 행복하게 살기위해 선택한 길 일 것이니 복무기간 동안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손효선 기자

"전통·현대 어우러진 교육을"

동학사 승가대학 제17대 학장 해주 스님 취임법회

동학사 승가대학 제17대 학장에 임명된 해주 스님의 취임법회가 3월 27일 동학사 강설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동학사 주지 요명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학장 취임을 축하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동학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강원 전통이 매우 깊다"며 "승가대학 학장으로 취임하는 해주 스님이 포부로 밝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교육'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주 스님은 취임사에서 "동학사 승가대학의 오랜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경학(經學)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마음과 말,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닌 법으로 부처님 혜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동학사 승가대학장에 취임한 해주 스님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

손효선 기자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로"

전등사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역민들에게 산문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

4월 3일 오전 8시 강화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3회 전등사기(旗) 강화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는 1000여명의 지역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등사가 지난 2006년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중노년층의 생활체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게이트볼 대회와 함께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마련하는 무료진료 서비스도 펼쳐진다. 전등사 신도들이 마련한 점심공양과 공연으로 흥겨운 어울림 마당이 펼쳐진다. (032)937-0125

여수령 기자

봉은사 선덕스님 초청법회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5월 4일까지 '새봄맞이 선덕스님 초청법회'를 펼친다. '선덕(禪德)'은 사표가 되는 선지식을 뜻하는 용어로, 각 선원의 선원장 스님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3월 30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등선원장) 초청 법석이 펼쳐진데 이어 4월 13일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 광원암 암주), 20일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27일 정광 스님(문경 봉암사 종립특별선원장), 5월 4일 고우 스님(前 태백산 각화선원장)이 법문을 한다. 4월 6일 초하루 법회에서는 주지 명진 스님의 법문이 마련된다.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02)511-6070

여수령 기자

속초공무원불자회 창립법회

속초시 공무원불자회 창립법회가 3월 21일 속초시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속초시공무원불자회는 박영태 수질환경사업소장을 초대 회장으로 앞으로 매년 2차례씩 시청 상황실에서 조찬법회를 여는 한편, 정기 법회와 성지순례를 봉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원봉사 등도 펼친다.

이날 법회에는 신흥사 회주 무산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본말사 스님들과 속초시 공무원, 강원도의원, 신흥사 복지원 산하단체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 앞서 보리수예술단의 국악공연과 해오름의 난타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여수령 기자

제108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무자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1천 3백여년 전 의상스님께서 창건하신 이래 여러 대덕스님들이 주석하신 유서 깊은 도량이자 전통적인 계법(戒法)을 전하는 계율 근본 도량이기도 합니다.

보살계란, 대승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로써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보살이 그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범어사 금강계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오니, 여러 불자님께서는 수희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입 재 : 불기 2552년 4월 18일 (음력 3월 13일)
회 향 : 불기 2552년 4월 20일 (음력 3월 15일)
] 3일간
장 소 : 범어사 금강계단(보제루)

● 동 참 금 : 5만원 (₩50,000)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39701-01-140693 (예금주 : 범어사)
● 접 수 : 원주실 (051)508-3636, 3721
종무소 (051)508-3122~5
범어사 각 말사 (암)

傳戒師 : 瑞海 興敎大和尙

3화상 : 전계대화상 서해 흥교 / 갈마아사리 해월 선래 / 교수아사리 제월 통광

7증사 : 존증아사리 서림 대성 / 서암 혜관 · 일운 담연 / 정사 도근 · 태인 몽산 / 보륜 지정 · 금우 인각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외국스님 법문에서 강부자씨 신행담까지…

부산 부처님마을, 4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특별법회 봉행



부처님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일조 무심 자은 스님, 강부자 송석구씨.

뼈 속 깊은 곳까지 스며져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나 그들이 만난 부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푸른 눈의 출가 수행자로부터 한국불교를 만나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바뀐 계기를 직접 들어 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부산 부처님마을(주지 효범)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외국인 한국스님과 불자 유명인 초청대법회'를 부산 해운대 부처님마을에서 봉행한다.

"외국인스님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 한국불교의 저력을 직접 듣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넘치면 소중한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불교를 모든 문화 속에서 거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지요. 먼저 이번 법회는 대중들에게 한국 문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법회를 개최하는 주지 효범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법회 일정 및 초청 순서는 4월 1일 일조 스님, 8일 무심 스님, 15일 자은 스님, 22일 불자 연예인 강부자씨, 29일 국제신문 송석구 사장이다. 일조 스님은 1999년 원명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순천 송광사 강원과 율원에서 정진 후 현재 싱가포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국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심 스님은 숭산 스님을 은사스님으로 출가하여 화계사 서울 국제선원의 수석 지도법사 및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를 역임하며 참선 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 화제를 몰고 온 책 <공부하다 죽어라>의 저자 중 한명이다. 자은 스님은 앨버타대학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생화학 박사를 취득한 수재다. 공주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다 공주 마곡사 성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부처님은 수많은 모습으로 나투시지만 법신(法身)은 하나입니다. 눈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그 분들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은 진리며 우리에게 색다르나 참다운 진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스님들을 초청하여 봉행하는 법회는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외국인 스님들을 자주 초청하여 법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고 편견 없이 활동하며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회는 초청받아 오는 스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지 효범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외국인 스님 수행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할 때 실무 책임자를 맡으며 외국인스님들을 위한 수행 지침 및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 주인공 중 하나이다. 그 만큼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수행자들을 관심과 격려로 응원하고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고심해 온 것이다.

"대중들에게는 한국불교의 소중함을 알리고 외국인스님들에게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전하며 부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법회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법문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051)704-0332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인재개발을 위한 첫 도약"

부산불교신도회 불교대학 입학식

"200만 부산불자들의 교육과 신행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부설 부산인재개발원(원장 이욱태)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1기 로터스(연화) 불교대학 입학식을 3월 27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봉행했다. 로터스(연화) 불교대학은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할 불교인재양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재불사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입학생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병수 학장은 "부산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의 중축으로 21세기 녹야원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모든 것이며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산인재개발원은 불자 CEO를 위한 전문 강좌와 수행을 겸비한 교육 수련 및 전문 강원을 개설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茶香 피어오르는 제주도 약천사

4월 8일, 오백나한 헌공다례 봉행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장을 거듭한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 (사)탐라차문화원(원장 이연정)이 '약천사 헌공다례회'를 결성하고 처음으로 '오백나한 헌공다례'를 4월 8일 오후 2시 봉행한다. 오랫동안 약천사에서 재배해온 차나무의 수확물을 부처님께 첫 공양으로 준비해 올려 더욱 의미가 깊다.

2000년부터 약천사에서 시작한 다도 교육을 심화 발전시킨 이순옥 보살은 올해 (사)탐라차문화원을 개원했다. (사)탐라차문화원은 차 문화가 부족한 제주도에 봄꽃처럼 피어난 새 시도라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익혀온 차 수행방법 및 행다를 통해 많은 다도 사범들을 배출시켜 왔다. 올해 (사)탐라차문화원은 교육생과 사범들이 모여 부처님께 여법한 차 공양을 올리자는 취지로 약천사 헌공다례회(회장 이연정)를 새롭게 발족해 이번 헌공다례를 마련했다.

약천사 부주지 성원 스님은 "고려시대부터 삼짓날이 되면 나한님들에게 차 공양을 올렸는데 그 전통을 이어 약천사도 금년 삼짓날부터 오백나한 헌공다례를 하기로 했다"며 "다례 예식을 통해 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신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약천사는 4월 8일 오전 10시 삼성각 나반존자 복장불사를 회향한다. (064)738-5000 하성미 기자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진산식

4월 3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앞마당

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는 4월 3일 오전 10시 성보박물관 앞에서 주지 진산식을 봉행한다. 이번에 주지로 취임하는 정여 스님은 3월 6일 범어사 주지 후보에 선출되고 19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정여 스님은 1975년 7월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3월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쌍계사 금당선원 화대·입승, 범어사 금어선원 재무 소임, 여여정사,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통불교 대의 실현하자"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대원장 지암)가 3월 27일 부산 수덕사에서 임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26개 회원 중 20여 회원이 참석하여 중흥회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확정했다. 대원장 지암 스님(해동불교 임제종)은 인사말에서 "분산된 한국불교 종단을 합리적으로 엮어내 통불교의 대의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부산 수덕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임시총회.

부총재 혜안 스님(대한불교무량종)은 "각 종단의 지도자로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발전된 지향점을 갖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061)644-7273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불교실업인회

불심으로 기업·지역활동 17년

전회원이 신심모아 '묘광선원' 건립
108명상 · 사찰순례등 신행 원동력

연일 일간지 주요 면을 장식하는 내용을 보면 경제가 화두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경제대통령이 우선이었으며, 기업인을 대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불황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삶의 철학으로 삼아 격랑 앞에서도 더욱 고요하게 정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영광도서 대표) 회원들이다.

부산불교실업인회(이하 실업인회)는 3월 26일 부산 서면에 위치한 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제17주년 창립법회 <사진>를 열었다.



60여명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윤환 회장은 기념사에서 "수레가 외발로 굴러갈 수 없듯 지난 17년 동안 전 회원이 신심과 정성을 모아 큰 불사를 이룩했다"며 "지금 여러분이 편히 앉아 계시는 회관과 법당을 우리의 힘으로 건립한 것이기에 여러분은 이 불사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과의 굳은 연을 맺은 것"이라고 기쁨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사찰에서 봉행하는 순례법회 이외의 행사는 묘광선원 법당에서 봉행할 계획이며, 법회 공간이 없는 신행단체의 법회공간이나 각종 문화 강좌 개최 등 열린 공간으로 회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특별히 60여명 회원들이 지도법사의 가르침에 따라 저녁을 발우공양으로 체험했다. 공양이 끝난 후 박광서 교수(서강대)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우리 불교는 미래 지향적 종교"라 전제한 박광서 교수는 "역사학자 토인비는 20세기에 불교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해진 것이 한 시대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서양이 불교로 인해 감성적 사회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공직자의 종교적 차별, 부당성, 인권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불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며 새로운 불사를 해야 한다. 종교적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개선, 극복해야 할 화두"라고 역설해 회원들의 뜨거운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수행정진 프로그램으로 '자아를 위한 108명상'을 실시해 지친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부처님의 법이 좋아 1991년 2월 처음 모인 108명 불자 실업인들이 불법홍포와 사회봉사를 위해 실업인회를 태동시켰다. 2006년 5월, 묘심선원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 이래 마야부인회와 매월 사찰순례 정기법회를 통해 회원 신심을 증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장학금지급, 봉사활동등 대사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부산불교실업인회 (051)818-9914 오세룡 부산지사장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 건축 개요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2-10,11,12번지
▷ 대지면적 : 1260㎡(382평) ▷ 총연면적 : 11,322㎡ (3,425평)
▷ 건물규모 : 지상 8층, 지하 5층 ▷ 건축기간 : 2008. 4월 ~ 2009. 9월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기도해 드립니다.

■ 동참방법 : 신축불사에 동참을 원하시는분은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 1588-1936 / 080-449-9500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 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사찰에서 봄 맞으세요"

김제 금산사, 광주 무각사 템플스테이 열려

꽃놀이로 상춘객들의 나들이가 한창인 때,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와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에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화전놀이를 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금산사 주변의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직접 만들어 차와 함께 먹는 화전놀이가 더해져 진행된다. 참가비는 6만원이다.

광주 무각사에서는 3월 22일부터 매주 주말 1박 2일 코스의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무각사 템플스테이는 광주 도심에서 열리는 것이 특징. '참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참선, 108배와 걷기 명상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금산사 (063)548-4441 / 무각사 (062)383-0107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유형문화재 제53호 개방

선운사 만세루 참배객에

선운사(주지 법만) 만세루가 참배객들에게 개방된다. 만세루 개방은 선운사 자생차 제공 등 선운사를 찾은 참배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만 스님 주지 취임 후 동백꽃 등 상춘객을 위해 2007년부터 개방해왔지만 정식으로 개방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만세루는 강당 및 템플스테이 때 사용했었다.

한편 선운사는 이번 만세루 개방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문화재 훼손에 대비하고자 주간에 선운사 대중을 상주시키는 등 문화재 보호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에서 마음의 빛 밝힌다

자비신행회 간화선 특별강좌 개최

누구나 한번은 해봄직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구해야할까? 가부좌를 틀고 앉아 봐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나를 잘 찾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더해져 간화선은 어렵기만 했다.

간화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됐다.

빛고을 광주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는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마다 7회에 걸쳐 간화선을 중심으로 불교의 수행론에 대한 특별강의를 연다.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이 진행하는 강의는 아함경을 기초로 한 초기불교수행, 간화선 그리고 육조단경 전반부에 있는 대신심(大信心) 등에 스님의 수행이야기가 더해져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될 예정이다.



3월 26일 자비신행회에서 특강중인 금강 스님과 동참 불자들.

강사로 나선 금강 스님은 해남 미황사에서 서옹 스님(前 조계종 종정)이 주창했던 '참사람운동'을 바탕으로 '참사람수련회'에서 재가 불자들에게 간화선 수행을 지도해 왔다. 스님은 "올바로 이해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대신심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해 대신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믿음을 바탕으로 공부가 진전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간화선 특강을 계기로 많은 재가 불자들이 간화선 수행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화선 수행에 대한 좋은 지침서들이 줄지어 나오고, 광주에서도 무각사, 자비신행회 등 간화선을 수행하는 재가선방들이 속속 개원하는 요즘, 자비신행회의 간화선 특강은 재가불자들의 마음을 밝히는 또 다른 빛이 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 처음 불자됐어요"

호국 장영사 장교·사병 미륵십선계 수지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는 3월 23일 미륵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계사로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이원우 전북 교사불자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전북 포교사단 포교사, 완주 위봉사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으며, 장교 및 일반사병 120명이 미륵십선계를 수지 받았다.

원행 스님은 계를 설한 후 "오늘 받은 계를 잘 지켜 불자 군인으로서 모범이 되어 달라.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서도 항상 계를 마음에 담아 수행 정진하는 참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는 완주 위봉사 관음회 회원들이 불자장병들을 위한 간식 제공을, 전주 바라밀 합창단이 찬불가를 공연해 계를 수지한 장병들을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시아예술인 한마당 열려

'아시아문화나눔 잔치' 개최

아시아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문화나눔잔치'를 연다.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 이하 교류재단)이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4월 5일, 2008년 아시아문화예술인교류사업 개막식을 시작으로 '바람처럼 떠도는 자'로 알려진 인도 바울과 네팔,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 예술인들이 문화교류사업과 함께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아시아문화홍보관, 해남 미황사, 대원사, 서울 인사동 등에서 공연예술을 하고, 광주향교, 템플스테이, 다도체험 등 한국문화체험도 할 예정이다. 4월 24~25일은 아시아문화주간으로 정해 아시아 각국의 다문화세미나와 인도, 네팔, 몽골 등 아시아 지역의 음식과 풍속을 체험하는 행사도 펼쳐진다.

작년 5월 인도 타고르예술단 등 20여명의 예술가들을 초정해 아시아문화예술축제를 열기도 했던 교류재단은 지난 2006년 11월 출범해 인도박물관과 인도문화원을 산하기관으로 뒀다. 작년 광주의 아시아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사업 주관단체로 참여한 교류재단은 1월 인도 샨티니케탄, 꼴까타를 중심으로 사물놀이, 다회(茶會) 등 문화나눔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쳐왔다.

교류재단 김재우 이사장은 "문명의 전환기마다 세계의 지성들은 한결같이 동아시아 문화전통에서 인류의 비전과 공존공생의 지혜를 찾았다.

이제는 광주가 중심이 돼 한국의 문화 산업을 이끌고 아시아 르네상스를 재창조하여 세계사의 흐름을 이끌어야 할 때"라며 행사의 의의를 강조했다. (062)224-004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전북 불교회관 원감 덕림스님

교육·포교 쉴 수 없는 '사명감'

"전북불교회관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신행활동 지도, 교육, 복지활동, 포교활동입니다." 덕림 스님은 전북불교회관 원감 소임을 6년째 맡고 있다. 덕림 스님이 말한 전북불교회관의 활동은 전북지역 불교활동의 방향이라 할 만큼 전북불교회관이 지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전북불교의 일번지, 전북불교회관은 경허, 만공, 한영, 용성 스님 등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배출했던 전북지역 불교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수행과 포교, 전법에 매진하고 있다. 원감 덕림 스님은 법회와 포교활동, 복지관장 업무 수행, 김제 벽성대 케어복지학과 출강 등 다양한 소임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덕림 스님이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법회의 활성화다. 덕림 스님은 "포교와 법회라는 커다란 두 바퀴로 부처님의 법륜을 굴려야 한다. 이것을 따로 떼어 놓거나 하나가 삐걱거리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포교와 법회는 하나"라고 말했다.

전북불교회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화엄불교대학이다. 강좌 개설 20년째를 맞고 있는 화엄불교대학의 강좌는 신도 기본교육에서부터 경전 강의 등 전문강좌까지 이어져 명실상부한 지역불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덕림 스님은 "화엄불교대학 동문 1500여명과 학림원 대학원 동문 500여명 등 2000명의 화엄불교대학 동문들이 전북 불교를 이끌어갈 동량이자 전북 불교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덕림 스님은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서원노인복지회관의 관장도 맡고 있다. 서원노인복지회관은 서원시니어 클럽, 희강원, 일거리 마련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하루 이용하는 노인들만 10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전주시내 무료급식소 8개중 일일 급식 인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전북 포교1번지서 '전법동량' 배출 매진

"포교와 법회는 불교 발전의 두 바퀴"

108사찰 순례단도 덕림 스님의 또 다른 자랑이다. 3년씩 2번을 회향하고 어느덧 3기 회향을 앞둔 108사찰 순례단은 이름난 기도도량부터 작은 규모의 암자까지 전국 도량을 찾아 108배 등 수행과 함께 불사에 동참해 왔다. 이제는 해외 기도도량 순례도 계획할 만큼 안정됐다.

전북불교회관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덕림 스님.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생들에게 다가갈 때 비로소 모두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스님은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함께 전북지역 불교가 활성화되는 날까지 교육과 포교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에 활용/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자녀교육에 활용/ 따주기 사회봉사/ 생활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경기 등)/ 이웃에 건강 복 짓기 등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강좌 구분
(1) 스님반
(2박 2일 : 금요일 오후 도착, 토요일 9시 시작 ~ 일요일 13시까지)
(2) 포교사 및 일반인반
(1박 2일 : 토요일 오후 2시 시작 ~ 일요일 13시까지)

나. 강좌 내용
(1) 공통(스님반, 포교사 및 일반인반)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2) 스님반 추가
• 수치의 비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강좌 일정 및 장소(선착순 12명)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1)스님반 : 2008. 4. 12(토) ~ 4. 13(일)
〈4월 11일 금요일 오후 도착〉(34만원)
(2)포교사 및 일반인반 : 2008. 4. 19(토) ~ 4. 20(일) (25만원)
※ 각 반 강의개시 2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옥황토방 숙박/ 자연식단 제공 / 따주기도구 · 비법교재 제공)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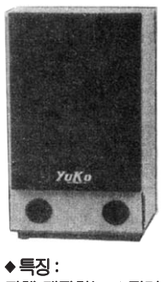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교·기독교 교수들 '종교 권력'을 말한다

제3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4월 18일 '현대사회와 종교권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여는 한국교수불교연합회 소속 남궁욱 교수(동국대), 이인자 명예 교수(경기대), 김용표 교수(동국대)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소속 원경림(이화여대 강사)씨와 김은규 교수(성공회대).(사진 왼쪽부터)

4월 9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술렁인다. 정치인들이 종교계 인사를 찾는 것은 이제 선거철 뿐 아니라 수시로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거꾸로 인사만 받던 종교집단이 정치세력의 구체화를 위해 총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개신교와 통일교가 각각 기독당과 가정당을 통해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사업으로 유명한 종교인은 여당의 비례대표 1순위에 올랐다. 교계도 14대 총선 당시 출가자로는 처음 장주 스님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적도 있었다.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며, 종교권력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국 종교의 양대 산맥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김성은)가 함께 종교권력을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기회를 연다.

'현대사회와 종교권력'을 주제로 열리는 제3회 불자 · 기독자 교수 공동학술대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성공회 서울대성당(서울시청 옆)에서 열린다. 학술대회는 역사적 조명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제1주제 '역사를 통해 본 종교권력'과 오늘날 각 종교의 폐해적 요인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점검하는 제2주제 '한국사회의 종교권력'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대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불교에서는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가 '불교에서 본 종교권력'을 주제로 초기불교부터 현재까지 불교와 국가간 관계를 조명하고, 김경집 교수(진각대)가 '현대불교와 종교권력'을 주제로 해방 이후부터 종단 내 갈등에 대해 발표한다. 기독교에서는 손규태 교수(성공회대)가 '기독교에서 본 종교권력'과 이진구 교수(호남신대)가 '현대기독교와 종교권력'을 발표한다.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초기불교는 권력을 부정하고 세속과 종교 사이에 거리를 뒀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종교사에서 보면 성스러움이 타락할 때 종교적 본질로 되돌아가려는 역동성이 발현됐다"면서 이를 '성(聖)과 속(俗)의 변증법'이라 표현하며 대승불교운동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종교권력의 정치화, 금권화, 대형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종교집단의 권력화에 따른 사회병폐 진단과 종교의 비종교화에 대한 극복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김성은 교수(성공회대)도 "개신교도 로마제국의 공인(313년)과 동시에 권력화됐다. 이후 개신교는 십자군 전쟁과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논리로 발전했다"면서 종교의 정치화는 국가 · 민족간 전쟁으로까지 치달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자 · 기독자 교수 공동학술대회'는 2005년 종교 지성인간 대화의 필요에서 시작됐다. 2006년 창시자에 대한 조명 차원에서 '인류의 스승으로서의 붓다와 예수'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열었고, 2007년 제2회 학술대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해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인 · 사회적 차원에서의 구원과 해탈을 논했다.

이번 제3회 학술대회는 제1회와 제2회에 걸친 이론적 대화를 실천적 대화로 전환하는 첫시도로 종교계에 자성과 초발심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혜장 스님과 다산 선생은 무슨 말 나눴나

강진문사고전연구소 '다산과 혜장' 발간



조선 후기 불교와 유교의 두 거장, 백련사 주지였던 애암 혜장 선사(1772~1811)와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시와 글이 책으로 발간됐다.

강진문사고전연구소(소장 양광식)이 발간한 <다산과 혜장>은 혜장 선사와 다산의 인연이 시작된 1805년 4월부터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사이에 두고 6년간 주고받았던 시와 글을 고스란히 담았다.

혜장과 다산의 만남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번암 채제공(1720~1799)이 혜장의 스승이자 화엄의 종주였던 유일 스님(1720~1799)에게 다산을 소개했고, 유일 스님이 다산을 혜장 스님과 소개해 이뤄졌다.

책은 혜장 선사의 "마음평안 얻는 일, 누가 해낼까, 극락한 세계는 이름만 들었다"와 다산의 "시기가 적절하고 알맞게 힘쓰라"는 등의 혜장과 다산의 마음공부 하는 법과 사상은 물론 유일 스님의 "염불하는 마음은 죽은 후에도 초연히 드러나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등의 시문도 담았다.

양광식 소장은 "생전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학문의 도리를 다했던 선각자들의 뜻을 조명하고 싶었다. 민중을 위하던 고귀한 이들이 정신이 오늘에 현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12)불교미술사학회

tongdomuseum.or.kr

신진 불교미술학자 위한 연구학회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는 2003년 10월 한국 불교미술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미술사학 및 연구방법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됐다. 불교미술사학회는 조각, 공예, 회화, 건축 등 불교미술 전 분야를 망라함은 물론 청년연구자들의 연구성과 소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학회 사무실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위치하며, 회원은 정회원 · 일반회원 · 특별회원 · 평생회원으로 나뉜다. 학술대회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열리며, 학술지 <불교미술사학>은 범하 스님 화갑기념 특별 논문집으로 2007년 11월 제5집까지 발간됐다.

학회장을 맡고 있는 범하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장, 성보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교계 문화재 전문가다. 불교미술사학회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범하 스님의 원력에 신진 연구자들의 왕성한 연구활동이 더해져 불교문화재에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교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2007년 성보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의 한국 불화 연구 20년 회향을 기념한 <한국의 불화> 전40권을 완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학회는 4월 11~12일 제11회 학술대회를 통도사에서 개최한다. (055)384-0020

조동섭 기자

'문학·사학·철학' 봄호 출간



인간학과 고전학의 대중화를 위한 인문학 계간지 <문학 · 사학 · 철학> 봄호가 출간됐다. 이번호에는 정성우(동국대 대학원)씨의 '고려말 <석사여래행적송>에 대하여', 이성운 대표(정우서적 · 동국대 박사과정)의 '심경 반야주와 천수주의 독송음 고' 등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에 걸친 13편의 글이 실렸다. 부록으로 인문분야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목록을 수록했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전북 문화재 보수공사 이래도 되나?

원형 크게 훼손, 일부 문화재 가치 상실

전북 도내 문화재 보수 공사가 규정에 맞지 않게 시행돼 일부 문화재의 원형이 크게 훼손됐거나 문화재 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200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문화재 공사 및 보존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71건을 지적하고 10건은 재시공조치, 6억7700만원은 회수 및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했다.

정읍 송산사는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4점의 벽화와 단청은 원형을 보존해야 함에도 문화재적 가치 등의 검토 없이 전체를 철거해 개축함으로서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했다.

김제 흥복사는 지난 2005년 화재로 훼손된 목조삼존불 좌상 수리보고서를 200부 작성 · 간행할 예정이었지만 설계서의 복사본 5부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부분의 보수공사에서 수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

한편 익산 미륵산성, 위봉산성 등 4건의 산성 보수공사는 적심석 쌓기로 시공해야 하나 적심석을 채우는 방식으로 시공했고, 남원 광한루원과 완월정, 정문의 단청공사는 수축성이 좋은 아교 대신 합성수지 접착제를 사용해 시공했다.

지붕공사도 보토나 강회다짐을 시공해야 방수, 단열이 보장되지만 보토를 누락한 경우가 9건이나 됐고, 벽체 회벽바르기를 시멘트 몰탈과 콘크리트로 대신해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했다.

전북도 백순기 기술감사담당은 "공무원들의 문화재관련 전문지식 부족과 개 · 보수업체들의 경제성 논리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며 차후 전문가를 초빙한 현장교육 및 문화재 보수업체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우승가회 입장 발표문

한국불교 태고종 보우 승가회는 2001년 6월 18일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실천하며, 불조의 혜명을 이어서 종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매년 선암사에서 여름 수련법회와 선암사 강원 학인 장학금 지원 사업, 동방불교 대학 장학금 지원 사업, 보우 승가대학 설립 운영 사업등을 하여 왔으며 한국불교 태고종이 불조의 혜명을 이어 청정한 종단이 되기를 본원 했고 또한, 현재도 총무원장의 독단적인 행각에 종무행정이나 종단 내의 속사정을 깊이 있게 모르시는 대다수의 종도들을 대신하여 강한 책임감과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불교 태고종을 지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종도들께서 애종하는 마음으로 간혹 보우 승가회를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보우 승가 회원들은 총무원장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 봐 왔기에 부종수교의 간절한 발원으로 누군가가 해야 할일을 또는 누군가가 해야 할말을 뼈를 깍는 마음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보우 승가회가 본의 아니게 종도 여러분께 참회 해야할 일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적해 주십시오

보우 승가회의 문호는 종단과 종도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듯이 지금 우리 종단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행의 실천으로 자성을 청정히 하고 불법 홍포에 온 힘을 기울여 앞으로 한국 불교계를 이끌어 나갈 도제 양성을 위한 교육 불사에 매진해야 할 한국 불교의 정통 종단에서 총무원장은 신문 방송등의 매체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가십거리가 되고(종단의) 행정은 투명하지 못하여 각종 비리와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 종도들은 물론이고 다른 종단의 승려나 불자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작금의 이 혼탁한 상황이 종단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데 총무원장은 과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 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정으로 불교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국민과 종도들로부터 땅에 떨어진 종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총무원장은 지금 제기된 각종 부정 비리 의혹을 무작정 덮으려고 궁색한 변명만 하지 말고 객관적 이면서 누구나 신뢰 할 수 있는 공정한 기관에 의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일련의 애종 행위에 터무니없이 해종, 훼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됩니다.

해종은 삼보 정재를 사사로운 욕심에 헛되이 낭비하거나 승려다운 자질을 갖추지 못해 불교나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고, 훼불은 종단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싼값에 이교도들에게 사찰을 매각하여 삼보를 욕되게 하는 것이지 종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부종수교의 간절한 서원에서 나오는 올바르고 진실한 목소리가 결코 해종 이나 훼불이 아닌 것입니다.

종도 여러분!

보우 승가회가 이렇게 간절히 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삼계화택에서 정신없이 뛰노는 아이들을 구하려는 장자의 마음이고 여여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보우 승가회는 불퇴전의 의지로 자성을 밝힘과 동시에 청정한 종단 구현을 이룩해서 어떤 종단에도 뒤처지지 않고 만인으로부터 존경받는 한국불교 태고종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

보우 승가회 회장 도산 합장

제10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10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①참회의 원리(原理)와 사상(事相)에 대하여 ②진언수행과 염불수행에 대하여	제한없음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 공모 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 교 일 반	3편			
밀 교 일 반	3편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소정 양식: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모일정 : 접수 마감 – 2008년 5월 16일(금요일)
당선작 발표 – 2008년 6월 19일(목요일)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2008년 11월 14일(금요일) 예정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500만원), 선정 7편(편당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suhyun@jingak.or.kr / yongdae49@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 한 불 교 진 각 종 교 육 원

일주문



문화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 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지식 고승대법회 봉행

부산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은 4월 6일 지환 스님을 초청해 초하루 선지식 고승대법회를 봉행한다. (051)624-7667



아미타부처님 이운법회

경주 자비마을 자운사 주지 혜연 스님은 4월 5일 오전 10시 아미타부처님 이운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전통찻집과 사찰음식점도 문을 연다. (054)746-7026



기초불교 영어강좌 개강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은 4월 12일부터 열리는 제9기 기초불교 영어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02)722-2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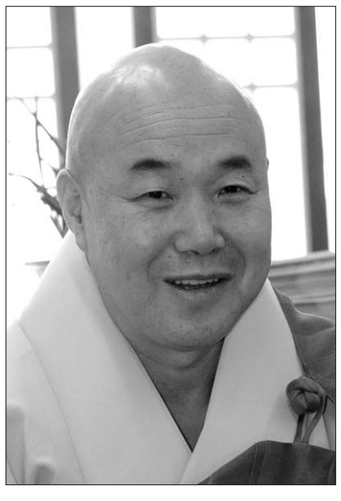
"문중화합·포교활성화에 앞장설 것"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조계종 제 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 주지후보로 선출된 노현 스님이 3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노현 스님은 지난 3월 10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로 합의추대 됐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노현 스님은 "문중 스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전달식에 이어 기자들과 만난 스님은 "문중화합을 위해 힘쓰고 포교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스님은 "법주사에 문중 스님이 800여 명이나 돼 그동안 주지선거나 종회의원선거에서 어느 사찰보다 치열하고 혼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문중 어른스님들의 뜻에 의해 단독 추대돼 기쁜 한편 주지소임에 대한 짐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1982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한 노현 스님은 봉화 각화사 주지에 이어 두 번째 주지소임을 맡게 됐다. 스님은 "대중을 이끄는 데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것은 역대 큰스님들이 수행하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마음을 비우



고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으면 대중화합은 절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주사 말사와 사설사암이 70여 곳 정도 되는데 인사문제는 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사찰이 아니라면 주지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말했다.

연간 150만 명에 달하던 법주사 관광객이 최근 50만 정도로 급감해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줄어든데 대해서는 "살림이 무척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역은 물론 전국을 상대로 포교활성화에 나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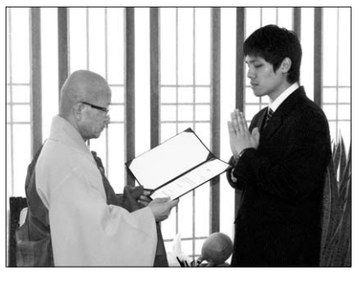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조계종 총무원 1층 로비에서 '총무원장 용퇴'를 주장하며 단식을 진행했던 노현 스님은 "종회의원으로서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총무원에 대한 답답한 마음으로 단식을 한 것이지 절대 이권에 의한 것이거나 주지출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지금도 그 결정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스님은 "(단식도) 순수하게 한 것이고 앞으로 법주사를 이끌어 가는 힘도 순수"라며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문중을 화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현 스님의 주지진산식은 4월 25일 치러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포교활동에 전념 할 것"

포교원 대불련 김정현 회장에 장학금 전달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3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전국대학생불자연합회(이하 대불련) 김정현 회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대불련 제46기 회장으로 지난 12월 취임한 바 있는 김 회장에게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하며 "불법에 의지해 신행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모든 대학생 불자들을 잘 이끌어 불법 홍포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학금을 받은 김 회장은 "오늘 장학금 수여는 포교활동에 전념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하게 받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2월 포교원 지원금으로 만든 대불련 알림 포스터와 홍보책자 등을 포교원장 스님에게 보고하며 "포교원의 도움으로 전국 대학교에 대불련을 알리는 사업을 현재 진행중"이라 말했다.

이에 혜총 스님은 "포교원 대불련 실무 담당팀인 어린이청소년팀과 잘 논의해 대학생불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동범 스님, 포교연구실장 도신 스님, 포교국장 덕조 스님, 신도국장 재안 스님, 사무국장 정수 스님과 포교원 직원들이 배석했다.

김강진 기자

"지역사회와 호흡할터"

서울 무량수전 개원한 종연 스님



"정법을 널리 펼치는 도심 포교원을 열고 싶었습니다. 서울 양평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포교원으로 가꿔가도록 힘쓰겠습니다."

3월 30일 서울 양평동에서 포교원 '무량수전' 개원법회를 봉행한 종연 스님(경인불교대학 수미정사 회주)은 이번 서울 도심 포교원 개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스님이 개원한 양평동 포교당 무량수전은 3층 건물에 약 660㎡ 건평으로 1층 대법당, 2층 관음전과 요사채 · 대중방, 3층 공양간으로 각각 나눠져 있다.

스님은 "건물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약 6억 정도 드는 큰 공사였는데 원력 있는 거사님들이 익명으로 재정을 충당해주셔서 여법한 포교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포교원 무량수전에서 특히 양평동 주민들과의 유대관계에 무게중심을 둘 생각이다. 스님은 "양평동 지역이 공장지대고 포교원 주변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인불교대학 수미정사에서 지금까지 지역사회 봉사를 해왔던 노하우를 살려 이 지역에서도 제대로 해볼 생각"이라 밝혔다.

또 2층 관음전에는 불교대학을 개설, 포교원을 신행 ·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불법(佛法)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백고좌, 고승법회, 타지역 사찰 영상법회 등의 굵직한 행사들도 스님은 기획하고 있다.

"산중선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포교원도 무척 중요합니다. 흔히 '포교원' 하면 사법을 행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교당 무량수전에서 정법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종단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3월 30일 진행된 개원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법어, 건공의식, 종사이운식 등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김강진 기자

능혜당 명환대종사 영결식 26일 엄수



능혜당 명환대종사가 3월 24일 오후 6시 주석처인 동해 삼화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50세, 세납 71세. 영결식은 26일 삼화사에서 조계종 제4교구장으로 엄수됐다.

명환대종사는 193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58년 부산 금정사로 출가했다. 1959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경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7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 해인총림 안거 이래 20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재무부장과 중앙종회의원 5선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제3회 찬불율동제 열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는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제3회 찬불율동제를 진행했다. 전국 11개 사찰 2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 경합을 벌인 이날 대회에서는 서울 옥천암이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묵 스님은 "어린이들의 기량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며 더 많은 사찰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불자 꿈나무 역도선수에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불자 체육인 연합회 전북지부(지부장 김도영)는 3월 21일 전북 불교회관에서 불자 체육인 학생 박세종(전주 용수중 3 • 역도)군에게 불자체육인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전달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열심히 정진해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여 국가와 불교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훌륭한 동량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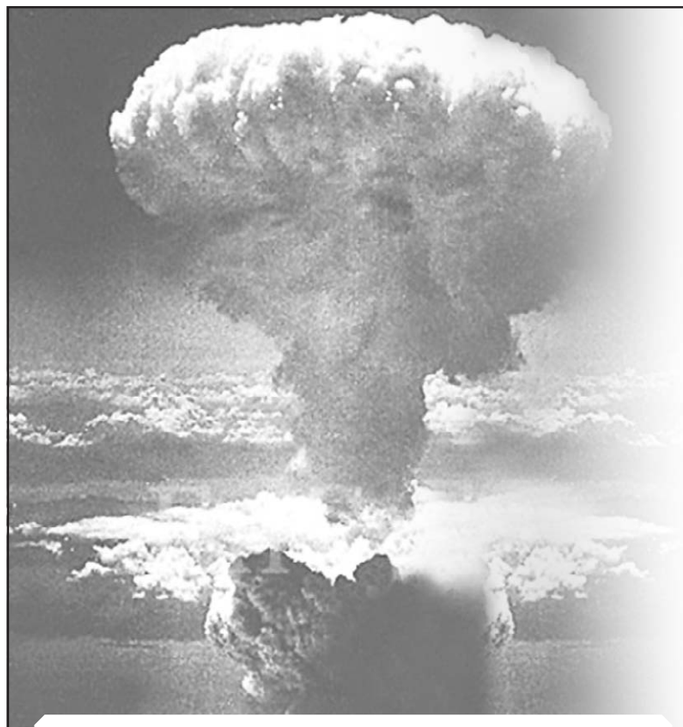
근본 해동종 창종 10주년 법회 봉행



한국불교근본해동종(총무원장 정일)은 3월 26일 충주 이화예식장에서 창종 1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혜우 스님을 비롯해 종정협의회 지산 스님, 종단총연합회 의륜 스님과 종단임원 및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정일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화합을 우선으로 중추종단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으며, 종정 혜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화목을 최상의 목표로 세워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에 보림 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에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스님이 3월 26일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보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보림 스님은 성중스님은 은사로 출가, 1994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1년 송광사에서 범용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소속 본사는 법주사이며, 안산 보문선원 주지로 지역포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쳐 왔다. 여수령 기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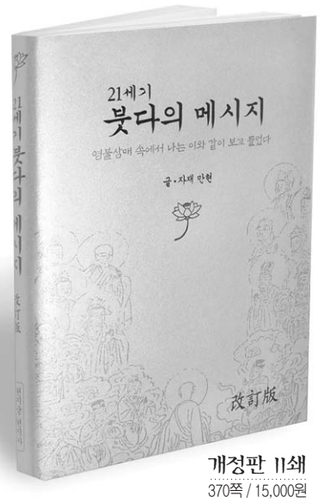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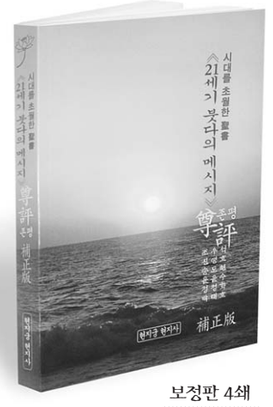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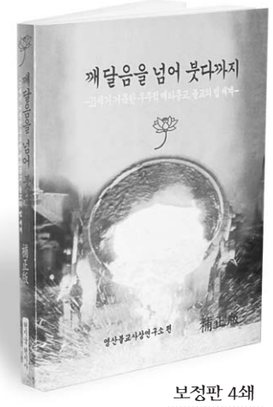
절찬리 판매중
13쇄 발간 2여년만에 들어감!!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춘천법회 – 매월 음 8일 / 부산법회 – 매월 음 23일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길 잃은 母子에 포근한 쉼터를…”

탐방 진각복지재단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달빛둥지’





미혼모자 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달빛둥지 이미향 원장(왼쪽 사진) . 달빛둥지는 미혼모와 그 자녀가 사회 속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간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달빛에 의지해 밤길을 걷는 이가 많지 않다. 하지만 캄캄한 시골길이나 가로등 없는 길을 걸을 때면 달빛이 절실해진다. 햇빛처럼 강렬하지 않지만 은은하게 앞길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달빛둥지’는 그 이름처럼 은은한 밝음과 온기를 가졌다. 달빛둥지에서는 아직 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출산 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달빛둥지에서는 ‘100일 잔치’가 열렸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 4명 중 2명이 100일을 맞았기 때문이다. 3월 25일 달빛둥지에 도착하니 엄마들이 한창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다. 4명의 아이가 함께 일렬로 누워있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난다. 아이들은 각각 3살~4개월 정도 연령이며, 대장, 미소왕자, 모자공주, 까만콩 등으로 불리고 있다.

달빛둥지가 설립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진각복지재단이 종단 주력 복지사업 중 하나로 채택해 서울 성북구의 주택가에 집을 마련, 미혼모들을 위한 자체시설을 준비한 것이 현재 2개 층 건물에 미혼모자 4가구 8명이 입주, 생활하고 있다. 달빛둥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진각복지재단 직원들과 이미향 원장의 고민이 컸다. 불교계에서 비슷한 시설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달빛둥지는 거의 유일한 불교계 미혼모시설이다.

“사실 이웃종교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수녀님들께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가톨릭의 지원체계, 후원이나 바자 등도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현재 달빛둥지가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출산시설에서 자녀를 낳은 미혼모들 중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없어 막막한 입장에 놓인 이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의식주에 걸친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달빛둥지’와 같은 미혼모시설이 굳이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미혼모의 개념을 ‘철없이 덜컥 아이부터 임신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혼모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생각이 ‘편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달빛둥지에 입소한 미혼모들은 충동적일 수 있는 10대가 아니라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여성이다.

최영실(29 · 가명)씨는 부산에서 아들 지호(생후 4개월·가명)를 낳아 서울에 올라왔다. 최씨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상대방 남자가 모르도록 숨기다가 부산한 시설에서 아이를 낳았다. 최씨는 상대방 남자로부터 스토킹을 비롯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 현재도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씨는 좌절하지 않는다. 타고난 성품도 밝지만 달빛둥지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들뜬 마음이다.

“제가 여러 시설의 도움을 받아 보니, 저도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원장님과 계속 상담 중이에요.”

최씨의 말에서 달빛둥지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까지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빛둥지가 무작정 퍼주기 식의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달빛둥지에서 느껴지는 아쉬움도 있다. 달빛둥지는 ‘중간’시설이다. 즉, 법적으로 미혼모들이 1년 이상(이유가 타당할 경우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음) 머물지 못하는 시설인 것이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내야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싶었다. 이미향 원장의 생각도 그렇다.

“현재 체제로는 미혼모들이 느낄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출산기관부터 중간관리기관, 자립기관까지 모두 연계돼야 미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빛둥지를 도와줄 수 있는 연계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아쉽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의료시설과의 연계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혼모들에게 검정고시 또는 자격증 수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수급도 시급하다. 이들에게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격 취득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우리 시설은 아직 출발선에 있습니다. 현재 불교계 내외의 여러 곳과 소통하려 노력 중입니다. 불교계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가족들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장애인 행복 만들기 함께해요”

보덕학회,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 1억원 기탁

재단법인 보덕학회(이사장 류홍우)가 3월 26일 경기도 이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을 방문, 자비복지타운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실 건립에 써 달라며 건립기부금 1억원을 기부했다.

재활프로그램실은 승가원자비복지타운내 850㎡의 건축면적에 지하1층, 지상1층의 규모로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실, 보호작업장, 카페 등으로 설계됐으며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총 건립비가 12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라 자비복지타운에서는 재원마련에 고민이 많았는데 보덕학회에서 때마침 큰 힘을 보탠 것이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류홍우 이사장은 “오늘 전달한 기부금이 종자가 되어 장애인재활프로그램실을 건립하는 데 큰 결실을 맺길 바라며 많은 불자님들께서 함께 장애인복지사업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원장 묘전 스님도 “오늘 받은 후원금으로 좋은 건물을 지어 재활프로그램실이 장애인들에게 있어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재단법인 보덕학회는 자비 · 보살사상을 바탕으로 한 불교학회로, 불법 홍포에 뜻을 두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 포교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 단체다. 김강진 기자



⑰ 노숙인복지시설 영등포 보현의집 승봉규 복지부장

복지현장에 다니다 보면 몸이 몇 개인지 의심스러운 봉사자들이 있다. 심귀남(사진 • 67)씨도 그런 봉사자 중 한 명이다. 지난번에는 분명 A장소에서 봤는데 다른 복지현장에 가면 또 그를 목격하게 된다. 그는 말이 많지도 않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미도 아니다. 말을 걸면 항상 반가움이 묻어나는 부드러운 얼굴로 웃을 뿐이다. 그야말로 복지현장에서 좋아하는 봉사자의 유형이 바로 심씨다.

“봉사할 곳 있어 행복해요”



심씨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 입이 딱 벌어진다. 그 동안 왜 그렇게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한다. 화요일에는 중계노인복지관에서 뜸 봉사를, 수요일에는 종로노인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관에서 격주로 급식봉사를, 목요일에는 동부시립병원 환자 옷 정리 봉사를 한다. 이어 금요일은 경희의료원 현관 안내 봉사, 주말은 영등포 보현의집에서 급식봉사를 진행한다. 월요일에는 쉬는가 싶었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는 서계 보현의집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쉬는 날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가 봉사다.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곤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몸이 성할 때 부지런히 다녀야지요.”

심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 조계사에 다니면서 부터다. 무교이던 그에게 친구가 어느 날 함께 다니자고 해서 맺은 사찰과의 인연이 바로 봉사로 이어졌다. 조계사에서 청소, 공양 준비 등을 돕는 봉사를 곧바로 시작했으니 말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생기고 부터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봉사자 기본교육부터 발마사지, 경락, 한방요법 등 각종 기술교육은 모두 이수했다.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봉사활동
‘금강경’ 독송으로 삶의 고비 극복

“절에 다니면서 불자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도 물질 보다는 몸으로 하는 보시가 중하다는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어난 봉사가 이렇게 삶을 온통 채우고 있다. 그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척 쑥스러워하며 “같이 봉사다니는 사람들이 잘해주고 나보다 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대꾸한다.

요즘 봉사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중계노인복지관에서 침뜸 봉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가끔 몸이 좋아졌다고 고마워 하니, 그게 또 너무 보람 있고 좋은데 영등포 · 서계 보현의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다. 보현의집에서 반찬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되는 것도, 그들이 ‘고맙다’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뭉클하게 되는 것도 봉사를 하기에 가능한 것임을 심씨도 잘 알고 있다.

“가끔 젊은 시절에 ‘복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전문적으로 교육받아 복지시설도 제대로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싶어요. 하지만 저는 현재에 만족합니다. 부지런히 갈 곳이 있으니 행복해요.”

이렇게 바빠도 그는 거의 매일 조계사에서 기도를 한다. 절에 못 나오게 되더라도 하루 1번 <금강경> 독송은 빼놓지 않는다. 그것이 봉사자로서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 심씨는 굳게 믿고 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누구든 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교육도 받고 하면 봉사가 그야말로 즐거워집니다. 봉사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강진 기자



티베트 사태, 균형적 시각 필요

해외불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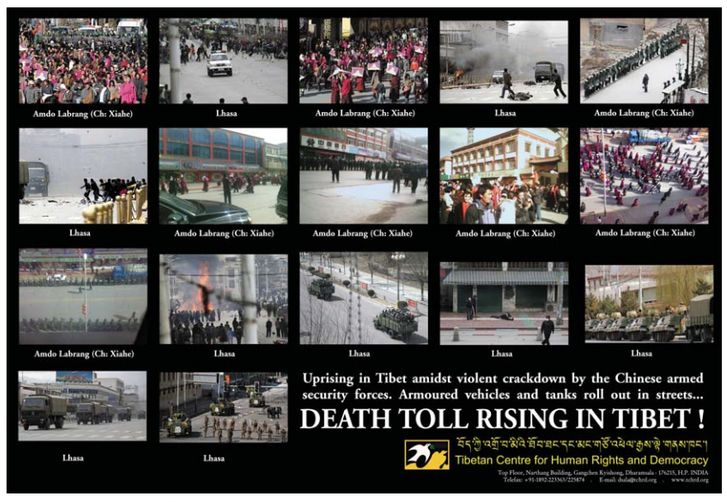
최근의 티베트 사태가 우리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뭘까? 중국의 역대 왕조에 시달리고 일제에 억눌리다가 이젠 미국의 헛기침에도 화들짝 놀라는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이자 동병상련 때문은 아닐까?

신라의 승려 김무상이 티베트 사신들과 당의 수도 장안에서 잠시 회동한 먼 옛날 얘기, 몽골제국에 복속된 고려에 티베트의 제스파 라마 등이 불경을 전해준 사실, 그리고 충선왕이 몽골에 의해 티베트고원까지 끌려간 기막힌 유배 사건 등 말고는 사실 우리와 티베트의 사이는 얼핏 별스러울 게 없다.

티베트의 현 사태에 대한 진실과 허구가 뒤엉긴 와중에 특히 서구 각국은 '중국 몰매주기'에 한창이다. 중국의 오만방자한 대국행세와 야만적인 폭력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그럼 서구인들이 현재 주장하는 중국의 티베트인권 및 주권 침해와 그들 자신의 과거행적을 잠시 견줘보자. 영국 외무성은 올림픽참가선수들에게 중국의 티베트 인권유린을 성토하도록 부추겨 양국 간의 긴장을 위험수위로 몰아가고 촬스황태자는 오는 5월 달라이 라마의 영국방문 시 공식접견을 수락하는 등 중국을 또 살살 건드린다.

하지만 영국이 티베트의 인권과 주권에 대해 말하는 건 과거망각형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영국과 제정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쟁탈전을 벌이던 1903년 7월, 영국군 1000여 명과 용병 등 8000여 명으로 구성된 '티베트 원정대'는 이름도 희한한 영허즈번드 대령의 지휘 하에 이듬해 수도 라사를 강점한다. 당대 최신무기인 막심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그들은 티베트의 2000여 오합지졸 중 500여 명을 무차별 학살했다.

그리고 그는 이튿날 인도 주재 상관에게 '그들을 심하게 벌을 줬다'고 전문을 보냈다. 실제 사상자 13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학살에서 막심기관총 부대를 이끈 아서 해도우 중위의 술회다. "상부로부터 죽일 수 있는 만



티베트 시위대와 중국 공안의 강경 진압 모습들.

치 실컷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놀라 달아나는 그들을 사살하는 게 너무 역겨워 결국 사격을 중지시켰다." 그럼 이번엔 독일 얘기로 넘어가자. 독일은 중국이 티베트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상호 경제협력회담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신적 컬트집단이던 나치는 '독일 왕' 히틀러가 '티베트 왕'인 당시 달라이 라마에게 친서를 보낼 만치 특별한 관계였다.

'위대한 아리안종족'의 흔적을 찾겠다고 북유럽, 중동, 아마존 강 유역 등을 온통 들쑤시고 다니던 그들은 1938년 마침내 에른스트 새퍼가 이끄는 '티베트 탐험대'를 파견한다. 그러나 그들은 학문적 탐색보다는 부패한 라마들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독재, 그리고 삼엄한 정보체계와 무장기병조직에 몹시 매료된다. 그들이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는 이내 나치친위대(SS)의 조직에 접목, 대학살과 집단공포감 조성에 활용된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교황 베네딕트16세는 중국정부가 관용과 대화와 '길'을 터야 한다고 말했다. 1624년 티베트에 최초로 들어간 유럽인이자 가톨릭 선교사인 안토니오 데 안드라데는 현지에 교회설립까지 허락을 받는다.

그렇게 일단 '길'이 트이자 그 후 120년동안 선교사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 현지 승려들과 마찰과 민중혼란을 야기한 끝에 1745년 완전히 축출된다. 여기서 우리는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일부 선교사들의 주 임무가 복음전파보다는 첩보행위와 사회내분 및 문화교란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국의 경우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이른바 '해방'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토지개혁과 종교문제 등으로 현지인들과 충돌, 1959년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한다. 그즈음 미국 CIA는 티베트인들을 비밀리에 콜로라도 산악지대로 대려가 특전훈련 등 장기무장투쟁을 지원한다.

하지만 1969년에 상황이 돌변한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방문에 앞서 모택동 주석이 제시한 미국의 게릴라지원 즉각 중단 요구를 수락한 것이다. 그래서 졸지에 고산지대에 고립된 티베트 게릴라는 사그리 궤멸된다.

현 티베트사태 관련한 3월 21일자 뉴스속보를 받아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들이다. 악마와 천사를 가르는 극단적 '양분사고', 또 내편이 아니면 적이란 식의 뒤틀린 '독선'은 불교의 몫이 아니다. 모든 사물을 외눈이 아니라 두 눈으로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우리 불자들이 담담하게 걸어가는 중도(中道)이기도 하다. 성휴 스님

참조 :The Lost Country, Nazi Occult, CIA's Great Betray, BBC Radio 4 기타

불교명상음악으로 자비공덕 실천

네팔의 티베트 난민가정에서 태어난 올해 37세 초잉 돌마 스님은 '미토 무스칸' 등 청아한 불교명상음악으로 세계적인 전법과 자비공덕을 함께 행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및 8개의 앨범 발표와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50회 이상 공연해온 돌마 스님은 5월 독일순회공연에 앞서 3월 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는 나입니다. 따로 분리될 수 없는 나는 비구니며 또한 가수입니다." 12세에 출가한 돌마 스님은 공연수익금으로 네팔, 인도, 티베트의 극빈 아동을 위한 아리라타라학교를 설립했으며 이제는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신장이식병원을 세우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을 맺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이 곧 나의 힘입니다."

출처 ; www.choying.com,Reuter, BCTV

"자기확신 바탕으로 추진력 발휘"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필 잭슨 ❹

크든 작든 한 집단을 이끄는 리더는 자기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예리한 분석에서 비롯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려는가?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러한 해석과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자기 확신'을 지닐 수 없다.

자기 확신이 없는 리더는 팍팍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은 커녕 비실비실 뒷걸음질만 치게 마련이다. 그렇듯 더디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를 기꺼이 따를 팀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빤하다. 하는 일마다 실패요, 게임마다 마구 줘터지는 것이다.

그럼 대선사 필 잭슨의 농구에 대한 간단명료한 정의부터 들어보자. "농구란 무엇인가? 여러 선수가 섬세하게 엮여 하나(Oneness)가 되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전광석화처럼 이동하는 스포츠다." 그는 이차대전 당시 '사막의 여우'란 별명으로 북부 사하라사막을 누비던 아프리카 판짜 전차군단의 로멜 대원수를 연상시키는 명장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공간에서 순식간에 상대를 깔아버리는 전격작전(Blitzkrieg)이 그 두 리더의 공통적인 승전비결이다. 농구 게임 정도에서 전략이니 전술이니 웬 거창한 소리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카고 불즈 정도의 구단이면 선수와 임원부터 각종 캐릭터 사업과 각종 아웃소싱 업체에 이르기까지 직접 먹여 살리는 입만도 몇 십만은 족히 되며 간접적 경제파급효과는 몇 천만 명을 아우른다.

예를 들어, 2006년 NBA TV는 전 경기를 세계 40개국에 동시 중계했다. '홍콩 케이블'은 극동아시아, 필리핀의 '농구 TV'는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궤도위성'은 중동전역, 프랑스의 '커넬 위성'은 서부유럽, 터키와 러시아의 의 'NTV'는 동부유럽과 러시아 등의 농구애호가들을 찾아갔던바, 그 중계료는 물론 광고 및 기타 스폰서 금액만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구단의 실수익과 납세실적도 엄청난 규모이며 연간회계도 어중간한 나라의 국방예산보다 많다.

1970년대 중반을 휩쓴 스웨덴의 4인조 보컬그룹 아바(ABBA)의 총수입이 스웨덴의 자존심인 볼보자동차의 수출액을 추월한 적도 있는 터라 필 잭슨 군단 역시 당당한 세계적인 대재벌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과대망상적인 백인우월주의자거나 불교를 이교도문화라며 배척하는 얼간이였다면 아마 지금쯤은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나 던져주고 있을 것이다. 불퇴전의 도전의식이 번뜩이는 그의 전술이론을 직접 들어보자.

"농구는 축구와 다르다. 시합 전에 공격과 방어의 루트를 설정하는 축구와 달리, 농구는 재즈 연주처럼 현장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해나가는 경기다. 한 선수가 한 박자를 놓치면 다른 선수가 즉시 그 공백을 채우고 비트를 넣어주며 팀 전체의 리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말도 참 폼 나게 잘한다. "시스템 농구는 더 이상

자기팀 독려·상대팀 무력화
'양날의 칼' 같은 전술 구사

통용되지 않는다. 이제는 선수 하나하나가 시스템인 농구로 바뀌었다." 지금 그는 전투에 반드시 필요한 비트와 리듬을 말하는바, 이는 곧 뒤뚱대지 않고 매끄러운 폼을 뜻한다. 유도, 검술 등 무도이든 복싱과 같은 격투기든 리듬을 잃고 폼을 놓치면 끝장이다. 경기에 이기는 건 고사하고 헛손질과 헛발질로 허우적대다 스스로 삐끗하여 나동그라지기 십상이다. 그의 이러한 전술이론은 마치 양쪽에 날이 선 칼과 같다. 즉, 자기 팀 전체가 일사불란한 '하나'의 폼을 유지하도록 공격패턴을 유도하는 한편, 상대 팀은 폼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휘저어버리는 역공(逆攻)을 함께 암시한다. 상대 리듬의 흐름을 자르고 비트를 부셔버리자는 작전이다. 이는 자기 팀을 독려하는 한편, 상대 팀을 무력화시키는 다중전술이다. 이러한 그의 전술은 농구코트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각종 매스컴의 신속한 전달성과 루머를 최대한 활용, 끊임없이 상대팀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심리전의 귀재다. 성휴 스님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Your hand is not to blame, but your mind

자기의 마음을 탓해야지 왜 손 갖고 야단이야



A friar of renowned integrity was invited by a devout Buddhist family for dinner at their home. But so hungry, he couldn't wait while they were preparing the meal elsewhere. To his complete shock, he found himself swallowing cookies taken from a jar when no one was looking. Then He suddenly burst into loud cries of "Thief! Thief! I've caught you red-handed." Rushing into the kitchen, he grabbed a knife to cut off his right hand that had stolen the cookies. A little maid sneered at him, "Your hand is not to blame, but your mind. You hypocrite, worse than a thief!"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덕망 높은 한 탁발승을 저녁공양에 모셨다. 모두들 어디서 식사준비를 하는데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아무도 못 보는 틈에 병속에 든 과자를 슬쩍하던 그는 스스로 까무러치게 놀라 느닷없이 소리를 내질렀다. "도둑이야, 내가 금방 여기서 그 놈을 잡았네!" 그리곤 부엌으로 뛰어가 과자를 훔친 오른손을 잘라내려고 칼을 집어 들었다. 그걸 본 어린 하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자기의 마음을 탓해야지 왜 손 갖고 야단이야. 흥! 도둑놈보다 더 못된 위선자!"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 어떤식당은 누가봐도 목도 않좋고 장소도 협소하고 허술한데 손님들이 문밖에 까지 기다리는 광경을 볼수 있다. 풍수학적으로나 역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는 금강단고저, 금강삼고저, 금강오고저가 있으며 각각 비방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해도 도망치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 문안쪽위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식당과 의류점 각종매장과 회사및 사업장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와 기계제작실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소원 성취의 선물

세상사는동안 근심과 고통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러나 부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많다. 세상중생중에는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갖가지 고통을 당하며 사는 미련한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금강의 지혜를 얻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큰 공덕을 쌓기를 바라고 계신다.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오만과 의심으로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을 중요시한다. 또한 물연법도 중요하다. 환자에게 약도 맞는약이 있듯이 물건하나도 연이 되는 물건이 있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신묘장구 大다라니 지갑에는 대비신력의 부처님법구인 신통한 종자가 들어 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 대복을 받으며 물질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소멸하게 만든 영험의 지갑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한지 5년간 숫한 영험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 신묘장구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하는 비방의 법구가 지갑내부 상단에 들어 있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내부에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게하는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또는 선물 받는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간 축원불공을 올려드린다. 전화로 신청하면 지갑은 택배로 받아 사용하고 축원불공은 신청다음날 새벽부터 올려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까치발 실내화 쏙빼니 화제

크고처진 엉덩이 나온뱃살 굵어진 다리!



엉덩이는 작아지고 처진 엉덩이는 올려주고 나온뱃살은 들어가는 MBC TV 진짜진짜 실험쇼에서 방영한 까치발 걷기 실내 운동이 큰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점에, 기능성 신발 전문 업체인 (주)신도산업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집안 또는 사무실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까치발 실내화 "쏙빼니"가 신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까치발 걸음은 발뒤꿈치는 땅에 닿지 않는 것으로 서있는 자체만으로도 배와 다리 엉덩이에 엄청난 힘을 가하고 허리를 반듯하게 하는 운동으로 옛날부터 딸의 엉덩이가 커지고 허리가 굵어지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하여 까치발걸음을 걸으라는 말을 했듯이 까치발걸음은 몸매를 날씬하게 만들어준다. 쏙빼니는 실내에서 보기만 하면 신으므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쏙빼니 실내화는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한 여성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욕심을 부려 하루 1시간이상 신으면 몸살이 날 수 있으므로 하루 30분 정도 신고 실내에서 일하며 차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가격 5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문의 : 02-741-4477

농협 : 053-02-228720 이진경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덕주사 주지 원경 스님.

덕주사-병불련 의료봉사 현장을 찾아서

병고치고 잔치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아유, 고마워서 어쩐데…."

"아닙니다, 어르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르신과 봉사자가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연신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는다. 서로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이들을 행복하게 만든 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봄가뭄 속에 봄비가 촉촉이 오던 3월 23일, 충북 제천시 덕산면 덕산복지회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임시 진료소가 차려졌다. 임시라고는 하지만 진료소는 양방 · 한방 · 여성 의료서비스와 혈압 · 혈액 · 당 검사를 비롯한 검진절차는 물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 및 안경 배포까지 가능하도록 알차게 꾸려졌다. 최고라 손꼽히는 의료인들의 봉사모임인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련) 소속 회원 30여명이 '춘계 연합 의료봉사' 타이틀을 달고 제천 덕주사(주지 원경)가 주최한 '행복 속으로 가는 의료봉사'에 참여해 힘을 보탰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조계사불교대학 기본교육이수자 모임 약사보리회와 기업체 고려아카데미, 덕주사신도회까지 합세했다.

이날 봉사는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지역 어르신들은 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시간가량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는 절실히 기다리던 '단비'와 같았던 것이다.

"어르신 어디가 편찮으세요?"

"요즘 팔다리가 쑤셔 잠을 못자겠어요. 나이 먹으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려."

"혹시 혀가 마르거나 하는 건 없으세요? 어디, 맥한 번 짚어봅시다, 어르신."

며느리와 단 둘이 살고 있다는 김순예(88)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단다. 너무 멀어 병원 가기가 힘들다는 김 할머니는 "이런 의료봉사가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선생님들께 자주 좀 오시라고 말씀드려달라"고 넌지시 부탁하기도 했다.

인근 마을에서 문구점을 하고 있는 정이(92) 할머니는 의료봉사 소식을 듣고는 가게 문도 닫은 채 지팡이를 짚고 진료소를 찾았다. 또한 김종걸(70) 할아버지는 "백내장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퇴원하고는 병원에 가보질 못했다"며 진료소 덕분에 한시름 놨다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한편 진료소 한쪽에서는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 압구정 '유병곤 헤어살롱' 유병곤 원장이 아들 성재(11)와 함께 봉사현장을 찾아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 원장은 "영업 하루 포기하고 왔다"며 씩 웃고는 할머니들의 머리카락을 세심하게 손질했다. 아들 성재도 아빠의 활동을 지켜보며 뿌듯해 했다.

시골에서 행사가 열리면 다 그렇듯 의료봉사도 꼭 마을잔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덕주사신도회에서 떡 · 과일 · 차 등 간소한 먹을거리와 제천지역 나물향기를 담뿍 머금은 질박한 비빔밥을 준비, 이곳을 찾은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웠다. 또한 국악인들도 함께 이 자리를 찾아 우리 가락의 흥겨움이 담긴 '아리랑' 등을 어르신들에게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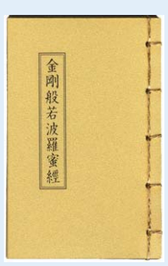
요즘은 시골 마을이라도 살기 불편하지 않다고들 한다. 도시서 살던 사람들이 '웰빙'을 이유로 시골살이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시골'은 아무리 도로가 닦이고 건물이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순박한 미소가 바뀌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어르신들의 갈라진 손끝조차 어루만져줄 의료시설이 없다는 사실은 영 마음이 쓰인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구병수 원장이 "어르신들을 진맥해 보니 의외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놀랐다"고 걱정하며 "토요일까지 세미나 등으로 바빠 의료봉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르신들의 상태를 보니 이곳에 오길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덕주사 주지 원경 스님은 "10개월간 주지 소임을 맡아 살펴보니 도농간 의료격차도 있지만 시골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행사를 열면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생각하신다"며 이것이 바로 시골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포교라고 강조했다.

'행복 속으로 가는 의료봉사'는 앞으로도 제천시 11개 면을 순회하며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병불련도 이 의료봉사에 힘을 합칠 뜻을 전달했다. 병불련 류재환 회장이 "불자로써 불교 정신에 입각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병불련 회원 모두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스님과 의논해 정기적으로 이 곳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한 것이다.

아마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얼굴이 병불련 회원들에게는 뿌듯함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이날 의료봉사 현장을 통해 사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천/글=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장 의 식 상 량 식 불 사 장 사 용 영 가 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밥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해외복지시설 건립 위한 '화엄세계' 展

佛藏囊囊

◁서암 스님의 작품.

4월 17일~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서

前 조계종 종정 서옹, 서암, 월하, 혜암 스님을 비롯해 석주, 관응, 숭산, 우룡, 원담, 석정, 중광, 수안 스님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지는 원로 대덕스님들의 선서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김옥진, 박행보, 김영철, 강장원 등 국전 심사위원들을 역임한 중진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조계종 종책모임 화엄회가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여는 '화엄세계' 전에서다.

총 130여 작가의 250여 작품이 선보이는 이번 작품 수익금은 전액 해외복지시설 건립 또는 지원에 쓰이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자승 스님, 육지장사 주지 지원 스님, 제원 스님(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등 스님과 재가자 30여명이 해외복지활동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기증한 것이다.

2004년 출범한 화엄회는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 건립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정하며 지원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우선 국제교류 취약지역과 현지 불교계의 협력 여부 등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등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베트남, 몽골, 미얀마 등 3개국을 대상을 압축했고, 2006년에는 베트남을 우선 국제교류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화엄회는 앞으로 베트남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불교국가도 교류 대상에 포함시켜 해외교류 복지사업을 폭넓게 전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수안 스님의 달마도.

봉축기념, 니르바나 연주회

4월 11일 오후 7시30분 KBS홀서 연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봉축기념 제 10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오! 아름다워라 우리들의 나눔 이야기'가 4월 11일 KBS 홀서 열린다.

이번 연주는 중앙신도회에서 발의한 불교의료봉사 지원단 '반갑다 연우야'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이웃의 아픔을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동 치과 무료진료 차량 마련이 주목적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스위스 출신 지휘자 알렉산더 슈니퍼를 비롯해 강형진 단장(바이올린) 우지연 국민대 교수(첼로), 김성희(피아노), 웅산(째즈 보컬 가수)씨 등이 출연한다. 사회는 이익선씨가 맡는다. (010)4399-5235

김주일 기자



실크로드의 어제와 오늘 한눈에 보기

청주 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중앙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은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실크로드 위를 지난 것은 상인과 교역품만이 아니라 실크로드가 통과하게 되는 여러 나라의 문화와 관습까지 실어 나르는 문명의 길이기도 했다. 실크로드 위를 오가는 상인들은 사라졌지만 실크로드로 인해 번성했던 도시들에는 지금도 옛 향기가 짙게 남아 있다. 이제 유목민, 이슬람, 러시아 등 동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백화점이 된 바로 그곳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이 마련됐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올해 두 번째 기획전시인 '초원과 오아시스-사진으로 보는 중앙아시아'를 중앙아시아학회와 공동으로 4월 1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동안 중국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학술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약 180여점을 선보인다. 이들 사진은 중앙아시아의 자연과 풍토, 여러 민족과 그들의 생활상, 다양한 유적과 유물, 바자르를 비롯한 생산과 유통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자연과 주민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돈황의 모래산 명사산 계곡에서 솟아나는 초승달 모양의 샘 월아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눈길을 끈다. 월아천은 중국 전한 때부터 이름이 알려졌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 유명하다.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이 천축으로 가면서 모험을 벌이는 서유기의 무대 화염산은 초목이 전혀 없어 산 주름이 모두 세로로 나 있으며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인다.

김주일 기자

경기북부 사암음악예술제

4월 25일 양주 지장사서 개최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는 4월 25일 오후 7시30분부터 양주시 지장사 반야보탑 특설무대에서 '제 4회 경기북부 사암음악예술제'를 봉행한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될 이번 연주회에서는 △양평군-무상을 느끼고, 무상 △남양주시-바람부는 산사, 어머님 △파주시-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향심 △고양시-명에, 귀의하옵고 △동두천시-청산은 나를 보고,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의정부시-연꽃 피어오르리, 세존께 바치는 노래 △룸비니어린이 합창단-일천강에 바치는 달, 생일 축하노래 등이 연주된다. 또한 2부 사물놀이와 마당놀이에서는 김성녀씨와 김종협씨도 특별 출연한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㉝ 표고버섯무조림



그리스 신의 식품 · 중국 불로장수 식품이라 불러
정신 맑게하고 구토 · 설사 멎게하는 작용 있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神)의 식품이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불로장수(不老長壽) 식품이라 했을 만큼 그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성질이 평(平)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더불어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을 먹으면 기(氣)를 도와 허기를 느끼지 않게 하고 피를 잘 통하게 함으로써 풍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영양학적 측면을 따져보면 단백질과 지방질, 당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과 B2 도 일반 야채의 두 배나 되며 나이아신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 칼륨, 인, 셀레늄 등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혈액에서 산소운반을 하는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철분도 표고버섯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표고버섯의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비타민 B2는 조혈작용에 필수적입니다. 혈액의 대사를 돕는 엘리타데닌 등의 성분도 풍부합니다.

표고버섯은 일반적으로도 자주 먹으면 몸을 보하고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고버섯이 감기의 증상 완화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표고버섯과 설탕을 섞어 달여 마시면 기침, 가래를 멎게 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 표고버섯 달인 물을 마시면 어느 약보다 좋습니다. 신경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있어 신경과민이나 불면증인 사람이 표고버섯을 먹으면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살짝 구운 생 표고버섯을 따뜻하게 데운 청주에 띄워 마시는 민간요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반찬으로 좋은 표고버섯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고버섯무조림

재료: 마른표고버섯, 무, 고춧가루, 설탕, 후추, 간장

만드는 법

① 표고버섯은 깨끗이 씻어 미지근한 물에 담가둔 다음 잘 불어나면 꼭지를 따고 크기에 따라 1/2 혹은 1/4 크기로 썬다. 버섯을 불린 물은 버리지 않는다.
② 무는 큼직큼직하게 토막 낸다.
③ 조림 솥에 무를 깔고 그 위에 버섯을 얹는다. 버섯 불린 물에 고춧가루, 후추, 설탕, 간장으로 양념한 다음 조림냄비에 붓는다.
④ 센불에서 한소큼 끓인 다음 불을 줄여 천천히 졸인다. 냄비 밑에 고인 양념장을 국자로 떠서 버섯과 무 위에 골고루 끼얹으며 조린다.
⑤ 양념장이 자작자작 하게 졸여지면 그릇에 담아낸다.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전수생 모집"

□ 대상 : 초보 · 학력 · 나이 제한없음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6시(3시간)
□ 기간 : 8개월(개강일 : 4월 6일 일요일)

※ 좋은이름 지어드립니다.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괘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재물 운,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적중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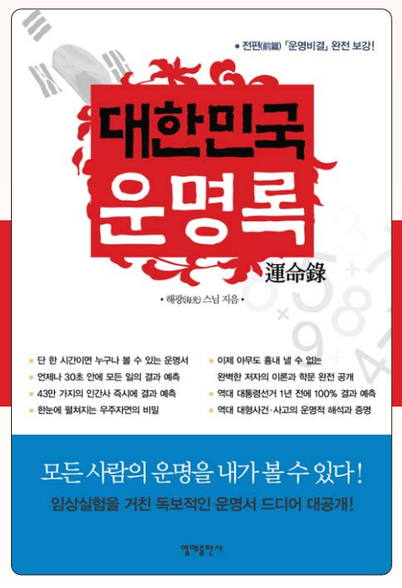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하여
· 개명,작명,법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작명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요.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 서적구입 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전국대형서점,불교서적

전수생 모집
· 스님이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분
· 해광스님 직강
· 문의 : 010-3730-5247

일 반 상 담
· 해광스님의 운명 상담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문의 : 032)665-8472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인터넷 다음에 〈금강선원 해광스님〉

함께가요~ 강의실로!

시의 상상력 감각의 바다와 만나다

시의상상력, 상상력의 시

젊은 시인 시 읽기+다양한 방식의 시 쓰기

강사 : 이원(시인)
주최 : 문지문화원 사이(saii.or.kr)
일시 : 2008년 3월 18일
장소 : 문지문화원 사이 강의실

햇볕이 유난히 따스하다고 느낀 날 문득 목련나무가지에 눈이 갔다. 겨우내 단단한 털옷을 걸치고 있던 목련은 살며시 연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햇살이 간지러운 게지….' 겨울눈이 미소 짓는다는 상상을 하며 나도 따라 입 꼬리를 올려 본다. 봄기운에 나도 모르게 시인 흉내를 낸 것은 음악의 신 건달바의 연주에 마하가섭이 춤 춘 것과 같은, 봄과 나의 반가운 인연이 서로를 맞이하기 때문이리라.

시 안에는 상상의 세계가 있고, 상상의 세계는 시를 통해 구현된다. 문지문화원 사이의 봄 아카데미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로 비상해 보려는 이들로 분주했다.

그 가운데 이원 시인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봄날 우연히 마주친 목련의 미소와 같은 이유 아닐까.



상상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시는 커다란 장르로 따지면 문학의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문학은 예술의 한 방식이지요. 우리가 문학적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일까요. '색즉시공'이라는 영화는 문학적인가요, 비문학적인가요?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지 않습니다. 제목은 전체 내용에 대한 하나의 장식일 뿐 문학과는 거리가 먼 듯 하지만 영화 마지막에서 젊은 남녀가 나누는 진실한 연애에 관한 물음은 이 작품을 문학으로 평가하게 합니다. 색즉시공이란 젊은 여성과 남성의 젊은 연애를 대변한다는 것이 감독의 제작 의도인 것입니다. 반면 이창동 감독의 '밀양'은 대다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문학적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 여자의 이런 삶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의 여운을 남기기 때문이지요. 상당히 고리타분하고 지루하지요. 이것이 문학입니다. 인간의 삶, 실존의 물음이 바로 문학의 존재이유입니다. 인간 인류역사에 문학이 존재하는 것은 텍스트 유형의 변화일 뿐 인류가 지속되는 한 문학도 존속합니다.

[ ]의 세계

이곳에서 발이 녹는다
무릎이 없어지고,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일어나고 싶지 않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는 더 작은 목소리가 되어
우리는 함께 희미해진다
고마워요, 그 둥근 입술과 함께
작별인사를 위해 무늬를 만들었던 몇 가지의 손짓과
안녕, 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투명해지는 한쪽 귀와
수평선처럼 누워 있는 세계에서
검은 돌고래가 솟구쳐오를 때
무릎이 반짝일 때
우리는 양팔을 벌리고 한없이 다가간다

위의 시를 읽고 시의 제목([ ]의 세계)으로 처음 연상되는 단어를 네모 안에 써 봅시다. 둘만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상태가 지속되고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상황입니다. 수평선과 같은 세계에서 검은 돌고래가 솟아오를 때 현실로 다시 환기됩니다. 이상의 무의식에 호소하는 감각 이미지의 시를 쓴 사람은 시인 김행숙입니다. 시의 제목은 '다정함의 세계'입니다. 다시 한 번 시를 느껴 보십시오. 다정함의 세계로 향하는 느낌이 느껴지는지요. 언어적 형태에 느낌이 있는 감각의 시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참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분야별 개발서가 서점에서 꾸준히 팔려나가는 것이 이런 상황을 증명합니다. 드라마 '김삼순'에서 나온 대사입니다만, "죽는 것을 알면서도 살잖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시대 이 지상에 왜 존재하고, 자아란 무엇일까'라는 실존의 물음은 시적인 표현과 비유로 드러납니다. 실존이 드러나지 않으면 문학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약간의 환상성을 지니고 스스로 다치지 않을 만큼 포장하기 때문에 자아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를 쓸 때는 꼭 물어보십시오.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확인해야합니다. TV드라마는 상업성과 대중성이라는 보편타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이기 힘듭니다. 이 점이 시와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최종적으로 질문하는 나와 가까워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시를 쓰는 방법입니다.

시를 쓸 때는 시적 사고가 먼저 선행되고 시적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큰스님이나 마더테레사 수녀와 같은 분은 항시 웃는 낯으로 찡그리는 경우를 보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오욕칠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생각의 바뀜 때문이며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감정의 지속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전부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순간 그 세계는 탄생됩니다. 시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직접적인 삶의 표현이라거나 아름다운 것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과감하게 바꿔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상의 세계를 맛볼 수 없습니다. 삶의 긍정이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잘 진전되지 않는 것은 고정관념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 새로운 세상은 열립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온전합니다.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상상력 또한 우리 안에 이미 다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감각을 열고 상상력을 펼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십시오. 개인마다 주파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어느 순간 내안의 뭔가 꿈틀거림을 느꼈다면 그것이 내 주파수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에 고통의 표현이 있는데 읽었을 때 왠지 슬픔을 느꼈다면 내 안에 고통의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시적인 사고의 강조는 표현으로 그 성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점차 시인으로서의 삶도 변화합니다.

좋은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현실과 연결되는 건강함이어야 합니다. 가정과 현실, 우연과 필연은 오른발과 왼발입니다. 시적 세계는 바로 오른발의 우연과 왼발의 필연사이에서 탄생합니다. 상상력은 그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시를 쓸 때는 가장 먼저 관념어를 버려야 합니다. 관념어는 죽은 시 쓰기로 향하는 함정입니다. 다시 '슬픔'을 예로 들어봅니다. 슬픔의 자루는 나이와 경험에 비례한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라는 것은 그 슬픔에 대한 구체적 감정입니다. 어떻게 슬프고, 왜 슬픈지 구체적 장면으로 쓰여 져야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지독하게 슬픈 적이 있었는데, 목에 심한 고통이 왔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입니다만 인간의 몸에 다섯 챠크라가 있는데 슬픔과 고통의 챠크라가 목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더욱 저를 놀랍게 한 것은 슬픔의 챠크라와 함께 마치 샴쌍둥이처럼 상생하는 것이 기쁨과 환희의 챠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활달한 사유방식으로 이 시대를 노래해 보십시오. 언어화할 수 있는 내 안의 감각의 새싹을 맘껏 틔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www.iamhappy.tv

교양포털사이트 아이앰해피에서 문지문화원 사이의 강의를 만날 수 있다.
인터넷 교양포탈사이트 www.iamhappy.tv에서 우리 사회의 인문학 발전과 교양의 축적 그리고 공동체로의 확산을 모색한다.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인과 지성인을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로 만날 수 있는 사이트이다. 교양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제안한다.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비밀의 열쇠"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이미지를 품기만 해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불러온다. 욕망은 원하는 것들을 연결해주고, 기도는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책에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끌어당김 법칙"을 공개하오니 기도 성취를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재의 신간

"기도의 비밀"?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 국민은행 562101-01-033348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아이고 관세음보살"과 "오 마이 갓"의 차이는?

스스로 관세음이 되는 것



불자들이 울화가 치밀거나 속터지는 일을 당하면 언제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는 말이 있다. "아이고 나무관세음보살…" 이다. 서양 사람들이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오 마이 갓"을 외치듯 말이다. 대체 이 말 속엔 무슨 의미와 힘이 담겨 있길래 소리 내어 부르면 마음이 홀가분해 지는 것일까?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이란 책을 최근 펴낸 이미령씨(동국대 역경위원)는 답한다. "관세음(觀世音), '세상의 소리를 관찰 한다'로 풀이되는 것처럼 이 이름은 글자 그대로 '세상의 소리를 살펴보는 보살'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것은 단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명체의 상태를 두루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자꾸 부르다보면 소망을 오롯하게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지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막연하게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기대어 세상 살아가기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관세음이 되기를 권한다. 그러기 위해선 넓고 큰마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등을 세워서 제 삶의 주인 자리를 되찾을 것을 밝히고 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읽고 기도하는 중에 자력인지 타력인지는 기도주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주안을 둔 쉽게 읽는 경전읽기에서 벗어나, 관음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보문품>의 핵심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보문품>은 우리중생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읽어가는 부처님 말씀이며 위기가 닥쳤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읽어 두어야 하는 경이라고 소개한다.

"장롱 깊숙한 곳에 들어 있다가 위험이 닥친 순간 놀랄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는 보험증서처럼 인생살이에서 위안 삼을 수 있고, 괴로움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보문품>입니다."

또한 저자는 다변화되는 인생살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관세음보살을 동반자로 삼고 그를 향해 예경을 올리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불에도 타지 않고,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으며, 물에도 젖지 않고, 도둑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사나운 벼락이 내리쳐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딱딱한 경전 해설서가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접목시킨 것은 이 책이 독자들의 눈을 잠시 동안이나마 고정시킬 수 있는 강점이다.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미령 지음|불교시대사|1만원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석탑 역사의 모든것



한국의 석탑
박경식 지음
학연문화사 펴냄|4만5000원

<한국의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왜 유독 석탑이 맹위를 떨쳤으며, 어떤 계보를 거쳐 발전했는지, 그 시대적 양식 변화와 역사의 전개는 어떤 연관성을 띠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삼국시대에 석탑을 가장 먼저 건립한 나라는 백제로, 서기 600년쯤 익산 미륵사지에 구층석탑을 건립했다. 특히 석재로 탑을 만들었지만, 목탑을 완벽하게 재현함으로써 석탑이 지닌 양식상의 문제를 해결했다. 신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분황사 모전석탑을 건립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안산암을 벽돌과 같이 다듬어 탑신을 구성, 중국 전탑과 재료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라는 이후 의성 탑리 오층석탑을 건립하면서 화강암으로 석탑을 건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구려의 석탑은 실물이 없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그 자취를 엿볼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석탑은 일대 전기를 맞이한다. 삼국의 독자적인 목 · 석탑 문화를 모두 수용한 통일신라는 독자적인 석탑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은 평면 방형의 2층 기단에 삼층 내지 오층의 탑신을 구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일 직후에 건립된 감은사지 삼층석탑과 고선사지 삼층석탑을 거쳐 8세기 중반에 건립된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에 이르러 양식적 완성을 이뤘다. 불국사 삼층석탑은 이후 고려 및 조선시대의 석탑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석탑의 기본 양식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시대의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건립됐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방적인 특성이 가미된 형식의 석탑이 만들어진 것. 특히 호족 연합체로 출범한 고려의 시대상황에서 석탑 역시 고구려 · 백제 · 신라계 및 고려식 석탑과 특수 양식의 석탑으로 나눠졌다. '고려식 석탑'의 경우 전국적으로 건립됐는데 단층 기단, 옥개석의 변화, 별석 받침의 삽입, 부재의 단일화 등이 가장 큰 특징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석탑은 쇠락하게 된다. 이는 숭유배불 정책보다 동종(銅鍾)을 비롯한 다른 조형물의 조성에 치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확립된 양식을 유지, 계승하면서 고려시대의 석탑 양식을 모방해 건립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김주일 기자

설법 잘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설법의 기술
정순일 지음|민족사 펴냄|9,500원

<설법의 기술>은 포교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설법 지침서조차 없어 매번 어떻게 설법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이들과 함께 이런 불교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가 내놓은 책이다. 즉 기존의 개인적 경험에 그치고 말던 설법의 단계를 한 계단 끌어올려 설법의 모든 것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방대한 설법의 자료와 원고 등을 컴퓨터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설법의 실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설법의 구성방법에서부터 자료수집, 그리고 연술에 따른 제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설법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설법이란 첫째는 '불교의 사상을 시간과 공간이 다른 오늘을 사는 청중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정의할 때, 사상적 조명작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는 기법에 관한 영역이다. 셋째는 설법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그 설법에 의해 청중의 사고와 생활이 바뀌어 다시 새로운 설법설정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현장에 바탕을 둔 측면이다.

김주일 기자

괴짜스님의 일기에는 무엇이…



중얼중얼
신천희 지음|새론북스 펴냄|1만3000원

이 책은 아동문학가이자 괴짜 스님으로 불리는 소야 스님이 불도 수행의 일상 속에서 쓴 일기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소야 스님은 말한다. "마루에 걸레질을 하다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 가시란게 나무가 아닌가. 궁리 끝에 불태워 버리기로 했다. 아무렴 손가락 보다 가시가 먼저 타겠지? 가시가 타고 나서 얼른 손가락을 빼면 되지 뭐. 성냥이 어디 있지? 가시 태우러 가야지."

이 책을 통해 소야 스님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잃어버린 사람다움을 독자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준다. 도심의 때가 묻지 않은 산사의 처마밑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열네 살 소년 같은 소야 스님은 푸근하면서도 동화적 발상의 엉뚱한 시각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재미있게 펼쳐놓았다. 소야 스님의 글 속에는 세상에 치여 사는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갈증을 풀어주는 카타르시스가 묻어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2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7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서장	전재강 역주	운주사
10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영원한현실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법회 안내
- 4월 6일 서울 법문은 선원의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5월 4일(日)로 연기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깔창을 보급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 · **실**리콘 · **동** 99% **삼위**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특허 10-0806337호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합장

지압 · 동 깔창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본사 ·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문의 · 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 박해훈)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本佛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기능 3568호 임병배 합장
011-799-4041



성불조각미술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번지 공방

"종지종풍 드러내는 '문서포교' 주력"

조계종출판사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포교용 소책자 만들면서 정체성 찾아
교리·신행·수행입문서 꾸준한 인기 몰이

요즘 서점에서 <간화선>(조계종 불학연구소 · 전국선원수좌회 펴냄)이라는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간화선'은 매순간 끊임없이 화두(話頭)를 참구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불교의 대표적 수행방법이다. 우리나라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수행법이기도 하다. 사실, '간화선'은 철저히 체험적이기에 말로써 풀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물 간행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말로써 선(禪)을 한계 지으려 해서야 안 되겠지만 간화선이 무엇인지 중생은 언어를 벗어나서 알 도리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간화선'을 '말'로써 알릴 수 있는 곳은 결국 조계종 산하 기구여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것도 책이라면, 역시 조계종출판사가 펴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다. 조계종출판사는 바로 이런 종단의 종지종풍을 불자들에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단행본과 스님 및 포교사들을 위한 설법포교자료집 <법회와 설법> 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계종출판사는 1995년 3월 종단 내 사업부가 개설되면서 '종단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창설됐다. 즉, 초기 출판사 설립목적은 종단 산하 사찰의 인쇄 · 출판물 외주제작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계산이었다. 사업부는 1997년 폐지됐고 출판사는 재무부로 이관됐다. 그러다 2000년에는 다시 '문서포교'라는 종단 목적사업 수행 기구로 재편, 포교원으로 이관됐다. 조계종출판사가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것은 포교원 이관 후로 <마음청정 국토청정>, 군병영생활만화 <불교야 놀자>, <지혜롭고 행복한 나> 등의 포교용 소책자를 제작 · 배포하면서였다.

현재 조계종출판사에서 하는 일은 크게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익사업이란 달력제작과 소위 '팔리는 책'을 간행해 수익을 내고 예치금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 즉 목적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월간으로 간행되는 <법회와 설법>의 경우 월간지 형태로 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책자 형태로도 나올 예정이다. <법회와 설법> 간행은 스님과 포교사들에게 중요한 포교자료기 때문에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조계종출판사의 목적사업인 셈이다.

조계종출판사 입장에서는 수익과 목적 모두 들어맞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조계종출판사의 스테디셀러인 <불교입문>이 아마 이에 해당되는 예일 것. 초심자라면 무조건 읽어야 하는 필독서 중 하나인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에서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기본기에 충실한 수행시리즈 <간화선입문> <절수행입문> <염불수행입문>에 이어 '주력'과 '간경' 수행입문서도 곧 출판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파격적인 책들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준비 중인 <(가칭)불교와 영화>도 그런 책 중 하나다.

최승천 편집부장은 "아직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달력제작만 하는 줄 알고 있어 놀라울 때가 있다"며 "경쟁력 있는 출판물을 만들어내고 사업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확실히 조계종출판사가 펴낸 책들이 요 몇 년 달라졌다. 이는 특히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조계종출판사의 또 다른 브랜드로 설명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인연'은 비교적 말랑한 내용의 책을 펴내는 브랜드 네임이다. '아름다운 인연' 브랜드를 달고 나온 책으로는 <행복한 빈손>(일면 스님),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김정호) 등이 있다.

요즘 최승천 부장은 "출판 기획을 하다 보니 인터넷 매체 등을 매일 체크하며 필자 발굴을 하게 된다"며 "이렇게 노력해도 출판물 하나를 펴내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고생할 각오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작업을 통해 출간된 '자식' 같은 책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할 때, 출판사 식구들의 고통은 배가되기 마련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종단출판사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최승천 부장과 이상근 편집팀장은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박영택)를 이 경우로 꼽는다. 기획도 좋았고 책도 잘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는데 대중의 사랑은 못 받은 것이다.

조계종출판사는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기획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하나는 어린이날 이전에 <만화 백유경>을 펴내는 것이다. 이 팀장이 "진짜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삽화와 내용으로 동화책처럼 만들어 낼 것"이라 강조하는 이 책은 그야말로 조계종출판사에서 앞으로 펴낼 책 중 가장 기대되는 도서다.

또 다른 하나는 <간화선> 등을 비롯한 불서의 영역(英譯)이다. 불서의 대중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서의 외연을 확대하고 종지종풍을 세계적으로 펼쳐내는 것도 조계종출판사의 중요임무기 때문이다.

'종단' 출판사라는 것을 한계삼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조계종출판사. 결코 내부기관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들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조계종출판사가 어떤 '파격'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조계종출판사 불서 BEST 20

순위	책 이 름	저 자	출판년도
1	조계종 신도교재(입문, 교리, 역사, 문화, 포교)		2000
2	무비스님의 경전시리즈	무비 스님	2005
3	간화선(개정판)	불학연구소 · 전국선원수좌회	2008
4	간화선 입문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2006
5	절수행 입문	조계종 불학연구소	2006
6	염불수행 입문	조계종 불학연구소	2007
7	상묵스님 금강경 강의	상묵 스님	2007
8	학담스님의 아함경 강의	학담 스님	2008
9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	김정호	2005
10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같은 앉다	지현 스님	2007
11	행복한 빈손	일면 스님	2007
12	사찰에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2008
13	통일법요집	조계종 포교원	2006
14	한글통일법요집	조계종 포교원	2006
15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양태석	2007
16	얘들아 절에 가자	홍주현	2007
17	어린이 법요집	조계종 포교원	2008
18	청소년 법요집(개정판)	조계종 포교원	2008
19	야호 법회가는 날이다	조계종 포교원	2008
20	법회와 설법(월간)	조계종출판사	매월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이다
달라이라마 | 넥서스 | 2003

김석구 KT 고객전송 팀장

"고통의 원인 알아야 기쁨 얻을수 있어"



외신을 통해 들려오는 라싸의 소식에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막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부처를 향한 구도의 열기를 인내로 이어가며 평화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끝없이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 티베트인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고통과 기쁨을 경계 짓지 않고 평화로운 삶과 평화로운 죽음이 둘이 아니라며 삶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상히 안내하는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이라는 책과의 만남을 추억한다. 이 책은 2003년 말, '구조조정'이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자 남은 사람으로서의 고통으로 냉혹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던 시기에 만났다.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고통'과 '행복'의 의미가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책이다.

중생의 행복을 위하는 자비심 키워라
인내심 기르는 것이 '보리심' 키우는 법

이 책에서는 먼저 행복을 얻으려면 그 원인을 알아내 키우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고통을 불러오는 원인은 '무지(無知)'다. 무지는 자아에 대한 오해이며, 우리가 겪는 고통은 착각과 오해 때문에 생겨난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 중생의 행복을 위하는 자비심을 키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리심'을 강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방법으로 수행하려 한다면 그 수행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다.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처음 20년은 젊으니까 수행을 않고 다음 20년에나 수행할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너무 늙어 수행할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인생을 낭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몸은 빨리 병들고 늙어 야위어만 가는데 번뇌는 활기차게 남아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 생'이라는 미지의 세상으로 가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일상적인 경험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에 도와줄 안내자는 오직 자신이 했던 실제 수행뿐이라고 강조하며, "환자가 의학 서적만 읽고 그치듯이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실제 수행을 직접 시작하라"고 가르친다.

'보리심'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내심을 기르는 수행이다. 이 책의 저자 달라이라마는 두고 온 땅과 동포들을 향해 "참을 수 없는 억압이 삼보를 모독하고 사원을 파괴해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적에게 적의를 느끼고 불행해 하지 말고 인내수행을 가르치는 소중한 스승이라 여기라"는 말에는 숙연함이 가득하다.

나라를 잃은 고통과 억압이 나날이 높아가도 티베트인들에 가슴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 책을 읽노라면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힘이 난다.

라싸가 불타 없어져도 황량하게 찢겨나간 티베트의 산야사이를 울며울며, 붓다를 향한 열망으로 치열한 구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프다. 아무리 아파도 똑같이 아플 수 없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든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 전생 · 빙의 치유법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 · 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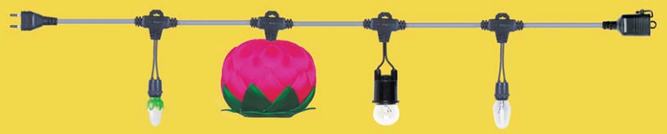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세계불교 해동화엄종 부설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58-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9>
(修習止觀坐禪法要)

제4장 조화(調和) ①

夫行者初學坐禪 欲修十方三世佛法者 應當先發大誓願 度脫一切衆生 願求無上佛道 其心堅固 猶如金剛 精進勇猛 不惜身命 若成就一切佛法 終不退轉 然後坐中正念思惟一切諸法眞實之相 所謂善·不善·無記法 內外根塵妄識 一切有漏煩惱法 三界有爲生死因果法 皆因心有 故十地經云 三界無別有 唯是一心作 若知心無性 則諸法不實 心無染著 則一切生死業行止息 作是觀已 及應如次起行修習也

금강처럼 견고한 마음으로 제법실상 관찰해야 불도 성취

'다섯 욕구를 꾸짖는 장(訶五欲)'에서는 외부 오진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였고, '다섯 번뇌를 버리는 장(棄五蓋)'에서는 내적으로 마음이 청정한 것에 대해 말하였다. 이와 같이 내적으로의 마음과 밖으로의 오진이 청정해야 만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관을 수습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알맞게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수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때문에 네 번째로 다섯 가지 일을 조화하는 '조화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섯 가지 조건이란 몸 호흡 마음 수면 음식 등을 가리킨다.

시방삼세 제불법이란 보리 열반 구경청정 중도제일의제로서 위없는 오묘한 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한 불법은 구계중생(九界衆生)의 법으로 비할 바가 아니다. 중생법은 오염된 번뇌법으로써 청정하지 않고 미혹하며 어두운 법이다. 오직 불법만이 구경이며 깨달음이며 불생멸이며 청정한 법이다.

따라서 수행자가 시방삼세 일체제불의 법을 배우고 닦으려 한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사홍서원의 발심을 일으켜야만 한다.

사홍서원의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라고 한 이 두 구절은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대목으로서 이타대비심에 소속되고,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라고 한 이 두 구절은 위로 불도를 구하는 대목인데, 이는 자리로서 큰 지혜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홍서원이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통해서 자리이타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위없는 불도를 구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원하오리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일체'라고 하는 두 글자는 불계(佛界)를 제외한 구계중생 모두를 포괄한다.

육도 유루법은 여섯 갈래의 범부중생이고, 출세간의 성문과 연각승은 이승중생이며, 보살은 대도심(大道心)중생이다. 따라서 이 같은 구계중생을 모두 해탈시키기를 발원한다는 뜻인 것이다.

'불도'란 깨달음의 도이다. 다시 말해서 제불여래가 깨달은 도는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다. 때문에 최후까지 증득하기를 발원한다는 뜻에서 '위없는 불도'라고 했다.

수행자는 이와 같은 마음만을 발심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금강처럼 견고해야만 한다. 금강은 지극히 견고하고 날카로워서 모든 사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금강처럼 견고해서 파괴되지 않는 마음을 발심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고 용맹정진하면서 끝내 물러나지 않고 오직 위없는 불도를 구해서 일체중생을 광대하게 제도해야만 한다.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불법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호흡 등 다섯 가지 조건 조화돼야 지관 삼매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

불퇴전(不退轉)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위불퇴(位不退)인데, 수행인의 공부가 진보할 경우 삼계내 견혹과 사혹이 끝까지 다 끊어지면 육도범부의 분단생사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이를 두고 '위불퇴'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행불퇴(行不退)인데, 수행인이 공부가 심오하게 진보하면 삼계 내의 견혹 사혹만 끊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삼계 밖의 한량없는 미세한 번뇌인 진사혹(塵沙惑)까지도 조복받고 끊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지에 이르면 보살의 수행지위에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행불퇴'라고 말한다.

세 번째는 염불퇴(念不退)인데, 수행인이 공부가 더더욱 심오하게 진보하여 진사혹마저 다 끊고 근본무명번뇌까지를 타파할 수 있다면 중도정념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염불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수행을 성취하려면 단정히 앉아 지관을 수습하면서 일체제법의 진실한 성품을 무념인 정념으로 사유해야만 한다. 진실한 모습이란 실상을 말하며, 실성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상(相)'자는 본성[性]의 의미이다.

이러한 실상은 무상이면서 상 아닌 것도 없고 실성은 무성이면서 성 아닌 것도 없다. 이를 두고 진실상, 또는 진실성이라고 말한다.

제법이란 일체 선법과 불선법을 모두 포괄해서 하는 말이다. 선법은 유루선법과 무루선법이 있고 중도선이 있다. 불선법은 악법인데 탐 진 치를 말한다.

또 무기법(無記法)이 있는데, 이는 기억해서 구별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선도 악도 아니고 혼침도 산란도 아니며 명료한 무기법이지만, 마음이 애매모호하고 어두워 종일토록 어둠 속에서 나날을 보낸다면 이는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덮어버리는 껌껌한 무기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제법의 진실한 성품을 알 수 있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루 번뇌법은 생사인과법으로서 모두가 마음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므로 중생들이 분별하는 마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중생분별심이 근원이 돼서 제법의 자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망심이 없다면 만법의 차별도 없다. 이 때문에 마음은 만법의 근본이 된다. <능엄경>에서는 "모든 법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일체 인과와 세계미진은 마음이 자체를 이룬다. 그 때문에 "삼계는 별다른 것이 없고 오직 마음으로 조작됐을 뿐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마음을 떠난 밖에 따로의 법이란 없으며 법 밖에 마음도 없다. 마음이 바로 법이며 법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과 법은 본래 두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

가령 목전에 육진경계가 없다면 마음도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마음은 본래 일어난 일이 없는데 경계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을 땐 마음도 역시 없다. 이는 이른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갖가지 법이 따라서 일어난다"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추구하면 마음과 경계가 내적으로 육근에서 일어나지 않고, 밖으로 육경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으며, 육근과 육경이 화합해서 공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허공처럼 아무런 원인 없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체는 본래 고요하다. 내 마음이 자성이 없다면 제법도 역시 실제하지 않고 제법이 본래 실체가 없다면 자기의 마음도 역시 실재가 없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성품을 진실성, 또는 진실상이라고도 부른다.

이미 이와 같은 제법실상을 올바로 사유했기 때문에 마음에 번뇌의 집착이 없다면 육진경계를 탐애하는 마음도 없게 된다. 이것으로부터서 일체의 생사업을 모두 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무시이래로 항상 생사의 세계에 유전하는 것은 번뇌와 업이 활동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인 것이다.

수행인이 일체경계에서 이를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하게 번뇌 집착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번뇌생사의 인과관계이다. 그 때문에 생사가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행인은 자기의 마음은 끝내 얻지 못하고 일체 제법은 허망하여 실재가 아니라는 것을 심오하게 관찰하고 일체 생사업의 활동을 쉬어야만 한다. 일체 목전의 모습은 모두가 내 마음은 허망한 분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은 진실한 모습이 아닌 것을 실상이라고 말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4) 행온(行蘊)

'행온(行蘊)'은 분별한 감정을 의지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온과 상온이 정(情)과 지(知)의 활동이었다면 행온은 의(意)적인 방면, 즉 의지적인 충동행위에 해당됩니다. 행은 조작, 다시 말해 사심소(思心所)의 다른 명칭인데, 이는 업(業)과 승(乘)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몸과 입으로 행동하기에 앞서 정신적인 의지작용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의업으로 인하여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 행위로 나타나던 나타나지 않던 간에 마음을 먹은 자체로 업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업을 짓게 하는 것이 의업에 해당됩니다.

<유식삼십론(唯識三十論)>에서는 "사심소는 심왕으로 하여금 인식대경에 있어서 생각을 조작하는 것을 자체의 성질로 삼고, 선악품(善惡品) 등에 있어서 모든 심왕을 지배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을 의지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행온중 사심소는 의업의 다른명칭

이를 다시 말하면 사심소의 자성은 단지 인식활동의 조작일 뿐이기 때문에 조작하는 세력의 작용으로써 나머지 모든 심왕과도 동시적으로 상응하여, 심왕들이 '선악품' 등으로의 조작세력을 동시에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항상 일으키는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의업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사심소에는 모든 심왕과 심소들이 그들끼리 동일한 행위로 조작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온과 상온은 각각 그 인식대상 자체에만 국한되는 하나의 별개 심소법(心所法)으로 설명되어졌으나, 행온은 단순한 그 자체의 사심소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심소법과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까지 행온의 범주에 소속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의 심소유법(心所有法)은 총체적으로 오위(五位)로 분류됩니다. 즉 최초의 일념기념심(最初一念起念心)인 변행심소(?行心所) 다섯, 두 번째로 업을 일으키는 기업심(起業心)인 별경심소(別徑心所) 다섯, 업을 짓는 조업심(造業心)인 선심소(善心所) 열 하나, 근본번뇌와 수번뇌심소(隨煩惱心所) 스물여섯과 선악을 예측할 수 없는 부정심소(不定心所) 네 가지를 합하면 총 오십일 심소유법(五十一心所有法)이 됩니다. 여기에 색법과 무위법 등에 상응하지 않고 일어나는 불상응행온(不相應行蘊) 스물 넷까지가 모두 행온에 포섭됩니다.

■정리=張如舟

필름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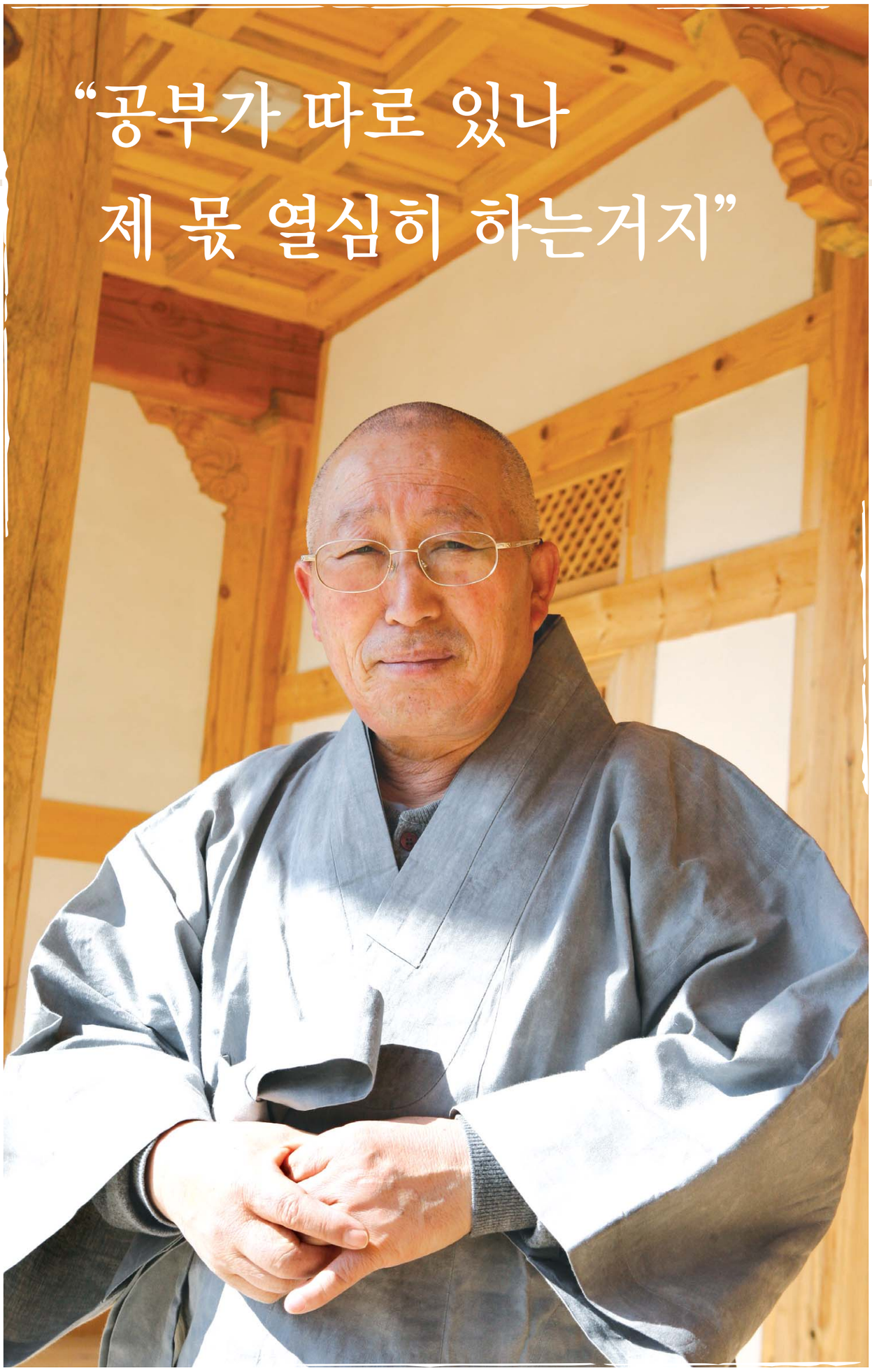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선지식을 찾아서 무상

“공부가 따로 있나 제 몫 열심히 하는거지”



무상 스님은

1963년 서종수 스님을 계사로 월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5년 범어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5년부터 범어사, 동화사를 비롯하여 제방선원을 돌면서 10하안거 성만. 현재는 속리산 법주사에 주석하고 있다.

무상 스님(가사 도편수)

열은 노란빛을 띤 마루에는 그물처럼 촘촘히 짜여진 봄 햇살이 내려와 노닐고 있다. 오만 가지 생명을 거루고 키워내는 속리산의 기운까지도 품고 있는 햇살을 밟고 무상 스님의 방으로 들어섰다. 다탁을 덮고 있는 괴색(壞色)의 천으로 조각조각 이어 붙여 만든 조각보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괴색 조각보의 바느질이 하도 야무져 보여 한 쪽에 음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스님의 가사는 제쳐 두고 “다구도 가사를 입고 있네요” 하고 말문을 열었다.

무상 스님은 열네 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속리산 법주사로 수학여행을 왔다. 험한 산길이라 버스는 버스대로 고개를 넘고 학생들은 걸어서 굽이굽이 고갯길을 넘었다. 그렇게 해서 법주사 마당에 들어섰는데,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열네 살의 소년 눈에는 가사를 걸친 스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 그 자리에서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럭저럭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스님을 찾아가 출가하고 싶다고 했더니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져와야 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와야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무상 스님은 전화번호부에 나온 주소를 보고 큰 절의 스님들께 출가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어디에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일단 스님이 되려면 한문이 많이 소용되겠다 싶어 서당에서 2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였다. 그러다 원적사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누님 집에 가게 되었다.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글 읽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다. 그 집 문을 두드려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어냐고 물었더니 <금강경>이라 하였다. 그 책을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도 원적사의 서암 스님으로부터 빌려 온 책이라 안된다고 하였다. 무상 스님은 원적사의 서암 스님을 찾아가 “<금강경>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서암 스님은 며칠 후에 오면 한 권 구해주겠다고 약조를 하였다. 그때 원적사 서암 스님은 후일에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분이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화두 드는 마음으로 평생 가사짓기 수행

서암 스님은 <금강경 오가해>를 건네주면서 서문의 한 구절을 읽어 보라 하였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둥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로는 옻칠과도 같다… 한 물건이 무슨 물건인고?’ 무상 스님은 한문 풀이는 했어도 뜻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한 물건은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속가에서 원적사가 가까웠기에 무상 스님은 <금강경 오가해>를 들고 서암 스님 문하에 드나들었다. 그러다 정월 초삼일에 서당 선생에게 세배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와 그 길로 몇날 며칠을 걸어서 대구 동화사로 갔다.

방장스님이 왜 절에 왔느냐고 묻길래 “도 통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도는 뭐 아무나 통하나?” 그러더란다. 그래서 무상 스님이 “뭐 3년이면 도통하지 않겠습니까?”하고 당돌하게 말하였더니 “3년 갈 것 뭐 있어? 지금 당장 통해 버려라” 하였다.

출가만 하면 금방 도를 통할 것 같았는데, 출가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견성도 못하고 이렇게 밥만 축내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무상 스님의 말씀에는 가식도 없고 꾸밈도 없다. “오갈 데가 없어 가사 만드는 법장 스님 절에 놀러 갔다가 배우게 되었지.” 가사 도편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해 본적이 없었단다. 요즈음은 수서에 있는 비구니회관에서 조계종단의 가사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상 스님은 동안거 하안거를 뺀 나머지 날에는 가사 만드는 일에 고스란히 시간을 바쳤다. “나는 우리 법장 스님만큼의 기술이 안된다”고 말씀하지만, 한때는 무상 스님이 만든 가사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가사라고 하면 무상 스님이 만든 것을 최고로 쳐 주었다.

“가사불사는 정진하는 마음으로, 화두 드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해요. 뭉뚝한 송곳으로는 아무리 해도 뚫어지지 않지만, 뾰족한 송곳으로 뚫으면 단방에 뚫리듯이 가사불사 하는 것 또한 일념으로 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닭이 계란을 품듯이 해야지. 공부가 따로 있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일념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다 공부여.”

무상 스님은 가사 만드는 그 시간만큼은 도(道)통하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다리미질 하는 사람이나 재봉하는 사람이나 바느질하는 사람이나 모두 일념으로 해야 만이 온전한 가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도편수는 가사불사에 동참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정에 맞게끔 고루 일거리가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신심 도타운 불자들은 가사만 수하고 있으면 복밭에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에 가사를 만지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고 믿는다. 무상 스님은 가사 한번 만지는 것으로 공덕을 삼으려는 그 마음을 두고 우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 법에 대한 신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해요.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회사의 사원들 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화합이 깨지잖아요. 가사 한 번 만지면 지옥은 면한다는 말을 믿는 그 마음도 갸륵한 거지.”

스님은 <화엄경>에 나오는 가사공덕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 닭이 계란을 품듯 일념으로 정진해야

금시조는 용의 새끼를 먹고 사는데, 점점 권속이 줄어드니 임금용이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였다. “금시조가 우리 용들을 다 먹어치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스님들의 헌 가사를 얻어다가 3치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모두 몸에 붙이라”고 하였다. 용은 스님들의 가사를 얻어다가 모든 권속들에게 붙여놓았다.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으려고 보니 가사 입은 스님들뿐이어서 잡아먹지 못하였다.

극락세계에 9품이 있듯이 가사에도 9품이 있다. 9조, 11조 13조 가사는 하품이요, 15조, 17조, 19조는 중품이요, 21조, 23조, 25조는 상품이다. 이미 부처님 당시에 가사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었다. 가사에 극락세계를 새겨 넣은 것을 보면 출가자에게 있어서 가사의 의미가 얼마나 지중한지 알 수 있다.

“가사를 수하고 있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고 하지만, 출가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그대로 지옥행이니 우리 수행자에게는 무서운 옷입니다.”

가사를 존중하면 오덕(五德)이 있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듯 싶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자비심을 길러주고 도심을 심어주는 옷이요, 치열하게 수행하는 출가자들의 옷인데 어찌 귀신들이 겁내지 아니할 것이며, 사견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무상 스님은 말미 끝에 일없이 그냥저냥 사는 노인네라고 하지만, 평생을 도통하는 마음으로 인욕의 옷, 계율의 옷을 지었으니 그 수행의 지극함에 대해 더 이상 말해서 무엇 하랴 싶다.

글 사진=문윤정(수필가 본지논설위원)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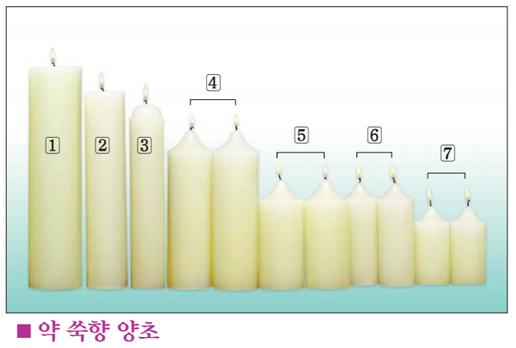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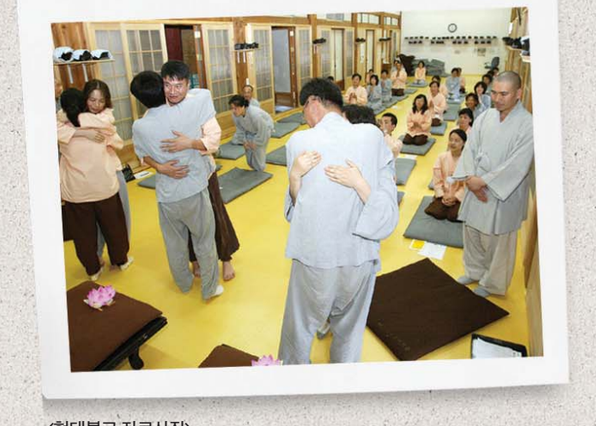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P) 양초.net

마음의 병 치유하는 가족명상

어떤 기억은 즐겁고, 어떤 기억은 슬프고, 다른 어떤 기억은 아프다. 기억속의 상처와 슬픔, 고통은 과거의 잔상일 뿐이지만 기억은 '지금의 나'를 괴롭힌다. 기억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기억은 더 이상 과거의 잔상이 아닌 현재의 문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 괴로움에 대한 해답을 명상에서 찾는다. 하지만 인연에 얽혀 사는 우리, 과연 주위 사람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을까? 지난 3월 22~23일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의 '가족치료 워크숍'에 발표된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명상에 대해 알아본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명상상담연구원 가족치료 워크숍 개최

▲사례=한민수(21·가명)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00대학에 진학했지만 재수하고 다시 xx대학에 진학했다. 한씨는 고등학교 시절, 소위 왕따였다. 왕따를 당한데 대한 분노와 수능시험을 망친 억울한 감정으로 지금도 순간순간 통제할 수 없는 불안과 충동적 분노를 느낀다. 불안과 분노는 학교생활에도 이어져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1차 · 2차 누적된 학사경고로 한번만 더 학사경고를 받으면 재적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근후 명예교수(이화여대)는 <상담사례연구집>을 인용해 "한씨의 문제는 시험 전의 극심한 불안과 열등감, 과거 왕따를 당했던 경험 등으로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었다"고 말했다.

"부부관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모사이에서 자랐고,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한씨가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사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생겼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었다. 또 어머니는 자신의 부부생활의 불만을 한씨의 학업에 집착하는 것으로 풀었다. 결국 한씨는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항상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이 교수는 "이런 경우 개인치료를 해서 회복이 되도 병든 가족에게 돌아가면 다시 병들고 만다"고 말했다. 결국 "한씨 개인 뿐 아니라 한씨를 성적에 집착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어머니가 함께 명상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개인이 호소하는 고통의 다수가 가족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며 가족명상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상유식관법'을 만든 명상심리치료 전문가 인경 스님은 "우울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주문한다. 스님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바라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경 스님은 "컴퓨터로 따지면 사람의 마음은 하드디스크다. 기억의 본질은 하드디스크의 파일들로 이것의 실체는 전기에너지"라고 비유했다. 구체적인 명상법에 대해 스님은 "고통스러웠던 기억의 장면으로 들어가 바라본다. 고통이 클수록 회피하려 하지만 힘들었던 순간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억속의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스스로의 진단을 통해 '통찰'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은, "통찰이 생기고 나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런 후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억 속에서 실현하고 나면 화해와 용서가 이뤄지면서 고통이 소멸된다는 것이 인경 스님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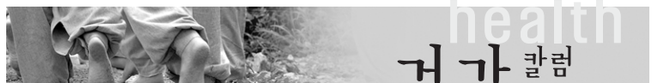
인경 스님은 "슬픔도 불안도 모두 삶의 일부다. 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저절로 흘러가고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며 명상을 통해 삶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갈등은 가족이 함께 풀어갈 과제
스스로 고통 통찰하며 화해와 용서를
슬픔 · 불안도 삶의 일부로 수용해야

성적에 대한 불안에 고통 받던 한씨도 낮은 성적으로 어머니에게 꾸중 듣던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 자신을 관찰하고 기억 속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현재의 고통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또 어머니도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아들 한씨가 괴로웠던 기억을 떠올려 용서와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가족명상이다.

'내가 편해야 가정이 편하고, 가정이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하다'고 말한다. 오늘밤 가족과 함께 명상 시간을 갖고 진솔한 대화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명상상담연구원: (02)2236-5306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25. VDT증후군

2000년대 들어 인터넷 사용 환경에 따른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보고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VDT증후군이다. VDT는 Video Display Terminal의 약자로써 VDT 증후군은 컴퓨터 단말기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나 시각장애, 구토, 무력감, 손목 등을 비롯한 여러 관절질환 등을 말한다.

사람의 눈은 먼 곳을 볼 때 가장 편한 구조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해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모니터와 눈 사이의 거리는 약 50cm 정도로 가깝다. 따라서 계속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면,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필요한 근거리 조절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다. 이런 근거리 작업을 지속하면 초점 맞추는 눈 속 미세근육이 피로해져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이 나이에는 아직 노안이 오지 않았어도 초점조절 능력이 20대에 비해 훨씬 감소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안이 오는 초기에는 근거리 초점을 맞추는 능력은 있으나 이를 장시간 지속하기가 어렵다. 또한 근거리 조절을 풀기도 어려워 한동안 컴퓨터를 본 후에는 근거리 원거리 시력이 동시에 떨어진다.



눈물 마름현상·렌즈 합병증 등 발생
근거리용 안경·인공누액 사용 도움

장시간 컴퓨터 사용 후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눈물 마름 현상이다. 원래 각막은 얇은 눈물층이 각막 표면을 덮고 있어야 한다. 각막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은 5~10초 정도면 증발 돼 각막 표면이 마른다. 이때 눈에 자극감, 건조감이 생기고 눈을 한 번 깜박임으로써 눈물이 각막에 새로 공급된다. 하지만 컴퓨터 작업을 하는 도중에 특정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눈이 말라도 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눈깜박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각막이 마른 상태로 장시간 작업하면 각막의 피부가 헐게 되고 안구 건조에 의한 각막염, 결막염 등이 발생된다. 특히 콘텍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렌즈에 의한 눈물 순환 감소가 더해져 다양한 렌즈 합병증도 생긴다.

근거리 작업에 의한 눈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간 저교정 된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노안이 오는 40대 초반에는 망설이지 말고 근거리용 안경(돋보기)을 사용하는 것이 눈피로를 줄이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돋보기를 사용하면 노안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데, 돋보기를 사용한다 해서 노안이 더 빨리 진행하지는 않는다. 또 조절피로를 막기 위해 40분 정도 작업하고 10분 정도 먼 곳을 보며 눈을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콘텍트렌즈는 되도록이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한쪽 눈만 많이 나쁜 짝눈이거나 심한 난시에는 오히려 안경이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콘텍트렌즈 중에서도 하드렌즈가 눈 합병증을 줄이는 대안이 된다. 하지만 하드렌즈를 착용했을 때 이물감을 심하게 느낀다면 산소 투과율이 높은 소프트렌즈를 처방 받는 것이 좋다.

VDT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박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상적인 눈물 순환이 된다. 필요시에는 인공누액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된다.

눈피로의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도 중요하다. 모니터 바로 뒤에 밝은 조명이 시야 내로 들어오면 빛번짐을 느끼기 쉽고 뒤쪽에 조명이 있어도 모니터에 반사되어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조명은 이러한 각도를 피한 간접조명이 좋다. 실내 색깔도 너무 밝은 색은 눈의 대비감도를 떨어뜨려 작업 능률을 떨어뜨린다.

화면의 위치는 화면의 최상단 높이와 작업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의 눈높이와 수평을 이루거나 약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무런 불편 없이 안구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시계의 범위(중심시선이 수평아래 10~15도)를 확보할 수 있다. (02)755-0055

■ 김준헌(소중한눈 안과 원장)

봉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행
고무신코 만 행 화

조각무명
사부대중 선 물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조극세사
지압식 팔장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
3-1 밴드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 소중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부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세요. • 불교와 패션이 함께합니다.
• 혼이 담긴 장인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 고급스러움과 품격이 더하는 명품을 간직하세요.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 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 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오늘의 禪語

⑬ 선문답과 법거량

'바로 묻고, 즉시 답한다'

깨달음의 세계, 선의 세계에 대하여 스승과 제자 또는 선승과 선승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선문답(禪問答)'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법거량(法擧量)' 또는 '법담(法談)'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선에 대한 토론입니다.

선문답이나 법거량은 대부분 1:1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간혹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안거나 동안거가 시작되는 결제일이나 끝나는 해제일에는 조실스님이 많은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문답은 논리나 상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토론방식이나 대화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비논리 · 무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선문답입니다. 그 이유는 선의 논리와 가치관, 그리고 세속의 논리와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속에서는 지식과 물질적인 소유를 추구하지만 선은 무소유를 추구합니다. 세속은 애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선은 무집착을 추구합니다. 근본적으로 선이 추구하는 바와 세속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제도 대화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선문답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로 전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의 한 예에서 그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운문 선사(雲文, ?~949)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진리)입니까?" 운문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간시궐(乾屎橛)이니라."

간시궐이란 옛날 재래식 변소에 있는 '긴 막대기'입니다. 보통 '마른 똥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부처(진리)냐"고 물었는데 "마른 똥 막대기"라고 했으니 이것은 이만 저만한 파격이 아닙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논리나 상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문답은 즉흥적으로 내뱉는 궤변이 아닙니다. 선문답에는 대단히 치밀한 선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 일반적 논리가 아닌 특수한 선의 논리입니다. 선의 논리는 공(空) · 불이(不二) · 무분별 · 무집착 · 무심 · 일체유심조 · 중도 · 무심(無心) 등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화두나 선어가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은 깨달은 선승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볼 때 '마른 똥 막대기'란 어디에 해당될까? '일체유심조(고정관념 타파)'에 해당됩니다.

부처나 진리, 깨달음은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는 대상입니다. 무엇이 부처(진리)인지 묻고 있는 이 스님은 '성스럽다'는 고정관념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운문 선사가 '마른 똥 막대기'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성스러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집착을 타파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문답이나 법거량은 앞에서 보았듯이 대체로 1:1일로 진행되고 질문과 대답도 1회나 2회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길어야 3~4회를 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깨달음을 열어주는 선문답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미혹하게 하는 진부한 토론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선문답은 즉문즉답(卽問卽答)으로 진행됩니다. 잠시라도 생각한다거나 머뭇거리면 그것은 분별하는 마음, 분석적 사고(알음알이)에서 나온 말이 되므로 깨달은 자의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식적인 말이나 분별심에서 나온 말은 선문답이 아닙니다.

선문답의 역할과 목적은 질문자(제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함이 그 첫째입니다. 파격적인 언어를 통하여 막혀 있는 관념을 타파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자의 깨달음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실히 깨달았는지 여부를 가려내고 판단하는 검증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제자의 오도송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은 상대방의 실력을 떠보기 위한 선문답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승과 고승 사이에 펼쳐집니다.

선은 화두를 참구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음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저 수행자가 정말 깨달은 것인지?' '화두를 타파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몇 년 참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대학입시처럼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오직 법거량 밖에 없습니다.

법거량을 통하여 상대방의 실력을 간파하자면 선사의 안목이 탁월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선사는 상대방의 말 한 두 마디만 들어보면 곧바로 그 경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법거량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확인되면 스승은 제자에게 인가증명을 내립니다. 이 때 스승은 그 징표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발우나 가사를 하사합니다. 물론 제자로서는 인생 일대의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지로 참지만 마음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관문(법거량)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나와 더 치열한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생각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

파격 언어 통해 고정관념·집착 타파 깨달음으로 인도

신행게시판

●**해인사 2008 호국팔만대장경법회**=합천 해인사가 4월 12일 오전 10시 '2008 호국팔만대장경법회'를 봉행한다. 올해로 48번째를 맞는 법회는 '부처님 가르침 훤히 밝혀져 온누리에 펼쳐지이다'를 주제로 해인사 본말사 스님과 전국의 불자들이 참석해 수행원력과 신앙심을 고취하고 호국호법의 의미를 되새긴다. 법회에서는 국가의 안녕을 축원하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발표된다. 법회 전날인 11일에는 특별 철야기도가, 13일에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행전 및 비로자나부처님 광명철야기도가 봉행된다. 참가비 3만원.(055)934-3105

●**강남포교원 춘계 사찰순례**=서울 강남포교원이 4월 20일 강진 무위사로 춘계 사찰순례를 떠난다. 강진 무위사는 국보 제13호 극락보전이 유명한 사찰로 내부 벽화는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극락보전에서는 아미타삼존불과 수월관음도를 만날 수 있다. 벽화는 보존각에 진열돼 있다. 동참금은 3만원.(02)539-2631

●**능인선원 춘계 삼천배 철야용맹정진**=서울 능인선원이 4월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대법당에서 춘계 삼천배 철야 용맹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삼천배 기도는 과거 · 현재 · 미래의 3000 부처님께 각각 한 번씩 절을 올려 참회하는 기도법이며, 능인선원에서는 1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철야 용맹 정진을 하고 있다. 동참금은 1만원.(02)577-5800

●**석왕사 스리랑카 성지순례**=부천 석왕사가 4월 16~21일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떠난다. 스리랑카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불상봉안법회가 이번 성지순례의 주요행사. 이 외에 스리랑카 최초의 고대왕국이 자리했던 아누라다푸라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최초의 불교 전래지 미힌드라,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불교성지인 담불라 석굴사원 등을 거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캔디의 불치사, 부처님의 법음이 그대로 전하는 패엽경이 현존하는 알루비하라와 칼맨나이에 이르기까지 스리랑카 전역의 불교성지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다.(032)663-7771~3

●**선운사 만세루 개방**=고창 선운사가 3월 30일~4월 6일 만개하는 동백꽃을 구경오는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선운산에서 자생하는 차를 무료로 마시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만세루를 개방한다.(063)561-1422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단박깨침(頓悟)'으로 성불

⑬ 사가라 용왕의 딸 용녀

<법화경> '제바달다품'에는 악인의 대명사인 데바닷다(提婆達多)와 암컷이자 축생인 용녀(龍女)의 성불을 밝히고 있다. 악인이나 여인도 성불할 수 있는 도리를 담은 이 법문은 대승불교와 선종의 핵심이기에 깊이 참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용녀의 성불에 대한 줄거리만 요약하고자 한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데바닷다에게 수기를 마치시자 다보여래를 따라온 지적(智積)보살이 다보여래께 본래의 국토로 되돌아가자고 말씀드린다. 그러자 석존께서는 지적보살에게 문수보살과 묘법(妙法)을 서로 논한 후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하신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큰 바다의 사가라(娑竭羅) 용궁(龍宮)에 사는 문수보살이 수레바퀴만한 1000잎의 연꽃에 앉아 나타난다. 그는 다보여래와 석존께 예배한 후 지적보살과 인사를 나누고 문답을 시작한다.

지적보살은 용궁에서 문수보살의 교화를 묻고, 문수보살은 항상 <법화경>을 설해 왔으며 교화한 중생의 수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대답한다. 문수보살은 "사가라 용왕의 딸은 여덟 살에 불과하지만 지혜롭고, 여러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정(定: 사마타) · 혜(慧: 위빠사나)를 갖추어 '물러남이 없는(不退轉)' 경지를 얻어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지적보살은 석존께서도 무량겁에 어렵게 고행하여 겨우 깨달음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용녀가 단박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며 의심을 품는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지도 않은 사이에 용녀가 홀연히 용궁에서부터 부처님 앞에 출현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를 읊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것을 본 사리불이 용녀에게 질문한다. "여자의 몸은 때 묻고 더러워서 다섯 가지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자의 몸으로 성불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자 용녀는 한 개의 보배 구슬을 끄집어내어 부처님께 바쳤으며, 부처님은 즉시 이것을 받으신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을 향해 "나의 성불은 부처님께서 보배 구슬을 받으신 것보다 더 빠르다"고 말하자, 금방 여자의 몸이 남자로 변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덕을 갖춘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묘한 법을 설하자 모두 깨달음의 예언을 얻고, 그 불국토인 무구(無垢: 더러움이 없는)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 이를 본 지적보살과 사리불을 비롯하여 많은 대중이 모든 것을 납득하고 믿게 된다.

이와 같이 용녀는 '성불은 오랜 시간 괴로운 수행 끝에 얻어진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직관함으로써 부처의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선종의 수증론(修證論)인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과 맥을 같이 한다. <법화경>은, 깨달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중생의 지레짐작일 뿐임을 지적한다. 사리불의 입을 통해 '여인은 범천왕 · 제석천왕 · 마왕 · 전륜성왕 ·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여인 오장설(五障說)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논파하고 있는 것도 여인성불을 강조하는 논법이다.

마음 직관 통해 즉각적인 깨달음 얻어

男女·生死 넘어선 본래면목 깨달아야

용녀의 성불을 통해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본래성불'이라 하는 법문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종경록>에서 용녀의 '단박 깨침'(頓悟)에 대해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만약 한 생각에 결정하여 믿고 받아들인 자는 찰나를 두지 않고 문득 깨달음에 올라간다(若一念決定信受者 不間刹那 便登覺位)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가 '너희들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자체가 곧 출가이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구족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이는 본래 사람이 가진 마음자리, 즉 불승(佛乘)자리는 이미 깨달음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래면목에는 남과 여,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이 따로 없기에, 그러한 도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곧바로 본래의 마음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승(一乘) 도리를 믿지 않고서는 돈오란 불가능하다.

김성우 객원기자

기획 PR

경주 천선사 '우담바라' 활짝

기존것과 달라... 전 세계 10여곳에만 피어

경주역에서 불국사 방향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동방동 831-99번지 소재 남산 천선사(대한불교 선종 총무원, 원장 정관 스님)는 그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고찰은 아니지만 불자들이 자주 찾는 명찰로 알려져 있다.

"여기가 천선사라네, 해탈고 넘어 감로수에 몸씻고 자기부처 찾아 가소"란 글이 생각나듯 사찰 입구에는 감로수가 흐르듯 담장을 휘감고 금붕어들이 불자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천선사는 비록 심산유곡은 아닐지라도 사시사철 맑은 기운이 넘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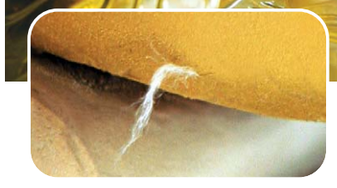
남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곳, 절 입구에서부터 향 내음이 가득한 천선사에는 스님의 목탁소리와 은은한 불경소리가 이곳이 곧 불국정토임이 가슴에 와 닿게 한다.

창건한지 20여년 불과한 천선사 대웅전은 명승 고찰과 다름없이 삶에 찌들린 중생들을 불국정토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우아하면서도 인자한 삼존불상 부처님을 친견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벗고 참선에 들게 한다.

그런데 최근 이 삼존불상 부처님 가운데 중앙의 아미타부처의 왼쪽 손 부분에 금세기 보기드문 우담바라 꽃이 펴 불자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정관 스님이 발견한 우담바라 꽃은 일반 사찰에 핀 새싹과 같은 외줄기 우담바라 꽃과는 달리 30여개의 하얀 꽃이 송이송이 피어 있는 것이 마치 새 깃털처럼 부드러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또 우담바라 꽃을 친견한 불자들은 "그토록 깨끗한 아미타부처님의 몸에서 우담바라 꽃이 송이송이 피었다는 것은 정말 신비스러울뿐 더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펼 수 가 없다"며 감탄했다.





천선사 아미타 부처에 핀 '우담바라꽃' 빨간원내 사진 확대

정관 스님은 "요즘 불교계가 어지러워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열심히 포교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3천년만에 한 번밖에 필 수 없다는 불교의 상징적인 '지혜와 자비의 꽃' 우담바라 꽃이 핀 것은 정말 신비롭고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스님은 "도(道)를 향해 가는 길은 바로 기도이며 기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대단한 일로 마음을 비우고 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삶을 반성하고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며 거룩한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이 곧 기도"라고 밝히고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가 너무 상술적인 것 같아 좀 더 관찰한 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 이었다"며 겸손함을 비치기도 했다.

정관 스님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이 같은 모양의 우담바라가 핀 곳은 전 세계적으로 10여곳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면서 "평생에 단 한번 볼까말까한 우담바라 꽃을 친견하는 것은 더 없는 행운으로 모든 대중들이 우담바라 꽃을 친견하여 만사형통하고 복록이 진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의 경전에는 '우담바라'가 3천년만에 한번씩 피어 짧게는 3년(1천일), 길게는 10년(3천일)을 유지한다는 꽃으로, 우담바라 꽃은 석가여래나 지혜의 왕 전륜성왕과 함께 나타난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우담바라 꽃은 흔히 '부처님을 의미하는 상상의 꽃'이라 하여 상서로운 징조로 받아들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1979년 강원도 모 사찰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선사는 이 신비스러움을 봉축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우담바라 대 봉축 천일기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윤수 기자
〈大慶日報 2007년 10월 24일자〉

대한불교 선종 남산 천선사 ▪ 연락처 : 054)748-0462 , 016-509-0462 (경북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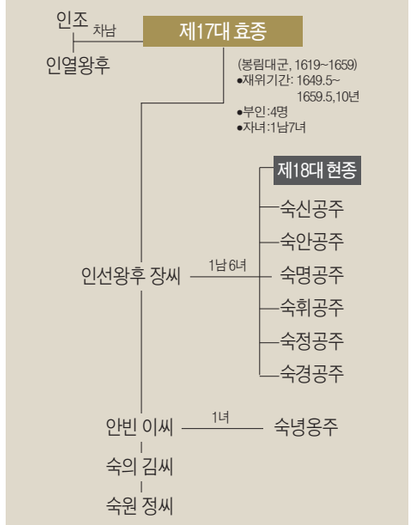
북벌의 영웅인가 순진한 몽상가인가



17대 효종과 인선왕후 -영릉

17대 효종과 인선왕후 –영릉
효종 1619~1659(41세)
재위 1649.5(31세)~1659.5(41세)

제17대 효종 가계도



영릉(寧陵)은

17대 효종과 인선왕후(1618~1674) 장씨의 쌍릉이다. 4대 세종의 영릉(英陵)과 700m 떨어진 곳에 있다. 원래 효종의 능은 1659년 10월 29일 건원릉 서쪽 산줄기(원릉 자리 근처)에 병풍석을 갖춘 왕릉으로 조성되었다. 그 다음해에 인선왕후가 죽자 정혈에 묻는다는 풍수 이유로 왕릉 앞에 인선왕후의 능을 써서 앞뒤로 나란한 쌍릉을 이루었다. 동원상하봉이라는 특이한 모습이다. 위에 있는 효종의 능에는 곡장을 둘렀으나 인선왕후의 능에는 두르지 않았다. 이는 부부가 같은 방을 쓴다는 의미다. 합장릉의 경우에도 남편 석실과 아내 석실 사이에 구멍을 내어 서로 통하게 해준다. 혼령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부부회포를 풀라는 의미다. 세종의 영릉과 함께 영녕릉으로 불린다. 사적 195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산 83-1 면적 215만9262㎡(65만4322평).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효종), 이들 형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1637년 청나라는 병자호란을 종결짓고 돌아가면서 소현세자, 봉림대군, 인평대군 등 인조의 세 아들을 볼모로 잡아갔다. 셋째 인평대군은 이듬해 돌아왔으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8년 뒤 1645년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인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가치관은 판이하게 형성된다. 소현세자는 국력이 막강해지는 청을 현실의 눈으로 인정하고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봉림대군은 아버지 인조와 자신에 온갖 굴욕을 안겨준 청에 대해 증오를 키웠다. 귀국해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배운 서양문물과 실리 외교를 주창했다. 봉림대군은 대명 사대주의에 더욱 집착하여 반청사상을 고조시켰다. 귀국한 지 두 달 만에 소현세자는 갑자기 병으로 드러누웠고, 와병 3일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이 때 그의 온몸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뱃속에서 피가 쏟아졌다. 일부 학자들은 아버지 인조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주장한다.

세자의 죽음으로 봉림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효종이다. 효종의 반청감정에서 비롯된 북벌계획은 다양한 역사적 화두를 던진다. 치열한 민족정신의 발로, 한여름밤의 꿈, 허공을 향한 몽상가의 땔꾹질, 슬픈 개그 등으로 규정해 본다.

'어영부영'이란 말이 있다.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가장 못마땅한 행태다. 어영은 어영청(御營廳)에서 유래되었다. 어영청은 조선시대 삼군 중 하나로 최정예 야전군이다. 그런데 어영청의 군기와 훈련상태에서 어영부영(御營不營)이 유래되었다니 아이러니다. 연유는 이렇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청나라를 치려는 북벌을 국가 지상목표로 삼았다. 삼전도의 굴욕, 8년간 심양에서 보낸 인질생활을 생각하면 살이 떨린다. 인질로 잡혀갈 때의 심정을 이렇게 읊었다. 그 분개는 여전히 유효하다.

청석령(靑石嶺) 디나거냐 초하구(草河溝) 어드매오
호풍(胡風)도 차도 찰샤 구즌 비는 므스일고
뉘라셔 내 행색(行色) 그려 내야 님 겨신 듸 드릴고.

함께 끌려가 6년간 고초를 겪은 김상헌이 읊은 글귀도 귀에 쟁쟁하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청나라를 치겠다는 북벌은 10년을 목표기간으로 삼았다. 볼모 시절에 전투정보, 지리정보를 확보했다. 군사력만 확보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보안유지가 첫째다. 다음은 김자점 등 친청파 숙청이다. 10년 동안 3만 명의 정예 북벌군을 양성해서 명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북벌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으로 끝났다. 명과 대치하던 청의 세력이 들불처럼 커지고, 내부 문제는 말이 아니었다. 어영청 상위직급은 양반 자제들이 차지했다. 실무보다는 형식을 따졌다. 싸움은 아랫것들이 하는 것이라며 종을 대신 내보내고 그들은 주색잡기를 즐겼다. 병졸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했다. 정예군은 고사하고 당나라 군대보다 못한 오합지졸이었다. 효종의 3만 정예군 양성 목표는 고작 5600여명의 어중이떠중이 부대로 만족해야했다.

양반 자제에게도 군역을 부과하라는 뜻 있는 신하의 주청을 받아들여 이를 실행하려 했다. 실태를 조사할 암행어사를 파견한 지 한 달 만에 효종은 갑자기 승하했다. 북벌계획이 마침표를 찍는다. 여기에도 독살설이 대두된다. 북벌계획에 대한 사림의 동의를 얻기 위해 효종이 사림의 영수 이조판서 송시열과 독대한 지 두 달 만에 41세 창창한 나이에 승하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회자된다. 수전증이 있는 신가귀라는 어의가 효종의 얼굴에 난 종기에 침을 놓은 직후 피를 쏟으며 죽었다는 것이다. 시신이 퉁퉁 부어 있었으며 관이 맞지 않아 송시열 등 대신들이 널빤지를 덧대어 왕의 시신을 관에 넣었다.

효종릉 아래 묻힌 인선왕후는 우의정 장유의 딸이다. 13세 때 한 살 어린 봉림대군과 가례를 올려 풍안부부인에 봉해졌다. 1637년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패하자 남편과 함께 볼모로 잡혀가 8년 동안 심양에서 보냈다. 소현세자가 죽고 봉림대군이 세자에 책봉되자 세자빈이 되었으나, 책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저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다. 효종이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다. 1659년 효종이 죽은 후 효숙대비의 존호를 받았다. 57세로 승하했다.

효종은 죽은 후에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처음 묻힌 곳은 오늘날 동구릉 능역 안 원릉(영조왕릉)터이다. 송시열 등 서인들의 주장에 의해서다. 15년 후 남인들이 반격에 나선다. 터가 불길하고 석물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여 1673년(현종14) 여주의 영릉 곁으로 옮겼다. 왕릉이 천장되면 처음 능지를 택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서인들이 줄줄이 면직되었다. 죽은 자를 위해 더 좋은 명당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반대파를 욕보이기 위한 천장이었다. 왕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괴롭다. 그래도 권력을 향해 온몸을 던지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권력은 마력과 매력, 괴력을 동시에 지녔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권력도 그와 같다. 탐해서 얻어도 후회스럽고 얻지 못해 변방을 떠도는 외로운 섬이 되어도 분하다. 깨달음을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 진력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부처는 가르쳤지만, 세속 도시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 괴롭고 괴롭도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효종 영릉 전경.

8년간의 청나라 인질생활 거치며 반청사상 키워
즉위하자마자 북벌 추진…41세에 갑작스런 승하




앞 뒤로 나란한 쌍릉 형태의 영릉. 윗쪽은 효종릉, 아랫쪽은 인선왕후릉(위). 강화도는 전란을 당하면 단골 피난처다. 사진은 항공촬영한 강화 용두돈대 전경(아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필름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 법 인 설 립"
(서류대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사찰행사 · 천도재 · 49재 · 수륙재 · 점안식 행사에 바라무 · 나비무 · 살풀이 · 지전무 · 극락무 장엄하게 집전 해 드립니다
영남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010-4870-835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불교전통예술종합대학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무,범음범패,바라춤, 나비춤, 사찰행사, 49재, 점안식, 전통무용(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찬불가 가야금, 수시학인모집, 실전교육
051)515-5222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이혼녀보호센터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심각한 이혼상담 해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빙의천도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제2회 금강경 및 참선법회 모집
• 후원구조 :
천일기도 및 연등접수
문의:055)972-3843
지리산 삼화사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80)027-4684
010-6730-1186

계룡산 손바닥 토종 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양안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효능 : 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大方廣佛華嚴經
대 방 광 불 화 엄 경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
사 교(7권)
법화경(7권)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강본으로 사용
011-545-7252

역학개인지도 · 숙식제공
명리,육효,육임,관상학 구성학,풍수,음양택,성명학, 최면술,빙의,전생,영가치유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조계종 고찰 내원암
조용한 사원에서 휴양겸
40~50대 공양주를 급히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곳이 없는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을 영험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법당 관리 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오래계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 종무실 법당,거사님, 보살님 모십니다
016-9730-300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 ~ 50대)
▷대구 경북 지역
011-807-004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53)614-452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32)435-04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대 후반)
▷서울지역 비구니사찰
02)980-0286

비구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1-744-1650

공양주보살님 사무장 모십니다
▷용인사찰
031)335-2576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제천
043)643-4733
011-9426-473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 ~ 65세)
▷울산
052)275-08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북한산성입구
02)387-321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시
010-3647-0018

공양주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50대 이상)
▷울산
052)254-6144
011-9660-4241

운전하는 처사로 근무하면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보수는 적어도 됨
※오후 7시 이후 전화 바람
010-3282-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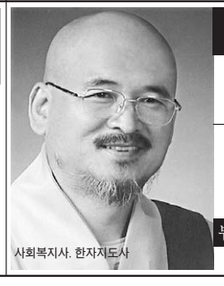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부처님 도량에서 자유로이 기도공부하실 법우님 부담없이 연락바랍니다
▷ 위치 : 경기 수원 근교
(성별 무관하며 숙식 가능함)
TEL 031)375-1831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목요일 18: 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종합교육사사 사주명리+작명+수상+관상+건강
생활역학강의 전문교육처(초.중.상급(격국)
고자강 이역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실전통변 특강반 접수 : 4월초개설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강의 : 본명사주의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부족된 자원보충법 음령법의 체계적인 이론연구의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T : 02)2243-9598 /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1 • 단원역리학회 : 지현역리학연구원 : 동대문구

육임 수강생 모집
무자년 운세는 육임으로 보세요.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운세뿐 아니라 일의 성사 여부와
해결까지 명확한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매매에 성사 여부와 가격,
결혼에 시기, 임신여부와 남·여 판단,
시험 운, 이혼 여부 등
「육임 수강생 모집」
■ 육임을 기초에서 백법까지 과정을 함께 공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 · 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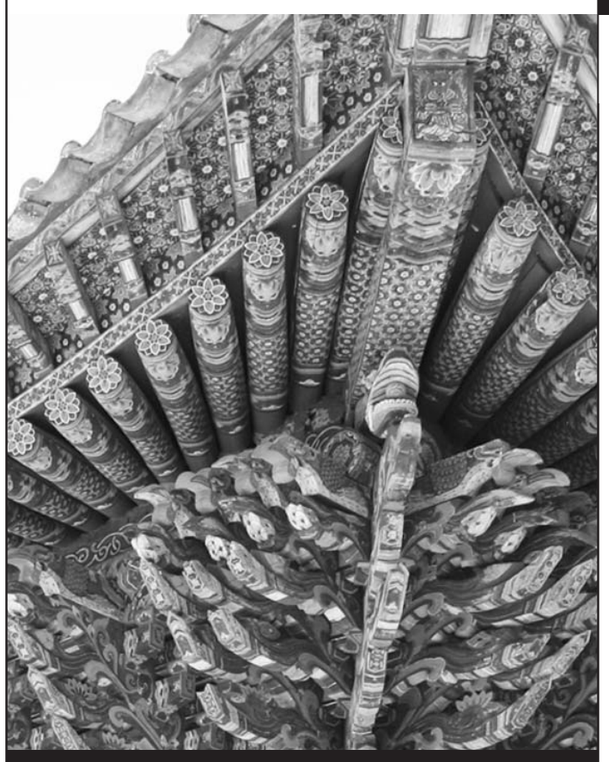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867-0844, 746-2778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350평 + 밭 550평 + 임야
● 법당 : 15평, 요사채 :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양도가 : 4억원

무릉선원
● 위치 : 마산 철서 ● 대지평수 325평
● 건물 약30평(등기필)
● 법당 20평, 요사, 방2, 다락실1 기타 창고 및 화장실
●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양도가 : 1억5천만원

사 찰 전 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임법당 : 40평 (단독주택)
● 월세 : 4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 위치 : 동해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800평
● 가액 : 5억 2천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에서 800m 이내)
● 부지 3887평, 법당 64평
● 요사채 및 사무실 4동(총 32평)
● 석탑 및 불상 포함
● 가액 : 7억2천만원
(공시지가 총액 9억2천4백만원)
시세보다 저렴한 다른물건들도 있음
02)544-6030
010-4744-47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 문중땅내에 건평 약90평 텃밭약간
● 주차장, 건물대장있음
● 1층 방3, 거실, 주방
2층 법당, 약30평, 산신각
● 가액 : 전세 350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5289-0075

구리 포교당 안내

● 위치 : 구리시내
● 상가주택 4층중 2층 단독
● 평수 : 30평,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상담실, 작은주방
역학 겸하시는 스님 적합
● 보증금 500만원, 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674-50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 (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 주방, 샤워실
(비품일체 양도)
● 가액 : 시설비 1,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010-5013-252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
● 대지 : 138평
법당 20평, 요사채 10평
● 삼존불 모셔져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대구 시내, 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7천5백만원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63)543-5551
018-427-225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에어컨 3대, 전광판 2대
법당조명, 음향엠프시설 완비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10-6287-3552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 경계 원도봉산
● 시지 약 300평, 별채 20평
신축건물 임법당 45평,
● 경내 7층석탑, 관음석불,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 지하수, 상수도
공기 청정하고 조용하며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2천만원
016-337-95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 심야 전기 보일러 있음
011-875-3513

사찰(급)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 앞)
아산KTX, 천안IC10분 거리
아파트 3만세대 입주예정
● 약 70평, 7층 건물중 2층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 문의 후 협의가능
041)565-91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방2, 40평, 삼존불
기타 시설 완비
● 지하철, 정류장 5분거리
체육공원 인접
● 가액 : 전화상담
010-6236-5557
053)961-050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고창
● 부지 : 약1200평, 법당 : 20평
● 요사채 : 50평, 주지실 : 20평
● 약 100여년된 전통사찰
삼존불 봉안 외 법당 내부시설 완벽
심야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4천만원
필히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3618-7355

토 굴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금동
● 대지 : 200평
건물 25평 중 15평 법당
10평 요사채
(건물만 등기 있음)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2,700만원
010-4422-3168
042)286-3593

사 찰 안 내

● 위치: 구미시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 대지 : 1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 3억
010-5046-0250
꼭 하실 분만 전화 요망

토 굴 안 내

● 위치 : 마산 진주 사이
● 평수 : 410평
임법당1채, 요사채2동
● 비구니스님 토굴로써 적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5천(절충가능)
011-9554-56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문현동
● 대지 200평, 건평80평, 양옥
● 법당 20평
● 아미타불 삼존불,
지장호신불 108불, 신장,
산신, 아미타후불탱화
● 요사채 60평 : 큰방1, 작은방5
● 사찰전자 비품 일절
● 보증금 천만원, 월70만원
● 정원, 잔디, 연못 설치
시설비 2천만원(답사 후 절충)
010-8877-791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평수 : 약 40평
● 법당 20평, 방1, 공양간1
● 삼존불, 후불탱화 등
완벽하게 모셔져 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약 1700만원
019-291-5558
051)503-0908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 기성동
● 대지 75평
● 한옥목조 임법당 25평
● 실사용평수 150평(주차장 포함)
● 가액 : 1억1천만원
010-9040-207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 2층 건물 2층 43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협의 후 결정
010-8622-1285

사찰 전·월세 안내

● 위치: 경기도 양주시
● 대지 : 300평
● 평수 : 임법당 60평
시설완비
● 전세 7천만원,
월세 5천만원 / 월 20만원
011-9638-8229

기도도량 안내

대둔산 도솔봉 약사용궁도량
● 총 560평, 대지 125평,
● 법당(조립식), 칠성(조립식), 산신(허공), 용궁, 약수, 연못
요사채, 거실, 주방, 방4,
화장실2, 다락1
● 굿당(조립식), 선낭(조립식)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5천만원(절충가)
041)753-8433
011-9211-4219
꼭 보실분만 연락바람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
(구미시에서 5분거리)
인근에 신도시 개발중
● 평수 : 740평
● 가액 : 4억 5천
● 실사용면적 1,000여평
011-9598-3399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충북 충주시 월악산 입구
● 대웅전 외 7채(대형사찰)
집기 일체 양도
● 계곡 접하고 산세 수려함
● 스님 다른 사찰 소임으로 저렴하게 양도합니다.
● 가액 : 10억
(사찰.net 첨부파일있음.1845호)
011-6399-53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700만원
017-393-112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 법당 30평, 산신각10평
요사채 30평 2동
납골탑 100기 시설
● 가액 : 1억 8천만원
(전세 가능)
010-9115-683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정릉 4동 북한산 입구
● 평수 :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9281-54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약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31)405-4181

10년된 포교당 양도합니다

● 위치: 서울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시장주변
● 원불 35불
02)386-9939

명당사찰터 및 별장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내↔
부석사 중간(화천)
● 터세 : 명당산세
(전기, 도로포장, 토목공사 완료)
● 평수 : 5,300평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
● 양도가 : 1억9천5백만원
(터 보실분만 연락)
016-573-2032

촌 집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대지 : 92평, 건평 : 25평
● 가액 : 5천5백만원
011-884-7767

포 교 당 안 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5층 건물중 3층
● 평수 : 42평
● 시설비포함 3700만원
02)574-8333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 대지 : 507평, 법당 : 25평
● 주지실, 극락전 45평, 요사채 40평
기본시설 일체완비
● 가액 : 직접 답사 후 상담(전화상담 가능)
011-704-2858

(특급)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교통 : 삼랑진IC 7분, 밀양 25분 거리(2차선 도로 포장)
● 부지 : 5200평(종교용지 1050평)
● 법당 : 대웅전(목조 5포9포 단청) 25평, 지장전 20평, 관음전, 삼성각
● 요사 : 설송당(목조) 18평, 자양당 43평, 요사 52평
● 환경 :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 좌청룡 우백호 명당
● 가액 : 시세 저렴 직거래 상담 후 결정
창건주 건강문제로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55)356-6887 (야)
010-3865-3415

사 찰 임 대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곤지암 도척면(시내 10분거리)
● 부지: 대지 300평, 시유지100평 (주차장)
● 건축:요사채 35평
(요사채 일부 임법당 사용중)
● 삼존불 신중님 칠성님 산신탱화
● 엠프 집기 비품 일체 구비
● 산세경관 수려하고 교통편리
● 몸만 들어오셔서 절운영하실분 적합
● 전세 9천만원 - 1억 (절충가능)
011-9038-6531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영등포역 5분 거리
(영등포로터리 번화가 위치)
● 법당, 주방 등 살림가능
5층 건물중 4, 5층 사용(38평)
● 삼존불, 산신전, 지장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2백만원
● 유동인구가 많아 역학스님, 보살님 최적
010-4474-444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최고의 시설, 최적의 환경

● 위치 : 경북 대구 바로 옆 경산시 중심가
교통의 중심가, 주차장 완비
● 5층(엘리베이터) 옥상사용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신중탱화
● 평수 : 80평(법당 40평 마루)
● 방3개(주지실, 사무실, 주방) 후원
● 시설비 3000만원, 월70만원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2051-6705

불자정보 계속



원담진성 대종사의 다비식을 지켜보는 문도대표 설정 스님(수덕사 수좌). 스승을 떠나보내는 애틋한 마음은 한줄기 눈물로 흘러내렸다. 스님의 법구를 이운하는 행렬과 다비식 모습.(사진 왼쪽부터)









덕숭총림 방장 원담진성 대종사 영결식 현장

"다시 돌아오시어 중생 이끄소서"

수덕사서 조계종 원로회의장 엄수

문중 전통 따라 사리는 수습 안해

덕숭총림 방장 원담진성 대종사의 영결식이 3월 22일 예산 수덕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葬)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다섯 번의 명종으로 시작됐다. 수덕사에 마련된 영결식장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과 원로의원,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등 스님 1000여 명을 비롯해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삼라만상과 덕숭산 초목이 약동하고 소생하려는 호시절인 따사로운 봄날에 오고감이 없이 가셨으니, 가고옴이 없이 다시 사바에 오시어 환도중생하시라"고 발원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성성(惺惺)하실 때는 선지(禪旨)가 대방무외(大方無外)하여 바다와 산을 눌렀고 대기대용(大機大用)은 드넓어 저 하늘을 치솟았으며, 입적(入寂)하시고는 형상(形象)없는 한 물건이 있어 허공(虛空)을 쪼개고 봄바람을 일으켜 온 누리에 꽃을 피게 합니다"라고 원담 대종사의 덕을 추앙했다.

전국 조실 대표로 조사를 발표한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은 "희유하십니다. 대종사님이여! 어제는 이렇게 노시다가 금일에는 이렇게 가시니 그 쾌활함을 사의하기가 어려움이로다"라고 추도했다. 이 밖에도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명박 대통령,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의 조사가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병국 청와대불자회장이 대독한 조사에서 "대종사께서는 사부대중의 큰 스승이셨고, 중생들의 아픔과 애환을 보듬어 안아주신 자비의 보살이셨다"며 "우리는 큰 스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담아 선진화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법구는 1만여 기의 만장에 둘러싸인 채 다비장이 마련된 연화대로 이운됐다. 사부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도대표 설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원담당 진성 대종사 집에 불 들어갑니다"를 세 번 외치고 거화(擧火)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솟아올라 8미터 가까운 불기둥을 이뤘다. 사부대중들이 스님의 속환사바(贖還娑婆)를 염원하는 환귀본토진언 '옴 바자나 사다모'를 염송하는 가운데 원담진성 대종사는 '온 일이 없고 갈 일이 없는' 그곳으로 돌아갔다.

덕숭문중의 전통에 따라 원담진성 대종사의 사리는 수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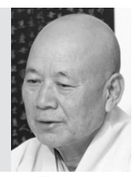
수덕사/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설정·옹산 스님이 말하는 원담 스님



설정 스님

원담진성 대종사의 다비식을 하루 앞둔 3월 21일, 영결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문도대표 설정 스님과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이 어렵게 시간을 내 기자들과 만났다. 두 스님에게 원담 스님의 가르침을 여쭈었다.



옹산 스님

Q: 스님의 평소 모습은 어땠나?

A: "큰스님에 대해서는 평소의 겉모습만 말씀드릴 수 있지 내면세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옹산 스님)

Q: 스님이 평소 강조하신 가르침은?

A: 스님은 실수참구 하는 어른이셨다. 이심전심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다. 몸소 실천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스님의 본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옹산 스님)

Q: 스님의 법문은 어땠나?

A: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법문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지만 큰스님은 손을 씻다가 혹은 외출 후 돌아오셔서도 준비 없이도 법상에 오르셔서 법문을 하셨다. 그럼에도 남의 글이나 법문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화를 받았다. (옹산 스님)

Q: 덕숭가풍이란 무엇인가?

A: 덕숭가풍은 무상(無相)이다. (설정 스님)

Q: 스님께 일배(一拜)만 올리도록 하는 것도 같은 이치인가?

A: 덕숭가풍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상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는 무상이다. 결국 그 경지를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상을 깨는 것이다. 상만 깨지면 자성을 얻게 된다. 덕숭산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 심지어는 사리도 취하지 않는다. 경허 만공 스님의 다비 후에도 사리를 취하지 않았다. 만공 스님은 '사리 세는 놈은 마구니'라는 말로 경책하기도 하셨다." (설정 스님)

Q: 원담 스님의 다비 후에도 사리를 취하지 않을 것인가?

A: "당연히 취하지 않는다." (설정 스님)

Q: 스님의 수행일화는?

A: 스님은 겨울에도 돌 위에 앉아 정진하셨다. 그걸 보고 만공선사가 기특해 하시고 수행열로 몸이 상할까 염려해 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그대로 바위에 앉아 수행하셨다. 큰스님은 춥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삼매에 든다고 말씀하셨다. 스님이 수행할 때 광명이 비치고 인근 홍성지역까지 환히 비치는 경계도 많이 일어났다. 그때가 스님이 17세일 때였고 만공 스님이 그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셨다고 한다. (설정 스님)

Q: 원담 스님께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열반 소식을 전했나?

A: 선사들의 세계, 깊은 법열의 세계는 헤아리기 어렵다. 법장 스님이 입적하신 이튿날 원담 스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스님은 '잘 죽었다'는 한 말씀만 하셨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무심하고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 후로 한 번 더 여쭙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큰스님은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지'라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진리와 죽고 사는 자리에서는 둘이 아니다. (설정 스님)

Q: 스님의 건강은 어떠셨나?

A: 스님은 병원에 계실 때 무척 아프셨을 텐데도 표현을 하지 않으셨다. 28년 전 스님이 폐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억지로 모시고 간 적이 있다. 그때 스님은 쓸개가 녹아 흘어져 있는 상태였다. 의사들인 '이 정도면 배가 칼로 찢듯 아팠을 텐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두었나'

설정 스님 "자성 깨우치라는 가르침 생생"

옹산 스님 "탁월한 문화·예술적 감각 지녀"

Q: 스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A: 자성(自性)을 깨우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인이 될 수 없고 고통의 바다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그렇지만 스님께서는 마음을 깨치고 주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자기답게, 주체적으로 살라는 것이다. 깨치지 못하면 경계에 끄달려 필연적으로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고 스님은 강조하셨다. 마음을 깨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다. (설정 스님)

Q: 덕숭총림 차원의 기념사업은 준비하고 있나?

A: 스님의 예술세계와 타고난 문화감각은 글씨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스님의 열반 전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스님의 작품 13점을 덕숭총림 선미술관에 기증했다. 수덕사 앞에 마련된 선미술관에서 스님의 서예 작품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옹산 스님)

불자정보

673호 |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도심포교(급)안내
- 위치 : 서울 망우동 동네5거리
- 부자명당터
- 약 50평, 2층
- 시설완비. 건물주 불자
- 3천만원, 월70만원
- 신축불사로 매우 저렴 급 양도

017-265-93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평수 79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방 4개, 큰 창고
- 비구니 스님 기도처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포교의 최적지)
- 6층 건물중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법당, 종무실, 방2,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160만원 시설비 : 꼭 하실분 절충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삼존불 및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미륵불, 관음지장원불)

010-2774-1250
031)653-035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6000만원(양도 및 월세가능) 사찰 규모 완벽함, 시설비 절충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하여 급 안내함

055)674-5978
011-9393-232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7호선) 2번출구. 평수 : 30평
- 2층 법당, 영가단, 거실, 주지실, 공양간, 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06-4661
011-545-506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9725-3196

사찰터 확보
- 총 평수 : 260평 (실평:308평)
- 황토건물 31평(남해지역) 현재 창고 100평
- 가액 : 2억원(절충가능)
- 창고 별도 양도가능

011-844-40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태백산 오전 약수탕)
- 부지 : 2600평(종교용지, 대지 600평)
- 건물 : 법당 25평(존양목 5포 7포, 단청, 삼단 닷집)
- 요사채 30평, 누각 18평, 산신각, 명부전
- 현대식 부엌, 화장실 호수 위에 위치하여 500평 마당과 경치가 수려함
- 가액은 협의 후 조정

017-848-3330
051)335-31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석촌동(송파역2분거리) 4층 건물중 2층
- 총평수 : 65평, 삼존불, 동불상
- 법당, 방 2, 주방 1 주차가능, 에어컨 3대 살림일체완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0만원, 22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0-3088-31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중심지 사찰
- 대지 : 230평 법당 25평, 요사 50평
- 주차시설완비
- 가액 : 7억원

- 위치 : 부산중심지 산밑
- 대지 : 80평, 법당 20평(슬라브) 요사 40평(슬라브)
- 가액 : 2억6천

018-554-61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206㎡(약366평)
- 임야 : 130㎡(약40평)
- 요사 : 198.24㎡(약60평)
- 대웅전 : 109.44㎡(약33평)
- 삼성각 : 30㎡(약9평)
- 실사용평수 : 약 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산세수려
- 가액 : 답사 후 협의요

011-9143-009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591-5277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 영동역에서 3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복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복터
- 평당 5만원 : 1100평 평당 15만원(대지), 200평, 300평, 500평

010-3545-9992
043)732-2756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태일아파트 부근)
- 지하 53평
- 삼존불
- 가액 : 답사 후 결정

031)234-6818

암 자 안 내
- 위치 : 대전 서구
- 등기필 28평
- 임법당, 산신각, 용천수 있음
- 방2, 심야보일러 황토 온돌방1
- 가액 : 5500만원

011-9643-7897

부산신도시 대형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시설비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겠음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 (월세를 전세로 전환가능)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 고양시 토당동 (능곡역 3분 거리, 전철개통 공사 완료)
- 3층 건물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시설 특A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8천만원

010-3116-1992

포교당 터(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사 찰 전 세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가액 : 총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약사관음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2대
- 스님 서재방1, 종무실1, 대중공양실1, 방사 2칸
- 후원 5평, 시설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만

010-4802-5288

도교 버리고 불교 받든 '황제보살'

중국불교의 거사들 〈7〉

남조(南朝)의 거사불교❶-양무제(梁武帝)

계율 스스로 철저히 준수·불교 교의 연구 몰두
"불교를 세속 권력유지 통치술로 이용" 비판도



그림 · 김홍인

북조(北朝)에서 황권을 중심으로 봉불(奉佛)과 폐불(廢佛)이 진행됐던 동시대에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하는 남조에서도 황제 중심의 불교가 흥성했다. 그러나 안정되지 못한 남조의 정치적 상황으로 송(宋) · 제(齊) · 양(梁) · 진(陳)의 대다수 황제들은 단명했지만, 양무제(梁武帝: 464~549)는 통치기간(502~549)이 가장 길었다. 양무제는 안정된 통치를 바탕으로 '불심천자(佛心天子)' '보살황제'로 칭해질 정도로 다양한 불사를 일으켜 불법에 귀의한 중국 역대 황제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그에 따라 후대에 '달마 대사와의 문답' '부처님께 헌화한 공덕으로 얻은 황제자리' 등 양무제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이 부가됐다. 따라서 남조 거사불교의 대표로서 양무제의 진면목을 소개한다.

양무제의 본명은 소연으로 본래 도교를 신봉하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소순은 바로 제(齊)나라 황제인 고제(高帝)의 가까운 친척으로 시중(侍中), 위위(衛尉) 등 고관을 지냈다. 소연은 어려서부터 유(儒) · 도(道) 양가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호조(戶曹)의 관리를 맡았고, 황제를 수행해 군대를 이끄는 등 다양한 능력을 보였다. 특히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를 침공했을 때 소연은 뛰어난 전략으로 북위의 군대를 무찔렀다. 이러한 공로로 명제(明帝)의 신임을 받은 소연은 태자중서자(太子中庶子)에 임명됐다. 그 후 명제가 병사하고 그의 아들이 황제에 올랐지만, 무능하고 성격이 잔인했던 탓에 원성이 자자하게 됐다. 소연은 군사를 일으켜 황제를 가두고 스스로 대사마(大司馬)의 관직을 맡아 국가의 전권을 쥐었다. 소연은 대권을 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친한 벗이었던 침약과 범운(范雲)이 문무백관을 설득하고, 결국 칭제건원을 하여 양(梁)의 무제(武帝)로 등극했다.

이런 양무제의 즉위 과정은 그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과 별도로 용병과 정치에 역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황제에 즉위한 양무제는 제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국(治國)에 전념했다. 현존하는 자료로는 양무제가 불교에 귀의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즉위한 지 3년(504)에 양무제는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선포했다. <광홍명집(廣弘明集)> 권4에 게재된 양무제의 '도교를 버리고 불교를 받듦을 고함'이라는 글에는 "내세에는 동진으로 출가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함께 성불하고자 함"과 "올바른 법에 들어 기나긴 윤회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노자(老子)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잠시 생천(生天)함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불교에 귀의한 양무제는 그로부터 불교공부에 심취했고, 천감(天監) 18년(519)에는 드디어 종산(鐘山) 초당사(草堂寺)의 혜약(慧約) 스님으로부터 황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삼배의 예를 올리며 보살계(菩薩戒)를 수지했다. 도교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다는 선포를 한 지 15년이 경과한 때의 일이다. 이로부터 양무제는 스스로 '보살황제'라고 칭하였으며, 신하들이 공문서를 상주할 때에 황제를 '황제보살'이라고 표기했다.

양무제는 보살계 수지 후, 철저하게 계율을 지켰다. 오신채와 육식도 하지 않았다. 당시 일부 승려들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목도한 양무제는 <단주육문(斷酒肉文)>이라는 글을 써 "여래의 옷을 걸치고 여래의 행동을 하지 않는 자는 승려의 이름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고, 도적과 다름 없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불제자의 나라에서 하나의 백성이므로 황제의 권력으로 그 죄를 묻겠다"고 했다.

양무제의 불교에 대한 신앙은 사찰의 건립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모와 명승을 위해 광택사(光宅寺), 개선사(開善寺), 동태사(同泰寺), 대경애사(大敬愛寺), 지도사(智度寺), 동행사(同行寺) 등 수많은 명찰을 건립했다. 그렇게 건립한 사원들의 운영을 위해 막대한 재물의 보시를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조정 관료들에게도 재시를 강요했고, 백성들에게도 역시 재시를 분담케 했다. 이러한 결과 민생은 점차 피폐해졌다.

양무제의 신앙은 '사신공양(捨身供養)'으로도 나타났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527년, 529년, 546년, 547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짧을 때는 4일에서 길게는 37일 동안 국정을 모두 제쳐두고 동태사로 들어갔다. 동태사에서 양무제는 황제의 옷 대신 승복을 입고 사찰의 허드레 일을 했다. 어느 날은 모든 관료들이 동태사 동문에 모여 국정을 살펴달라고 몇 번이고 청한 후에 궁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양무제는 불교에 귀의한 후 대규모의 법회를 자주 개최했다. 특히 수많은 고승들을 초청해 경전을 강독하는 법회를 좋아했다. 스스로 불교에 대한 연구도 계속했던 양무제는 말년에는 친히 교의에 대해서도 강설했다. 이런 그의 강설은 점차 대규모로 진행됐다. 기록에는 "533년 2월에 친히 7일 동안 강설했는데, 황태자를 비롯하여 문무백관과 승려, 심지어 외국의 사절까지 포함하여 무려 30여만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는 황제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이미 뛰어난 학자로서 인정받았던 양무제가 불교의 교의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하였던 까닭도 있었다.

양무제는 초기에는 삼론학(三論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당시 유명한 고구려 승랑(僧朗) 스님에게 귀의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점차로 '열반불성론'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당시 남방에는 여산 혜원 스님의 '신불멸론(神不滅論)'으로부터 전개된 '법성론(法性論)'이 크게 유행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성론'이 전통적인 중국사상과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양무제가 제창한 불성론은 바로 '진신론(眞神論)'인데, 이는 분명하게 혜원 스님의 '법성론'을 계승한 것이다. 혜원 스님은 '법성의 실유(實有)'를 제창해 '열반'과 '성불'을 설명했다. 양무제도 참다운 '신(神)'이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혜원 스님과 양무제의 이러한 이론들은 중국불성론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후대에 정립된 중국불성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도기적인 성격이 농후하지만, 당시에는 가장 새롭고 뛰어난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양무제는 무엇보다도 불교가 유교와 도교 양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당시는 외래종교인 불교의 흥성으로 전통사상인 유 · 도 양가와 심각한 대립관계를 초래하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무제는 "유교는 윤리도덕을 지키게 하며, 도교는 지나치게 득실을 따지지 않게 하고, 불교는 극락세계로 이끌어 준다. 그 근원은 모두 같다"는 '삼교동원(三敎同源)설'을 제창하고, 공자 · 노자 · 석가를 '삼성(三聖)'으로 받들었다.

삼교동원설에 따라 양무제가 황제 등극 후, '도교를 버리고 불교를 받듦'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결코 도교와 유교를 버리지 않았다. 특히 양무제는 당시 유명한 도사 도홍경(陶弘景)과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그와 논의해 결정했을 만큼 도교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세상에서는 도홍경을 '산중의 재상'으로 칭했다. 양무제의 입장은 '삼교일치'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이와는 반대로 통치술의 일환으로 불교를 이용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 실제로 양무제는 '불심천자' '황제보살'이라는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수차례 군대를 일으켜 이웃나라를 침략했고, 자신의 황제자리를 지키려 많은 살생도 했다.

<자치통감(資治通鑒)>의 저자인 사마광(司馬光)은 이런 양무제를 '유 · 도 양교 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묘사했다. 선종의 전설로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벽암록>의 제1칙의 '달마 대사와 양무제의 문답'은 바로 이 점을 선(禪)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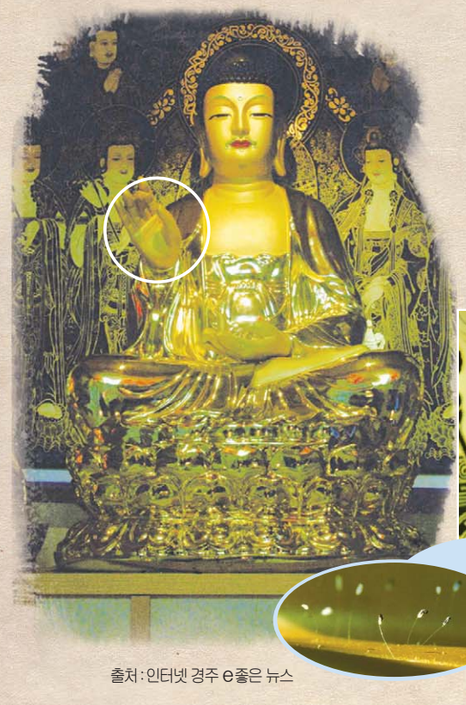
양무제의 최후는 그의 화려했던 일생에 비한다면 비참했다. 548년 동위(東魏)로부터 양무제에게 투항한 후경(侯景)의 반란이 있은 이듬해, 후경의 군대에 포위돼 처량하게 굶어 죽었다. 양무제의 비참한 최후는 어쩌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교신앙을 이용했던 것에 대한 과보가 아니었을까.

불교거사로서의 양무제는 근본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황제로서 그가 보여준 여러 신앙적 행위는 이후 중국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가 보여준 '사신공양'이나 다양한 법회의 개최, 교의에 대한 강설 등은 이후 전체적인 중국 거사불교의 귀감으로서 설정됐다. 또한 양무제의 '진신론'은 중국불성론의 한 과정으로 중요한 사상사적 의의를 보인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자비마을

자운사 이운식 및 우담바라 친견법회



출처 : 인터넷 경주 e좋은 뉴스

귀의 삼보하옵고

장애인과 노인복지(독거노인)와 승려실버타운 설립 사회복지(소년소녀가장)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경주 자비마을 자운사에서 이운식 및 불교전설, 천연의 꽃 **"우담바라"** 친견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친견법회에 동참하시어 무량복덕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일 시 : 2008년 4월 13일(일) 오전 10시(음 3月8日)
◆장 소 : 경주 자운사
◆식 순 : 1부 – 법회 / 2부 – 경로잔치(풍물, 사물놀이, 불자가수공연)
(☞ 찾아오시는길 : 불국사역에서 코오롱호텔 중간지점 좌측 경주국립문화재 연구소 맞은편 자운사)

자비마을 성봉사 회주 혜연 합장

경북 경주시 마동 935-38 전화 054)746-7026, 776-1080

성주산 성봉사 054)775-2976
성봉사 대구포교원 053)256-2561
성봉사 부산포교원 051)775-7582
대한장애인총연맹겸주지부 054)745-1638

스님께서 직접운영하는

웰빙 사찰음식

향적원(香績園) 054)775-0014

전통 찻집

솔밭사이로 054)745-1638



요동치는 그 마음을 없애고 탁 놔버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이거 보세요. '네가 있기 이전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나 있기 이전이 바깥에 있습디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씨를 갖다 심으니까 참외가 나왔어요. 오이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수박씨든 참외씨든 무씨든 홀딱 그 껍데기는 벗어지고 알맹이가 싹이 돼서 나오지 않습디까, 네? 그러니 싹이 돼서 나와서 한 철 삽니다. 그게 한 철이에요. 한 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서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무르익어요. 무르익어 가지고 씨가 거기 들어 있어요. 작년에 있던 씨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씨가 그 속에 들어 있으니 그 속에서 찾아야 될 텐데, 이건 저 땅에 심었다고 바깥에서 그걸 찾는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바깥에서 각각 관세음보살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고, 이거 각각 저거 각각…. 여러분에게 구비돼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전부 여러분한테 구비가 돼 있지 바깥에 돼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도 있고 우주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그렇게, 내가 나오기 이전의 씨가 내 속에 들었다 이거예요. 내 속에 들어 있고 씨도 그렇게 들어 있는데 아니,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 싹이 나지요. 참외 싹이 나고 참외가 열리지 다른 게 날 수 있나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지요.

그 속에 들어 있는데도, 이것이 거죽은 노랗고 속은 하얗고 뭐, 물렁물렁하고 씨가 들어 있다는 둥, 여러분은 만날 이론으로만 듣고 실천을 옮길 줄 몰라요.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줄 모르고 만날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이론으로 하다 보니까 망상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니까 놓을 줄도 모르고 놓을 줄 모르니까 만날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네? 제 씨는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바깥에서 제 씨를 찾느라고 온통 헤매는 거지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온통 바깥에서 찾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미거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타고난 사람인데, 99%가 부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어찌 그럴까 이거지요, 네? 사람 되기 이전에 얼마나 쫓기고 쫓기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얼마나 그 시련을 겪었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겪으면서 경험을 얻고, 겪으면서 지혜를 넓히고, 겪으면서 좋고 나쁜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르락내리락하고 윤회에 말려 끄달리면서 쳇바퀴 돌아가듯 끝없이 그 고통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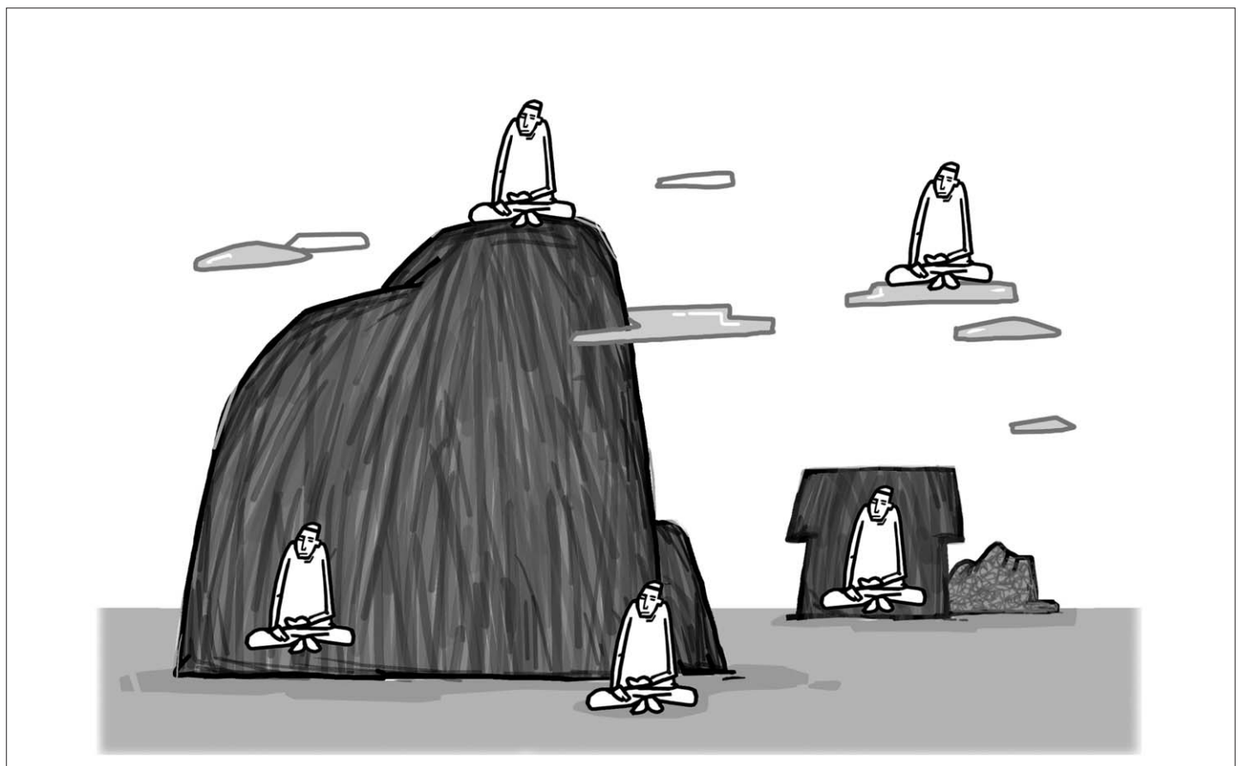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지금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만이 낫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엎드러져도 내가 일어나듯이, 나한테서 병난 거는 나한테서밖엔 해결할 수 없듯이 '내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맡겨 놓아야 합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그러느냐.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 의식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통해서 자기가 맡은 소임을 굴리면서 돌아가니 한마음이지요. 그리고 내가 한생각 하는 건 지배인과 같다 이겁니다. 내가 한생각 잘못하면 여러 생명들이 내 생각대로 다 잘못 돌아가면서 그냥 병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그처럼 아주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됐거든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고 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허허허…. 고걸 마치고 해야 할 텐데 글쎄, 이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든지 그저 한자립니다. 돌아간 자리가 따로 없고 돌아온 자리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저렇게 돌아가고 요렇게 가고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묘한 도리요 부처님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 소리죠. 내가 이렇게 질서 없이 또는 체계가 없이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고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 이리로 가다가도 그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자유권을 가졌구나!' 하는 거 말이에요. 질서정연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뜻만 잘 받아들인다면 내가 체계적으로 안 해도…, 그건 체계가 없어요.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도리, 시공이 없는 도리는 체계가 없고 절망이 없고 승리가 없고 모든 건 자유자재예요, 그대로!

조금 전에 뭘 얘기했죠? 네?

신도1(남): 절로 들어가는 거 얘기했습니다.

스님: 예. 절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던 거는요?

신도2(여): 건강한 사람이 별안간에 병이 났어요.

스님: 으응, 그렇죠! 난 이렇게 가다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길을 물어서 가면 될 거를 내가 뭘 어느 길인가 생각하고 있겠느냐 이러고 왔어요, 오늘도요. 아유! 길을 모르면 여러분한테 물어서 가면 될 거를….

신도3(남): 신발이 저기 있는데요, 뭘…. (대중 웃음)

스님: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바로. 네? 신발이 저기 있는데 뭘, 무슨 걱정이 있냐고. (대중 웃음) 야! 그것이 참, 훌륭한 아주…, 허허허…. (대중 웃음)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

그분은 기운이 세고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하다가 아마 반 이상이 잘못됐던 모양이죠. '될 대로 돼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될 대로 돼라' 이러곤 술 마시고 그냥 뭐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러니까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이 다 지배인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막 곤드레만드레가 돼서, 즉 말하자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속에서 자기소임 맡은 거를 그냥 제대로 해 나가지 않고 그랬던 거죠. 이쪽에서 술을 먹으니까 그쪽에도 술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생들을 먹이는 거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요 입만 빌리고 식도만 빌렸죠. 그러고는 다 그냥, 식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먹게 되고 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먹게 되고, 소장 대장 방광 뭐, 간 쓸개 이자서껀 일하는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먹게 되죠. 다 먹게 되니까 서로 다 취한 거예요. 취해서 그냥 자기 질서를 문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쇼크를 받고 그렇게 자길 버려 가지곤 사흘 이내에 죽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자기를 자기가 지켜 나가려면 지배인이 한생각을 잘해야지 모든 중생들의 집을 잘 끌고 갈 수 있죠. 이 몸이 혹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 국토, 여기가 내 국토예요. 여러분의 국토 아닙니까? 은하계의 별성처럼, 지구 안의 사람들처럼,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그 국토 안에 내 중생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토를 올바로 지키려면 한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망했다 하더라도 껄껄 빙긋이 웃고 말입니다. "허, 이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사람이 어떡하다 나왔으면 사는 거지, 뭘 그래!" 하고선 탁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여한 마음, 그것이 살리는 겁니다. 도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법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그 달구지에 짐을, 과거의 짐을 다 실었거든요. 근데 달구지를 치는 거예요. 몸뚱이, 달구지를 치는 거죠. 소를 쳐야 할 건데 자꾸 달구지를 치니 그런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집니까, 소가 갑니까? 구르질 못하죠. 달구지만 부서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자기 씨가 있으니, 소는 바

☞26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발원합니다.

3월 중순 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사찰의 법회, 불사 및 행사 등의 소식을 손효선 기자를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귀 사찰의 법회, 불사 및 행사 등은 충청지사에서 전문 기자를 통해 취재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취재 및 광고 요청 방법

◆ 전 화 : 043)732-5560
◆ 핸드폰 : 혜철 지사장 010-9422-8453
손효선 기자 010-9577-2209
◆ 메 일 : 충청 지사장 ksson108@hanmail.net
손효선 기자 mindinhot@empas.com
◆ 팩 스 : 043)732-5520

현대불교신문사 충청 지사장 혜철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책 좀 사주면 안 되나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려 세상에 흘러 전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떠들지 않으면 스스로 볼 줄 모르고 부추기지 않으면 스스로 행할 줄 모르는 오늘 바람 넉넉히 안아... 어제는 탁발을 나갔습니다. 신문광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지요.

500원씩, 천 원씩 보시를 받아 6만원을 모아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은 더 발품을 팔아야 광고비를 충당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사찰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하고 물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반연없이 신생사찰을 꾸리자니 포교비용에, 운영비에 쪼들리는 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내 사정을 바꿔 보려고 작년 말에 수행지침서인 『나를 알면 살기 쉽다』를 펴냈고, 얼마 전에 『나를 바꾸는 108배 대참회문』을 낳았습니다. 두 권 다 제 나름에 부끄러움이 없겠다 싶었는데 책이 팔리지 않아 사정은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자 여러분, 제 책 좀 사주면 안되나요?

전국 불교서점 및 교보, 영풍, 인터넷서점 등에 있습니다.

시방사에서 석호 합장

• 포교후원계좌 : 대구은행 034-10-003424 (예금주 : 시방사)
문의전화 053)654-0408 / 법공양문의 053)253-1923

新 보다 완성도를 높인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돌샘 미르아이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신을 한꺼번에 아우르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 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용광로에 다 넣어야 녹으니까 내 용광로에다 놓아라

☞25면에서 계속

로 그 안에 있으니 소를 쳐야지 내 몸뚱이 이것이 나라고 하면서 나를 자꾸 볶아 대면 달구지가 망가진다 이 소리죠.

그냥 대충대충 이럭하다 보니까 좀 그렇군요. 아까 절에 들어갔던 사람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은사 스님께서 "얘야! 저기 흘러가는 물 좀 봐라. 물이 틈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틈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공양 짓고 나무 해오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게 모두 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세 가지를 물었단 말입니다. 가만히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틈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냐?"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일어나서 삼배를 올리고 딱! 딱! 딱! 손뼉을 세 번을 치더니만 탁 꿇고 앉았거든요. "인제는 그 사슴이 누군 줄 알았느냐?" "예, 전자의 제 어머님이요 제 형님 두 분입니다." 하고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가 이렇게 어머니인 줄 알고 형님인 줄 알았지만 형님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수행하면서 조상들의 마음을 둘 아니게 한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모든 분들이 산골에서 쪽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많은 짐승들을 살생하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한마음으로 놓으면 할아버지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형제들의 마음도 내 마음인 그 마음은 체가 없으니 내 물 한 그릇에다 물방울을 수만 개를 넣은들 어찌 한 그릇이 아니오리까. 그러니 이것을 이름 해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거기에서 절을 짓고 사시다가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에도 나라를 위하여 많이 거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뭐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름은 잊어버렸거든요, 또. (대중 웃음)

그러니 여러분도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데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웃음으로 대해 주고, 생활 속에서 어떠한 고통 받는 일이 있더라도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어쩌고…." 이러면서 욕하지 마세요. 한생각이 그렇게 무서워서, 모진 욕 한마디가 걔한테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긴들 좋겠습니까? 또 남편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한 철인데. 욕을 먹든 매를 맞든 뭐 나가서 바람을 피우든 어떻게 하든 말이에요. 사랑을 한다면 다 줘 버리지 그깟 놈의 거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더러더러 속 썩는 분들도 있기에 내 이런 소리 합니다. 그것을 다 놓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웃으면서 대해 주고 속은 상하더라도 속상한 건 주인공한테 맡겨 놓고 '당신만이 저 사람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 놓을 때에 그 주인공하고 내 주인공하고 둘이 아니거든요.

'내 주인공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은 그 사람을 잘 끌고 다닐 거다.' 하는 것을 믿고 맡겨 놓을 때 그대로 되죠. 그러고선 좋은 말 해주고요. 아주 속상하고 꼴 보기 싫더라도 그래도 그런가요? 사랑한다면 놔 주고 좋은 말 해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죠.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대해 준다면 그곳으로 고이게 마련이고 여름에 더울 때는 그 자리를 시원하게 해 준다면 바로 시원한 데로 앉을 것이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회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사랑을 한다면 모두 다 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울지언정 그 사람을 울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괴로울지언정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그것이 진짜 자비요 사랑입니다. 입 안에 붙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금방 만나면 "야! 나, 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다가 금방 며칠 안 가면 싸움을 하고 그냥 "야, 이 새끼야! 너하고 나하고 언제 적에 뭐 어쩌고 어쩌고…." 싸우곤 그냥 각 방을 쓰고 온통 야단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깨비장난을 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건지려고 뛰어드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자비예요.

그래서 때로는 싱긋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참, 뼈저린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다 줘 버리면 그뿐인 것을 뭐 때문에 저렇게 울고 저렇게 애탄지탄 끈적끈적하게 애를 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냥 '못난이끼리, 너나 나나 못나서 그러니까 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옛날에 생각도 해 봤죠.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없애야 되는 거는 바로 마음이죠. 그 요동치는 마음을 없애고 탁 놔 버리는 거예요. 이까짓 몸뚱이, 이까짓 고깃덩어리 한 철 사는 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한 철을 울고불고 애를 써요? 편안하게들 사세요. 여기 온양에도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눈 팔더라도 "여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신이나 나나 뭐 그렇게 저거 했다고, 나가서 맛있는 거 잡숫고 그저 마음 편안하게 삶의 보람을 좀 잠시라도 느껴 보시오." 이러고선 탁 줘 버리고 나는 편안하게 있으면 좀 좋겠습니까. 조용하게 말이에요. 외려 그냥 줄줄이 붙어 있는 거 다 떼버리고 편안하게 조용한 데 앉아 있으면 그 참,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붙어 있는 것만 좋은 줄 알지만 탁 털어 버리고선 훨훨 날아다닐 때가 여간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집 저 집 쳐다보면 집집마다 불빛이 찬란하게 그냥 별빛처럼 나오고 별빛 등처럼 불이 비치는데, 아주 순탄하게 다 좋은 거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그냥 머리끄댕이 붙들려서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그러질 않나, 사람이 죽었다고 울지를 않나, 온통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야단들을 하지 않나. 온통 그게 도대체, 그냥 시들부들 시들부들 도대체 그게…, 이게 감이 잡히질 않아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다 하고 보니까, '다'라고 한다면 틀렸지요. 그래서 '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다 하고 보니까 공부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도깨비장난 같더라 이거지요. 뭐 별로예요, 그냥. 그냥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지요.

사랑을 하려면 진짜 해야죠,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말고요. 우리 본원의 어느 신도님 동생도 그렇게 해서 다독거렸더니 지금은 사랑을 그냥 너무 자비스럽게 해요. '그렇게 내가 왜 그랬던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기 각자의 업보니까요. 업입니다. 자기가 전자에 부인을 그렇게 속을 썩이고 울렸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안고 나오고 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탓이 아니거든요. 자기 탓입니다, 모두. 남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온양에서도 이 공부를 안양에서 하는 대로 항상 같이 해 나가도록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잘한다면 어떻고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못났다면 어떻고 잘났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가 올바르고 진실하게 남을 해하지 않고 그저 웃고 부드러운 말 해 가면서, 어떠한 길을 걷든지 뚜벅뚜벅 그냥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 부처면 남도 부처로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마구니라면 남을 마구니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 온양에 있는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 몸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들에게 햇빛을 줄 수 있고 부모에게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그칩니다.

저 부처님 상(像)이 내 상이요 내 상이 부처님 상인데, 여러분과 다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글쎄 눈이 짓눌려서 눈앓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런 발칙한 사람들이 어딨어요, 세상에? 이거 다시 만들어요, 다시! 안을 지우고서 다시 금칠을 하고 다시 좀 이렇게 딱 찍어 놓기만 하면 아주 눈이 정상적으로 참, 빛이 나고 좋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 넣고 말입니다. 그래 첫째, 속이 제일이지만 겉도 저렇게 만들어 놔선 안 돼요. 그래도 부처님 상인데요.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땐 저것도 다 그냥 집어 먹어 없애고,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나올 때는 다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거기까지…, 다 버릴 땐 다 버리고 부처까지도 버려야 되거든요. 바깥에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에다 넣어야 녹으니까 내 용광로에다 놓아라 이거지요. 바깥에 버리면 또 녹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참는 것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 놔요, 믿고. 그러면 요다음에 내 몸뚱이도 버릴 게 없고 내 몸뚱이 부처도 부처라는 거, 즉 말하자면 가만히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부처님이지 뭐 다른 건가요? 우리 스님네들 여기 부처님들 죽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도 법신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요. 그 마음이 부처지 보살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릴 깎아야만이 많은 중생들을 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살로 계시다가 요다음에 대통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장관으로도 나와서 건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수없이 그런 인연들을 타고 나고 그런 게 자기한테 주어지죠. 배우라고 한다면 그런 역을 맡아 가지고 나오죠. 우리도 배우이자 부처이자 보살이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지금 배우가 이러한 역을 맡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 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역을 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오늘은 너무나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오늘 여러분한테 당부드린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 씨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망이나 무전통신기나 망원경이나 탐지기나 컴퓨터나 팩스나 그런 것이 다 겸해서 거기 진실로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자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에 입력을 누가 해라 말아라 할 거 없이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닥치는 대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자유적인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으로 따진다면 저런 물질적인 문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다 돈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하고, 아니, 하고 싶어도 아마 돈이 들어서 못할 겁니다마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입력을 해 넣어도.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없고 무한량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공부를 안 하시렵니까? 모두 밥 한 그릇 놓고 떡 한 그릇 놓고 빌면서 나 좀 살려 달라고 그러다가 요다음에 또 나 살려 달라고 할 테니 그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깊이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음성공양이 끝나고)

여러분! 나툰다는 말 아십니까? 나툰다는 거 말입니다. 나툰다 하는 걸 모르면 이해가 안됩니다. 나투는 거는, 여러분이 자식을 만났다가 금방 남편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자식을 만났을 때는 엄마가 됐죠. 그랬는데 금방 애는 비켜나고 남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가 돼서 말도 아내의 말이 나가고 또는 행도 그렇게 나오고 뜻도 그렇게 가지게 되죠. 그거를 한 찰나의 나툼이라고 그럽니다. 바꿔서 돌아가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은 붙어 있는 것만 좋은 줄 알지만

탁 털어버리고선 훨훨 날아다닐 때가 여간 좋지 않아요!

※위 법문은 1990년 3월 1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토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정토불교법사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개강일자 : 2008년 4월 7일 (월) 오후 3시 (목탁 지참)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교육내용
(1)송 주편 (도량석, 조.석 종성)
(2)예경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3)헌 공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지장, 관음, 신중청 등)
(4)제의식 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5)시식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3. 교육기간 : 단기 속성 3개월 과정
4. 신청방법 : 전화접수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강신청서. 사진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식방법을 현장실습 위주로 집중 지도함.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정토불교법사대학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403-15 (3F)
TEL 02)720-1836, 733-1959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종안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숭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숭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숭산소림사 석영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숭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본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져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입종시 :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입종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 예 :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 선생
■ 소림무술 : 소림무술스님 :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당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 (야후) 연합불교방송

VIP 여행사
불교성지 순례상품

[불교성지순례]
▶문수도량 : 오대산 순례 + 북경(5박 6일)
₩ 990,000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 상해 / 항주 / 소주(5박 6일)
₩ 8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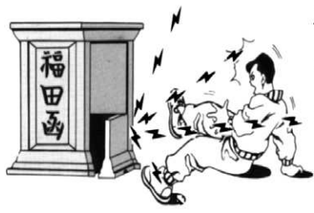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순례 + 황산(7박 8일)
₩ 1,090,000

[불교성지순례]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순례(5박 6일)
₩ 1,500,000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VIP여행사 |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 055)743-5001 / Fax 055)743-5003
E-마트 : ☎ 055)741-9999 / Fax 055)742-4444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식품 불신시대의 자화상

생쥐머리 새우깡 여파가 확산일로다. 분노한 시민들은 새우깡 봉지에 생쥐사진을 담고, '생쥐깡'이라고 표기한 패러디물을 만들 정도다. 이 상품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비난받는 이유는 사후처리 문제 때문이다. 처음 발견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은 후 무려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이 사건이후 지렁이 단팥빵, 벨트조각 쌀과자, 칼참치, 곰팡이밥 등 듣기조차 민망한 일련의 서민형 먹을거리와 관련한 위생 안전사고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체마다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력을 쏟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낵(snack)이란 단어는 가벼운 식사를 가리킨다. 1957년 경식(輕食)을 지칭하는 '스낙쿠'라는 말로 일본에서 유행한 이래 우리나라에 건너와서는 부담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군것질 식품을 뜻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1960~1970년대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간식용 과자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어려웠던 보릿고개가 끝날 무렵 정부의 분식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스낵류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산다. 먹을거리의 경우 삶의 기본 조건이며 식품회사는 어떤 상품보다도 깊은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와의 생명을 담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과연 그러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앵무새처럼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만 잠시 그때뿐이다. 언제까지 마냥 기업가의 양심에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산품인줄 알았던 새우깡이 중국에서 반죽을 만들고 새우깡 모양으로 커팅을 한 반제품으로 들여온다는 사실도 소비자들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재료 원산지 표시와 반제품 제조국 중 한 곳만 표시하면 된다는 규정자체가 편법을 조장하게 한다는 것도 우습다.

이참에 반제품 제조국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강력한 처벌조항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새우깡의 짭조름하고 바삭한 맛으로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애용해 온 국민 스낵이라는데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래방이나 소풍 따위로 새우깡하면 떠오르는 추억을 한 두 개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손이가요. 손이가. 자꾸자꾸 손이 가"라는 중독성에, 가난한 서민들의 술자리 안주로도 한몫했던 과자가 아니었던가.

소설가 최재경씨는 자신의 소설 <숨 쉬는 새우깡>에서 새우깡 개발자인 남자가 과자의 완성을 앞두고 억울하게 죽은 뒤 그 영혼이 여자아이에게 깃든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여자아이는 새우깡과 함께 태어나 새우깡을 먹으며 자란다. 여자아이의 역사는 새우깡의 역사이자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문화사이기도 하다.

이런 새우깡이니 파문이 단순히 먹을거리의 불안에 대한 차원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온다. 새우깡이 불러오는 한 시대, 혹은 유년의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이 훼손된 듯한 상실감이다.

"어린시절 원망했던 선생님 오히려 감사"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57 역경을 되돌려 성공하다

돈 없는 설움

박씨는 어렸을 때의 서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산골에서 살던 그의 아버지는 지병을 앓다가 박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 장례식날 그는 슬피 울면서도 막상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동네 어른들은 그를 보면 "불쌍한 것"하고 말하곤 하였다. 친척들도 "어떡하나, 거 참"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와 싸우고 울며 들어오자 어머니는 무섭게 화를 내었다. "너 남을 때렸니!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서 버릇없이 큰다는 말 들으면 안 돼!" 그 때 처음으로 박씨는 똑같은 행동도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박씨 집 형편은 무척 어려웠다. 그나마 조금 있던 돈도 아버지 지병을 치료하는 동안 다 들어가 빚이 많아진 것이었다.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간 후 박씨의 시련은 시작되었다. 돈이 없어 육성회비를 낼 수가 없었다. 한 달, 두 달이 밀리자 담임선생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일 남의 집 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낮에 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박씨는 차마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설사 말한다 한들 어머니는 육성회비 낼 돈이 없을 것이다. '마음만 더 아프실 텐데' 하며 그냥 학교에 갔다.

전설적 노력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박씨를 앞으로 불렀다. "이 놈, 넌 육성회비가 밀렸어. 그런데 반성도 안 해!" 하고는 앞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었다. 그 슬리퍼로 선생님은 박씨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어린 박씨는 너무 놀랐다. 뺨도 아팠지만 모든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맞고 있는 것이 창피하고 슬펐다. 문득 내가 왜 맞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닌데, 하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담임선생님은 왜 무슨 사정이 있어 못 내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다.

그 때부터 박씨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여전히 돈은 없었다. 비용을 내지 못해 수학여행 조차 갈 수 없었다. 그럴 때면 눈물을 삼키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고등학교에 가자 성적이 상위권에 들면서 선생님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렵게 학비를 벌면서 지방대학에 다녔다. '독하게 공부한다'는 말을 줄곧 들었다. 말단으로 취직한 회사에서 돈도 인맥도 없이 오직 진실하게 노력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사장 눈에 들어 고속승진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인맥하나 없이 그리고 학연도 내세울 것 없는 지방대를 나와 이사자리에까지 오른 박씨는 그 회사의 전설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고는 나를 위한 것

이제야 '고가 고가 아니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 때 담임선생님에게 맞은 것, 그 수치감과 서러움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아픔이 배고픈 것도 잊고 놀고 싶은 것도 잊고 공부에 몰두하게 한 셈이었다. "솔직히 오랫동안 그 선생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를 채찍질하기 위해 나투신 관세음보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기까지는 무척 많은 눈물과 땀과 가슴 저린 아픔이 있었다. 신실한 불자로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열심인 박씨는 누구도 슬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한 가지 걱정은 좀 오래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이제 중년인 그는 씩씩하고 밝게 크는 두 아들을 보면 가끔 목이 메인다. 마흔도 안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 그 때문에 겪은 설움을 생각하면 자신은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발원하곤 한다.

"사실 일찍 가신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었지요. 그러나 제가 애비 입장이 되어보니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얼마나 눈을 감기 어려우셨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못 다하신 아버지 몫까지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인연법을 알게 된 그는 이제 조상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공익법인과 시대정신

조계종이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설립한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각종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취지의 재단이다. 끔찍한 살인사건과 재난이 그치지 않는 이 시대의 중생들에게 불교계가 '동행'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대승불교의 정신은 행복을 함께 누리는데 있다. 깨달음이라는 지고의 가치에만 목말라 하지 않고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을 행복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행이다. 불교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길어 올리고 이웃과 나눌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대승이다. 큰 수레를 함께 타고 간다는.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그 이름에서 대승불교의 정신을 물씬 풍기고 있다. 그런 만큼 향후 운영도 특정의 집단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평범한 이웃들이 바로 곁의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여는데 집중될 것으로 믿는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계획도 세워 둔 것으로 전해진다.

불교는 시대를 이끌어 가는 종교다. 불교가 보편적 대중의 삶과 문화 그리고 사회가치를 이끌어갈 때 세상은 불국토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설립하는 공익재단이 바로 제대로 된 불교의 시대정신, 역사적 소명의식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 일꾼을 선택하는 지혜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은 또 하루의 '선택의 날'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정치권은 공천 논란 등으로 어수선했다. 그 소란으로 국민적 혼란도 극심했던 게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정치는 복합적이다. 정당정치의 속성과 권력쟁취의 욕망에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까지 합세한 것이 오늘날의 정치 형국이기 때문이다. 경제와 문화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에서 선거는 보다 큰 틀에서의 지혜를 요구한다. 거기에 종교와 정치의 모호한 결합까지 더해지면서 불자들은 다소간의 혼란을 겪고 있다. 종교색을 띤 정당이 출범하고 나름대로 후보를 내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일 해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그들에게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입장에서 유권자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검증 시스템보다는 당리당략과 의석확보에 매몰된 오늘날의 정치 현실은 긴 안목에서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참정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누가 참 일꾼인가를 분별하는 방식은 각자의 몫이지만, 진심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 '멸사봉공'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대의는 변할 수 없다. 진심으로 바라볼 때 진심은 보이는 것이다. 4월 9일 불자 대중은 투표소로 달려가 참 일꾼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신암
- 법 명 : 연화(속명 – 강임자)
- 주 소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2리 1163번지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비룡사
- 주 소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41번지

상기 사찰은 2002년 10월 15일
사찰명 '**한국불교 태고종 비룡사**'에서
'**비룡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정사
- 법 명 : 유심
- 주 소 : 부산 동구 초량2동 467번지
- 사찰명 : 연주사
- 법 명 : 원덕
- 주 소 : 부산 진구 초읍동 263-25
- 사찰명 : 법정사
- 법 명 : 법정
  법진
- 주 소 : 부산 북구 덕천1동 390-5

상기 사찰과 종도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운암사
- 주 지 : 혜수
- 주 소 : 충남 천안시 북면 대평리 677-3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법하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인사 올립니다.

저희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도우는 중국 청왕조시대의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사해보녕' 공연을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중국의 문화개혁, 개방과 발맞추어 중국정부, 중국대사관, 중국문화원의 후원으로 시작된 문화교류입니다.

문화는 한 국가의 심장이자 또한 나라와 나라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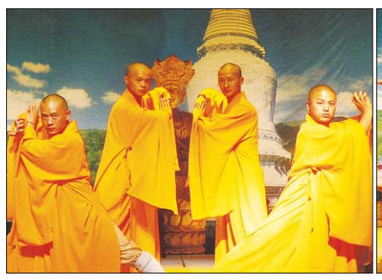
그런 차원에서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道友"는 서로 다른 언어와 습관, 그리고 서로 다른 인종의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서로간의 우정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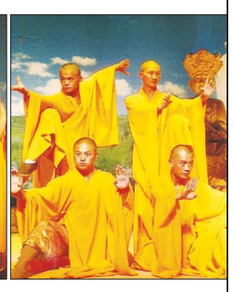


이러한 믿음이 "2008 중국 문화예술단 공연"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연이 양 국가간의 우호적인 발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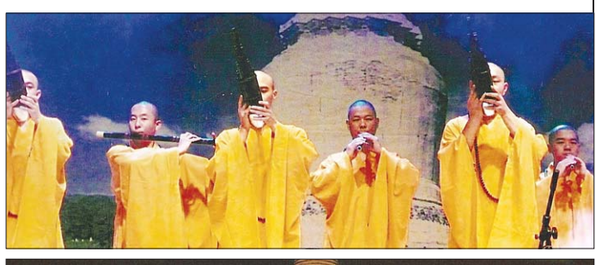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회장 남광일 합장





2008 중국 문화 예술단 공연 일정

- 4월20일 강동구민회관
- 4월21일 공주 신원사
- 4월25일 김해 "가야 문화축제"
- 4월26일 장흥 "육지장사"
- 4월27일 당진 불교연합회
- 5월 1일 원주 불교연합회
- 5월 6일 옥천 불교연합회
- 5월 7일 전남 진도 불교연합회
- 5월 8일 대구 불광사
- 5월 9일 아산 사암 연합회
- 5월10일 진해 불교 연합회
- 5월11일 대한불교 일광종 초 파일 전야제
- 5월12일 조계종 개운사
- 5월12일 의왕시 청계사
- 5월15일 대한불교 미타종 불자를 위한 공연 중량구민회관





사해보녕 "금윤법계 - 묘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금윤법계-불문숭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 미와선이 암흑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애기한다.

2. 묘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애기함.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숭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괘 희경열렬으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룡(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축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 A Time = 60분
-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 2006 스리랑카 국립무용 초청
- 2007년 네팔왕실 무용 초청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 동영상을 찾으세요!)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조회